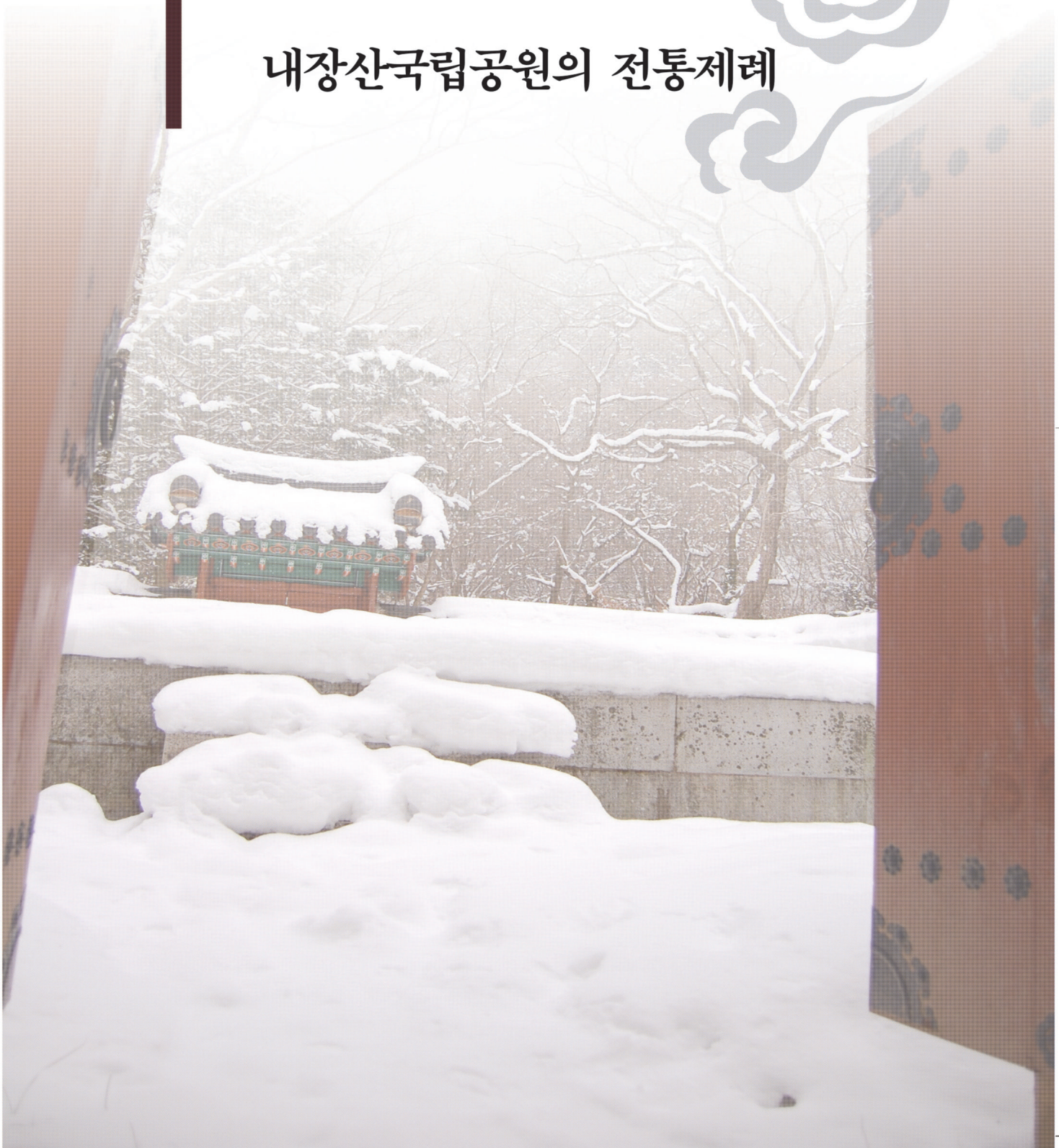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3 PM 페이지1 Mac1 CTP-2400-CMYK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3 PM 페이지119 Mac1 CTP-2400-CMYK

내장산국립공원의 전통제례



내장산국립공원의 전통제례

스토리텔링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전통문화에 있어 이야기의 소재를 제공하고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무형문화재가 그 답이 될 것이다. 눈에 보이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재는 민족정체성을 내포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소재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지나친 주위의 크고 작은 마을의 전통제례는 단순한 중앙 중심의 무형문화재가 아닌 그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문화다양성을 가진 소중한 문화재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내장산국립공원의 전통제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주위에서 전승되어온 마을의 전통 문화가 경쟁력 있는 소중한 무형문화재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내장산국립공원 지역의 마을제례와 국기제 등 전통제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3 PM 페이지121 Mac1 CTP-2400-CMYK

내장산국립공원 전통제례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라남 · 북도를 아우르고 있는 공원으로 내륙에 위치하며 산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일찍이 농업이 발달하며 안정적인 마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일찍부터 발달한 농경문화는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며 마을 공동생활을 발전시켰고, 각각의 마을은 마을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제례를 발전시켰다. 특히 장성군의 경우 호남 내 유일하게 훼철되지 않은 필암서원을 필두로 유교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18교구의 본사인 백양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그 문화와 융화된 독특한 마을별 전통제례를 만나볼 수 있다.



1. 마을 전통제례

1) 자포마을 당산제 및 선돌

자포마을은 고려 말 김해 김씨가 맨 처음 마을터를 잡아 뒷산 암봉이 두 개의 알을 품은 형국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자포마을의 선돌(立石)은 마을의 번영과 풍요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마을 주민들은 이 선돌을 정성껏 섬김으로써 마을에 재앙이 없길 바라고 있다.

자포마을에는 할아버지 선돌과 할머니 선돌이 있다. 할아버지 선돌은 마을 앞산의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해 세웠고 할머니 선돌은 마을 뒷산의 음기(陰氣)를 누르기 위해 세웠다고 전한다.

아들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선돌에 정성껏 빌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매년 음력 2월 초하루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선돌에서 지내고 있다. 독특한 풍습으로 남은 것은 당산제가 끝나면 굵게 꼰 세가닥 새끼줄로 암줄과 숫줄 110m씩 꼬아 암줄과 숫줄 사이에 비녀를 꽂아 동네 남자들과 아녀자들이 줄다리기 시합을 세 번한다.

이때 여자들이 이기면 한 해 풍년이 든다하여 세 번 중 두 번은 여자들이 이기고, 줄다리기 후엔 풍물패를 선두로 마을을 한바퀴 돈 후 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선돌에 옷을 입히고 축문과 기원을 하며 액운을 쫓고 풍년을 기원한다.



자포마을 줄다리기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3 PM 페이지123 Mac1 CTP-2400-CMYK

2) 덕흥마을 당산제

덕흥마을은 내장과 백양을 잇는 중간에 위치하며 오늘날에는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마을은 약 3백년전 심홍리에서 권치근씨가 이사와서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루게 되면서 번영을 기원하면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는 대가마을과 합하여 봉덕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있다.

마을 옆에 당산나무 숲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으며, 당산제는 일주일 전 당산나무에 금줄을 친 뒤, 제주는 3일전부터 정결한 몸가짐과 바깥 출입을 금하고 정월 보름 저녁 12시가 되면 농악과 함께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마을들이 위치한 추령은 행정구역상 전라 남 · 북도를 잇고, 호남평야와 동부산악지대를 가로지른 노령산맥의 중간 지점으로 해발 320m의 고원지대로 추령의 중심에는 장승촌이 형성되었다. 이에 1995년부터 순창군은 자포마을의 당산제, 석보마을의 솟대장승제, 덕흥마을의 당산제 등이 보존되어 오는 전통제례와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순창장승축제를 열어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덕흥마을 당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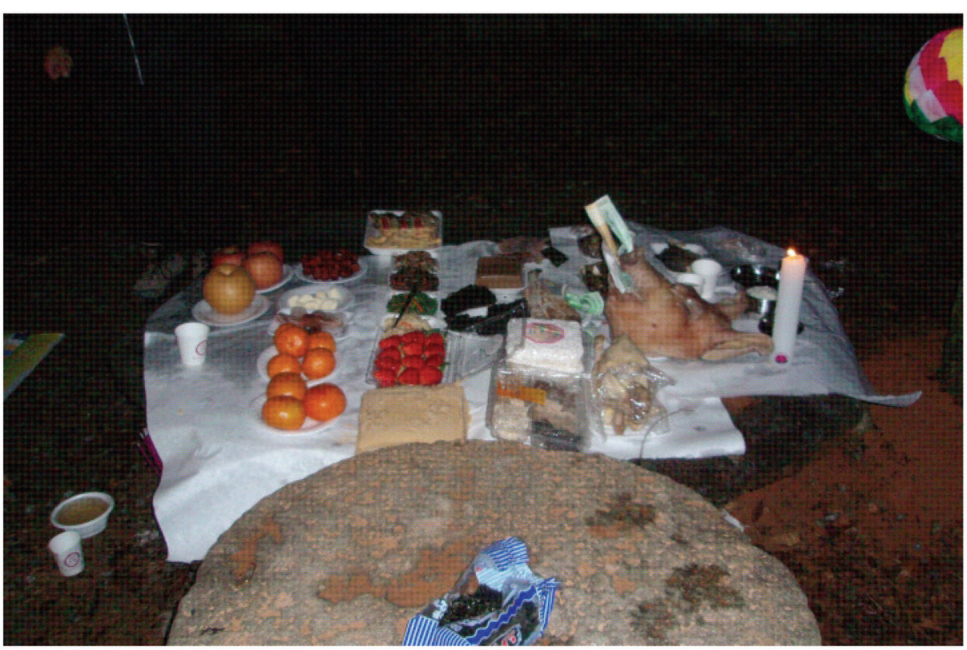
3) 송정마을 당산제

송정은 장성호에 수몰전까지 상목동 · 새터 · 송정 · 부정리 · 사점리가 있었으며, 덕신(德新)은 원래 남바위라 했는데 지석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보인다. 수몰 후 현재는 총 40여 호가 남아 있다.

송정마을에서는 매년 마을 공동으로 제를 모시는데 이를 당산제라고 한다. 제일은 음력 정월 열나흗날로 제는 자시경에 시작하여 새벽 3시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당산제 모시기 전 마을에 액운이 낀 경우에는 날짜를 다시 잡고 제주도 다시 정한다. 제를 모시는 곳은 2곳으로 당산할아버지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소나무이고 당산할머니는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소나무와 은행나무에는 각각 돌로 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송정마을 당산제는 영험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셔지며, 전승의지 또한 강하다고 한다. 영험담의 내용은 송정마을에는 소도둑이 소를 훔쳐 달아나다가 당산할머니 앞에서 빙들빙글 돌기만 하다가 마을사람들에게 잡혔다는 이야기 외에 제를 준비하면서 신성시하지 않다가 급사한 내용도 전한다.



송정마을 당산제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25 Mac1 CTP-2400-CMYK

4) 가인마을 당산제

가인마을은 백암산 가인봉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한국전쟁 이전엔 많은 마을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그 이전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현재 마을은 150년 전 청주한씨가 들어왔으며 광산김씨가 4대째, 봉산이씨가 3대째 살고 있으며 현재는 민박마을과 백양사를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가인마을에서는 정월달에 마을과 백양사가 공동으로 제의를 모시는데, 이를 '당산제' 라고 부른다. 백양사에서 제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에서는 제에 올릴 술과 마을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과 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이렇게 제의 준비가 끝나게 되면 절에서 스님 두 분이 나와 마을사람들과 함께 제를 모신다.

제는 진설→헌작→삼배→독경→축원→소지 순으로 진행이 된다. 제를 올리는 밥과 국은 세 그릇이며 술잔도 세잔인데, 이는 세 분의 산신을 청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님의 염불을 통해 불교식으로 진행되는 제례 이후 마을 사람 누구라도 술을 올릴 수 있으며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는 자리이다.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 밤에 모신다. 날짜에 여유가 많으면 해가 바뀐 후 마을에 초상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산제를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를 초사흗날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제를 모시는 장소는 2곳으로 '안당산' 과 '바깥당산' 이라고 한다. '할아버지' 라고 부르는 바깥당산은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일광정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안당산은 '할머니' 라 부르고 역시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극락교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를 신체로 삼고 있다.



가인마을 당산제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26 Mac1 CTP-2400-CMYK

2. 국기제(國祇祭)

국기제는 국가에 환란이나 재앙이 있을 때 조정에서 근신(近臣)을 보내어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국가적 제의 행사이다. 백암산에는 고려 충정왕 때에도 국기제를 올렸다는 구전이 있으며 「정토사 사적(淨土寺史蹟)」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기록에 조선 선조 36년(1603)과 현종 2년(1661)에 호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임금이 친히 제문을 짓고 홍문관 교리를 파견하여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국기제는 종파를 초월하여 국난을 극복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교식 제의에 의해 조정에서 파견된 헌관과 인근 7~8개 고을 원들이 집사가 되어 제를 봉행하였다.

행례 절차 중에는 강신례(降神禮)가 없고 헌관 1인이 연전 3작하고 4배를 올리며 축(祝)은 땅속에 묻었다. 제물은 4변 4두(豆)를 사용한다.

오랫동안 단절된 이 국기제는 1982년 장성군민의 날 민속 경연대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국기제 보전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특히 제단이 가로 470m, 세로 470m, 높이 1m 규모로 백양사 경내에 조성되면서 유교와 불교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제례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장성단풍축제기간에 제례를 지냄으로써 축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백암산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며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 제례로 자리매김하였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27 Mac1 CTP-2400-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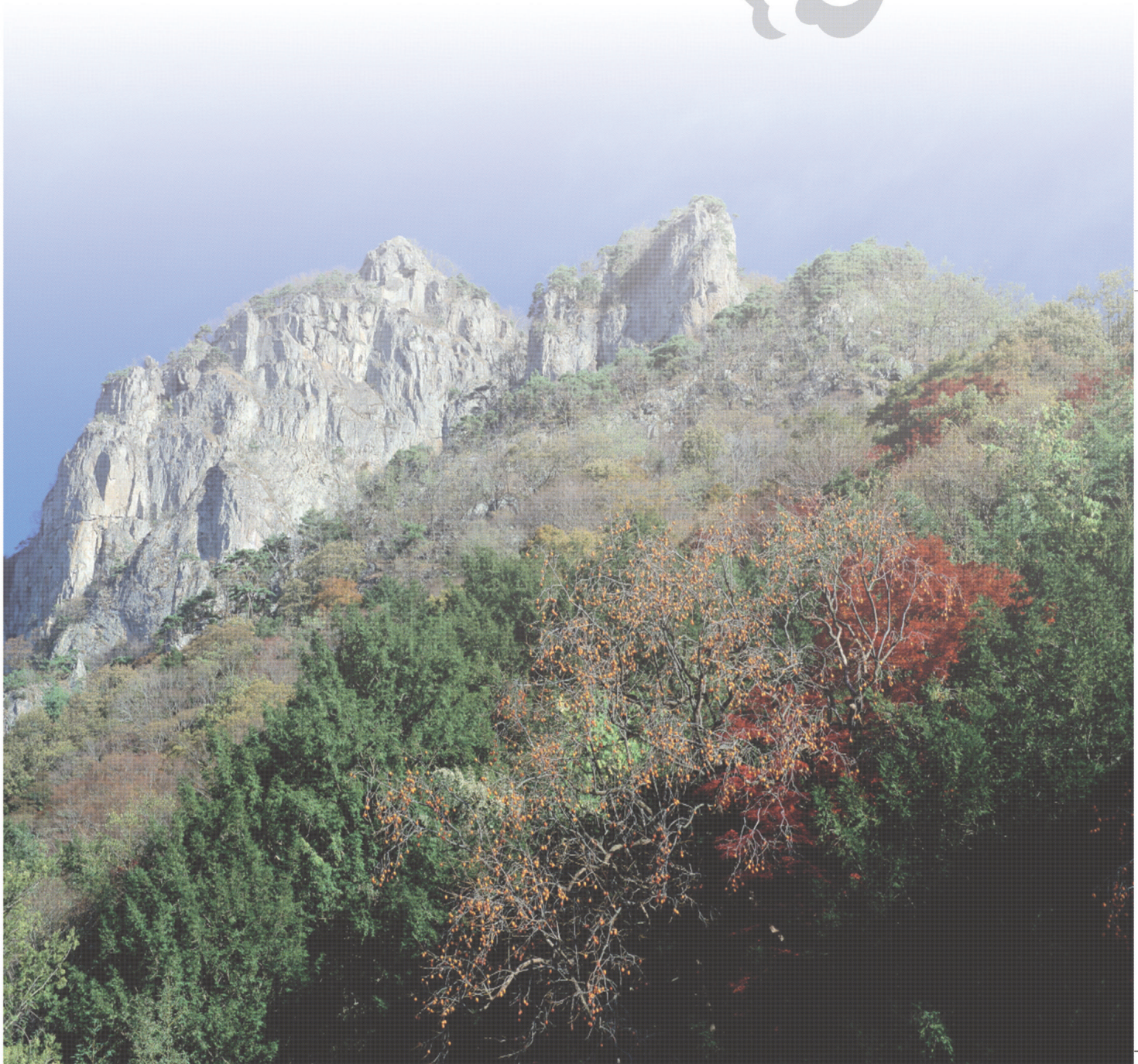
내장산국립공원의 전통제례는 전라남 · 북도를 아우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일찍부터 발달한 마을 문화와 유교문화, 불교문화가 독특하게 더해지며 융화된 가인마을 당산제, 백암산 국기제 등 내장산국립공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전통제례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온 우리문화를 다양하게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당산제는 마을 사람들의 전승 의지로 이어져 내려온 지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무형문화재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뿌리가 되는 각각 지역 마을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제례를 정리함으로써 제례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방법의 보전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문화다양성 확보를 통한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28 Mac1 CTP-2400-CMYK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29 Macl CTP-2400-CMYK

부 록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30 Mac1 CTP-2400-CMYK

내장산의 문헌자료

해동역사 속집 제14권 - 지리고(地理考) 14

◑ 산수(山水) 2 경내(境內)의 수(水)

물은 근원이 두 개이다. 남쪽 근원의 물은 동남쪽에 있는 추월산(秋月山)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 금구성(金溝城)의 남쪽을 지나고, 또다시 서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흘러 남쪽에서 흘러온 한 물과 만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고부성(古阜城) 북쪽을 지나고 또다시 서쪽으로 흘러 만전성(萬塡城) 남쪽을 지나고, 또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부안(扶安)의 북쪽 경계를 지나서 북쪽 근원에서 나오는 물과 만난다. ○ 북쪽 근원의 물은 추월산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김제성(金堤城) 북쪽을 지나고, 또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임피(臨陂) 남쪽과 만전성 북쪽 경계를 지난 다음 또다시 서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흘러 부안의 북쪽 경계에 이르러서 서쪽에서 흘러오는 남쪽 근원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수십 리를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의 길이는 300여 리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남쪽 근원의 물은 바로 동진강(東津江)으로, 근원이 정읍현(井邑縣)의 내장산(內藏山)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 김제에 이르러서 태극포천(太極浦川)의 물과 만나 만경(萬頃)의 남쪽 경계를 지난 다음 서북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북쪽 근원의 물은 바로 사수강(泗水江)으로, 근원이 용담현(龍潭縣)의 주줄산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김제의 북쪽과 임피의 남쪽 경계를 지나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만전성(萬塡城)은 바로 만경(萬頃)의 잘못된 표기이다

증보문헌비고 제20권 - 여지고8 산천2 내

◑ 부록 호남 연해의 여러 내

【동진강(東津江)】: 근원이 정읍(井邑)의 내장산(內藏山)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치천이 되고, 정읍현(井邑縣)을 경유하여 내장산(內藏山) · 입암산(笠巖山)의 목제천(木梯川)을 지나 서북쪽으로 흘러 모천(茅川)이 되며, 이평(梨坪)에 이르러 대각천(大角川)을 모아 백산(白山)에 이르러 고부(古阜) 율치(栗峙)〔고부(古阜)의 산천편(山川編)에는 실리지 아니하였다.〕의 눌제천(訥堤川)을 모으고, 김제(金堤)의 식포(食浦)〔김제(金堤)의 산천편(山川編)에는 실리지 아니하였으나, 김제(金堤)의 동진강(東津江)을 일명 식장포라 하니, 혹시 이것이 식포(食浦)가 아닌가 한다.〕에 이르러 태극포천(太極浦川)을 모아서 동진(東津)이 되고, 부안(扶安)의 동쪽 경계를 경유하여 서북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증보문헌비고 제22권 - 여지고10 산천4 전라도

◑ 정읍(井邑)

【응산(鷹山)】: 〔북쪽 2리에 있다.〕【칠보산(七寶山)】: 〔동쪽 10리에 있다. 태인(泰仁)을 보라.〕【내장산(內藏山)】: 〔동쪽 30리에 있다.〕【입암산(笠巖山)】: 〔남쪽 20리에 있다. 장성(長城)을 보라.〕【반등산(半登山)】: 〔서남쪽 10리에 있다. 장성(長城)과 흥덕(興德) · 고창(高敞)을 보라.〕【노령(蘆嶺)】: 〔일명 위령(葦嶺)이라고 한다. 남쪽 30리에 있다. 장성(長城)을 보라.〕【율치(栗峙)】: 〔서쪽 20리에 있다. 위의 여러 산은 총설편(總說編)을 보라.〕【갈현(渴峴)】: 〔동쪽 28리에 있다.〕【치천】: 〔남쪽 1리에 있다. 동진(東津)의 상류(上流)이다.〕【목제천(木梯川)】: 〔남쪽 10리에 있다. 위의 여러 물은 총설편(總說編)을 보라.〕

◑ 세종지리지 - 전라도 전주부 정읍현

◑ 정읍현(井邑縣)

본래 백제의 정촌(井村)이었는데, 신라에서 정읍현으로 고쳐서 태산(太山)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고부(古阜)의 속현(屬縣)으로 삼았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옛 부곡(部曲)이 1이니, 답곡(畓谷)이다.

진산(鎭山)은 내장(內藏)이다.【현의 동쪽에 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순창(淳昌)에 이르기 19리, 서쪽으로 흥덕(興德)에 이르기 17리, 남쪽으로 장성(長城)에 이르기 23리, 북쪽으로 태인(泰仁)에 이르기 9리이다.

호수가 1백 30호요, 인구가 8백 58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9명이요, 진군이 10명이요, 선군이 1백 29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탁(濯) · 이(李) · 진(晉) · 윤(尹) · 정(井)이다.

땅이 기름지며, 간전(墾田)이 2천 6백 58결이다.【논이 5분의 3이 넘는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 · 삼 · 닥나무 · 왕골 · 목화이요, 토공(土貢)은 꿀 · 여우가죽 · 삵괭이가죽 · 잘 · 족제비털[黃毛] · 칠(漆) · 자리 · 대추 · 감 · 죽순 · 차[茶]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현의 남쪽 소곡(所谷)에 있는데, 중품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다.【현의 남쪽 천점(穿岾)에 있는데, 하품이다.】

입암산 석성(笠巖山石城)【둘레가 2천 9백 20보요, 안에 시냇물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역(驛)이 1이니, 천원(川原)이다.

월경(越境)은 흥덕현(興德縣) 동쪽 어용포(於容浦)의 땅이 고부군(古阜郡) 남쪽 모조촌(毛助村)을 넘어서 현의 서쪽으로 들어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정읍현

동쪽으로 순창군(淳昌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20리, 남쪽으로 장성현(長城縣)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30리, 서쪽으로 고부군(古阜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8리, 북쪽으로 같은 군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3리, 서울과의 거리는 5백 91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 정촌현(井村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치어 태산군 영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때 고부군에 붙였다가 후에 감무를 두었고, 본조에서는 현감으로 고쳤다.

【관원】 현감 · 훈도 각 1인.

【군명】 정촌 · 초산(楚山).

【성씨】 본현 탁(濯) · 이 · 진(晉) · 윤 · 정(井). 답곡(沓谷) 정(井).

【산천】 내장산(內藏山) 현의 동쪽 25리에 있다. 오봉산(五峯山) 현의 남쪽 20리에 있다. 반등산(半登山) 현의 서남쪽 30리에 있는데, 고창현(高敞縣) 편에 자세히 나온다. 응산(鷹山) 현의 북쪽 1리에 있다. 칠보산(七寶山)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입암산(笠巖山)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위령(葦嶺) 위는 혹 노(蘆)로도 쓴다. 현의 남쪽 30리에 있는데, 장성현의 경계이다. 또 소위령(小葦嶺)이 있는데, 흥덕현 경계에 있다. 아요현(阿要峴) 현의 동남쪽 7리에 있다. 목제천(木梯川) · 치천 두 내가 모두 내장산에서 나와 현의 서쪽 10리에 이르러 북천에 합친다. 북천(北川) 내장산의 물이 노령(蘆嶺)의 물과 합치고, 흘러서 현의 서쪽에 이르러 고부군 모천(茅川)에 들어간다.

【토산】 꿀[蜂蜜] · 모시[苧] · 대 · 감 · 석류(石榴) · 생강.

【누정】 낙성정(洛城亭) 객관 서쪽에 있다. 설위(薛緯)의 기문에, "정통(正統) 갑자년 여름에 태수 오련(吳璉)이 관우(館宇)가 낮고 좁아서 무더위를 피할 수 없다 하여, 이에 관의 서쪽 나무 아래에 돌을 쌓아 올려 계단을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어서 정자를 지으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성품을 기르며, 더위를 물리치고 서늘함을 맞아 들일 수 있었다. 두건(頭巾)을 젖혀쓰고 홀로 앉아 마음을 열어 외로이 읊조리면, 소송하고 매때리는 시끄러운 일은 아주 없어지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쏘이는 흥이 완연히 있으니, 아전과 백성들이 공을 애모하여 공의 관향(貫鄕)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낙성(洛城)이라 하였으니, 오래도록 공을 잊지 못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하였다. 정자는 폐하였는데, 현감 조지곤이 옛터를 이용하여 누를 짓고 이름을 벽수(碧樹)라 하였다. 손비장(孫比長)의 기가 있다. 납량방 객관 동쪽에 있는데, 현감 조지곤이 세웠다. 『신증』 감담루(鑑淡樓) 객관 동쪽에 있다.

【학교】 향교 현의 북쪽 2리에 있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32 Macl CTP-2400-CMYK

【역원】 천원역(川原驛) 현의 남쪽 25리에 있다. 영지원(迎支院) 현의 서쪽 5리에 있다. 왕신원(王信院) 현의 남쪽 20리에 있다. 광제원(廣濟院)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교량】 장교(長橋) 북천에 있다.

【불우】 영은사(靈隱寺) 내장산에 있다. 성임(成任)의 〈정혜루기(定慧樓記)〉에, "호남(湖南)에 이름난 산이 많은데, 남원(南原)에는 지리산(智異山), 영암(靈巖)에는 월출산(月出山), 장흥(長興)에는 천관산(天冠山), 부안(扶安)에는 능가산(楞伽山)이 있는데, 정읍의 내장산도 그 중의 하나이다. 산은 현과 겨우 20리의 거리에 있다. 방박하게 높이 솟아 기세가 매우 험하고 경계가 더욱 빽빽하니 참으로 필추 비구승(比丘僧))들이 선(禪)에 들어가 도를 배울 좋은 땅이다. 그 가운데 큰 사찰을 영은사라 부르는데, 고려 말년에 지엄(智嚴)스님이 처음 거하였고, 본조에 와서 신암(信庵)스님이 능히 그 자취를 이었고 그 업적을 드날렸다. 그의 문도 해인(海印)스님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이 절에 사셨는데, 절의 퇴폐함을 보고 다시 영건하고자 하다가, 스님은 열반(涅槃 죽는 것)에 들어가고 해인스님도 또 갔다. 모셨던 자들이 유골사리(遺骨舍利 부처나 고승이 죽은 뒤 화장하여 나온 구슬)를 받들어 각각 석종(石鐘 종 모양으로 된 부도(浮屠))에 담아 절의 양 옆에 묻어 두었는데, 이 좋은 인연으로 하여 모든 불도들을 모아 산에서 나무를 베어 오고 골짜기에서 돌을 주워다가 절의 남쪽에 큰 누를 세우니, 소비된 재물이 무릇 얼마며 경영한 날이 무릇 며칠인데, 정해년에 비로소 터를 닦아 무자년에 일을 마쳤다. 누가 무릇 3칸이며, 높이는 두어 길이나 되는데, 처마와 대들보는 날아갈 듯 들렸고, 창과 난간은 성긴듯 시원하여 제작한 규모가 장엄하고 화려하여 견줄 데가 없다. 인하여 정혜라는 누호(樓號)를 걸었다.

일찍이 내전(內典 불경)을 읽었는데, 입교(立敎)의 법 세 가지가 있으니, 비(非)를 막고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을 계(戒)라 하고, 생각을 버리고 속세의 인연을 잊는 것을 정(定)이라 하며, 혹(惑)을 깨고 진(眞)을 아는 것을 혜(慧)라 하였다. 이 누에 오르는 자는 아마 생각함이 있을 것이다. 만일 계를 인연하여 정을 내서 번뇌(煩惱)를 벗어나게 하고, 정을 인연하여 혜를 내서 정신을 소통하고 생각을 통달하게 한다면 곧 보고 듣는 것이 청정하지 않은 것이 없고, 행하고 그치는 데가 낙토(樂土) 아님이 없을 것이다. 저 용처럼 움켜잡고 호랑이처럼 후려치는 듯한 봉우리가 사면을 싸고 있는 것은 사위성(舍衛城)이요,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녹음이 맑고 좋은 것은 염부수(閻浮樹)이며, 두 샘이 맑고 깨끗하여 뜰을 따라 흐르는 것은 하나는 조계원(曹溪源)이요, 하나는 팔공덕수(八功德水)이다. 그 골에 들어가는 자는 마치 수마리(須摩提)를 만난 듯하고, 그 대에 오르는 자는 마치 금강대(金剛臺)에 오른 것 같으니, 이렇게 하여 중생을 일깨운다면 보리(菩提)를 같이 알게 하는 것이 어찌 멀겠는가. 그렇다면 고을은 이 산을 얻어 더욱 유명하고, 산은 이 절을 얻어 더욱 아름다우며, 절은 이 누를 얻어 더욱 나타나며, 누는 이 호를 얻어 더욱 빛나리니, 이것은 소인묵객(騷人墨客 시인과 문사)이 놀고 싶어하는 바이며, 기묘한 자취 좋은 경계는 모든 진세와 영원히 떠난 것이다. 내가 일찍이 호남 관찰사가 되어 공무를 보고 남은 시간에 무릇 산수의 좋은 경치는 다 끝까지 찾아 다녔지만 일찍이 이 절을 보지 못함을 한하였더니, 다행히 절의 중이 흰 판자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글을 구하여 비졸(鄙拙)함을 헤아리지 않고, 본말을 대략 적는다." 하였다. 반야사(般若寺) · 각료암(覺了庵) 모두 오봉산에 있다. 영원사(靈源寺) · 유마사(維摩寺) · 망해암(望海庵) 모두 칠보산(七寶山)에 있다. 백련사(白蓮寺) 혹 내장사라고도 하는데, 내장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현의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응산에 있다. 여단 현의 북쪽에 있다.

【고적】 망부석(望夫石)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현의 사람이 장사하러 떠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그 아내가 산 돌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혹 남편이 밤에 다니다가 해침을 당하지 않았는가 걱정하여, 진흙탕 물의 더러움을 의탁하여 노래를 지으니, 그 곡을 정읍이라 한다. 세상에 전하기를, "산에 오르면 망부석에 발자취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 입암산고성(笠巖山古城) 석축이며 둘레가 1만 2천 28척이고, 사면은 높고 가운데는 널직하며, 안에 한 시내가 있다. 답곡 부곡(畓谷部曲) 현의 동쪽 20리에 있다. 수곡부곡(水谷部曲).

【효자】 본조 전극공(全克恭) 아버지가 산골에 가서



보리를 추수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극공의 나이 겨우 10세였다. 형 치공(致恭)의 아내 중비(仲飛)와 더불어 크게 소리질러 쫓으니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 일이 나라에 보고되어 정문을 세웠다. 전사용(全思用) 나이 12세에 어머니가 죽으니, 흙과 돌을 져다가 묘를 만들었다. 일이 나라에 보고되어 정문을 세웠다.

【열녀】 고려 안씨(安氏) 경덕의(景德儀)의 아내이다. 고려말에 본현에 왜적이 침입하였는데, 안씨가 잡히니 수절하고 죽었다. 이씨(李氏) 장군 이득인(李得仁)의 아내이며, 고부(古阜) 이석(李碩)의 딸이다. 득인이 싸움터로 나가 밖에 있는데, 왜구가 그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겁탈하고자 하니, 적을 욕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마침내 해침을 당하였다.

【제영】 창송록죽만전산(蒼松綠竹滿前山) 홍경손(洪敬孫)의 시에, "푸른 소나무 푸른 대는 산 앞에 가득하고 솔솔부는 서늘 바람 온 몸에 스며 차다." 하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연혁】 고종 32년에 군으로 고쳤다.

◑ 대동지지(大東地志)

【방면】 현내(縣內) 끝이 5리. 동면(東面) 처음이 7리, 끝이 30리. 남일(南一) 처음이 5리, 끝이 15리. 남이(南二) 처음이 13리, 끝이 27리. 서일(西一) 처음이 10리, 끝이 27리. 서이(西二) 처음이 8리, 끝이 15리. 북일(北一) 처음이 7리, 끝이 15리. 북이(北二) 처음이 10리, 끝이 30리. 답곡부곡(畓谷部曲) 동쪽으로 20리. 수곡부곡(水谷部曲).

노령보(蘆嶺堡) 고갯길이 사나워 도적이 떼를 지어 있으면서 대낮에도 살육과 이탈을 하여 길이 통하지 않았는데, 중종 15년에 보를 설치하여 방수(防守)하다가 뒤에 폐지하였다.

【창고】 창(倉) 5 읍내에 있다. 산창(山倉) 장성(長城)의 입암산(笠巖山)에 있다.

【토산】 붕어 · 게[蟹].

【사원】 고암서원(考巖書院) 숙종 을해년에 세우고, 그해에 사액하였다. 묘정비(廟庭碑)가 있다. 송시열 문묘 편을 보라. 권상하(權尙夏) 충주 편을 보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중종 34년 기해(1539, 가정 18) 6월13일 (기유)

사헌부가 영은사와 내장사가 도적승의 소굴이므로 철거할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라도 정읍현 내장산(內藏山)의 영은사(靈隱寺)와 내장사(內藏寺)가 적승(賊僧)들의 수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불사르고 묘를 파헤치는 등 방자한 짓을 거리낌없이 합니다. 또한 도내(道內)의 백성이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재화(財貨)를 가지고 이들에게 요청하여 목적을 이룹니다. 이래서 도내 사람들이면 통분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찰은 도적(圖籍)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 해가 매우 크니 먼저 철거하여 적승들의 소굴을 깨뜨리소서.
그리고 임피현(臨陂縣) 수심사(攸心寺)의 중이 고의로 병든 중을 살해했는가 하면 민가(民家)에 다니면서 난잡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 또한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도적에 기재되어 있다 하여 철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니, 아울러 철거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마땅히 삼공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 사관(史官)을 보내어 삼공에게 수의(收議)하게 하라." 하였다. 우의정 김극성(金克成)이 의논드리기를, "영은사와 내장사가 과연 적승들의 소굴이고 불의스런 짓을 자행하여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할 것이요, 도적에의 기재 여부는 상관할 것 없습니다. 수심사의 중들은, 온 사찰의 중이 떼지어 품관(品官)에게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있으니 철거당해도 탓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헌부가 아뢴 말이 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 의논을 따랐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34 Mac1 CTP-2400-CMYK

선조 26년 계사(1593, 만력 21) 7월10일 (임술)

◑ 대교 조유한에게 실록과 함께 다른 서책도 실어 오게 하다

춘추관(春秋館)이 아뢰기를,

"실록을 실어 오라는 성교(聖敎)는 진실로 합당합니다. 대교(待敎) 조유한(趙維翰)이 서책(書冊)의 일로 남원(南原)으로 떠납니다. 남원에서 내장산(內藏山)이 멀지 않으니 조유한에게 예조 계사(啓辭)의 사연을 등서(謄書)해 주어 봉심(奉審)하여 시행하게 하고, 쇄마(刷馬)와 인부를 내어 잘 정돈하여 실어 올 뜻으로 감사에게 하유(下諭)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고려사(高麗史)》·《동국통감(東國通鑑)》·《여지승람(輿地勝覽)》·《동문선(東文選)》도 반드시 함께 싣고 오게 하라."하였다.

선조 26년 계사(1593, 만력 21) 7월17일 (기사)

◑ 사관과 선전관을 보내 내장산의 영정과 사책을 옮겨 오게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적의 기세가 크게 성하고 있으니 내장산(內藏山)에 봉안(奉安)한 영정(影幀)과 사책(史冊)을 이안(移安)하는 일이 일각이 급합니다. 전에 사관(史官)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대교(待敎) 조유한(趙維韓)이 성모(省母)하러 가는 길에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먼 천리길에 공사(公私)를 병행하는 것은 아마도 전심(專心)할 수 없을 듯하니, 바라건대 사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역마로 달려 내려가서 영정과 사책을 옮겨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의 말이 옳다. 사리로써 말하면 사관이 가야 마땅하지만 사관 혼자 간다면 너무 고단(孤單)한 것 같고 또 검거(檢擧)하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니, 부지런하고 성실한 선전관(宣傳官)과 함께 내려 보내라. 그리고 도로의 난이(難易)를 내가 실지로 알지 못하나, 육로(陸路)가 쉽지 않고 혹 선로(船路)가 가깝거든 배[船]에 싣고 충청·경기·해서(海西) 등지로 오도록 하라. 만약 선로로 오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꼭 나의 말에 구애받지 말고 정원에서 편의에 따라 처치하여 명을 받고 사관이 도착한 뒤에 임시하여 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였다.

선조 26년 계사(1593,만력 21) 7월21일 (계유)

◑ 정원이 진주성 전사자 포상, 유성룡 소환, 어용 보호 등의 일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양남(兩南)의 보장(保障)으로는 오로지 진주성(晉州城) 한 곳만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맹장(猛將) 경졸(勁卒)이 모두 성중으로 들어갔는데, 열흘이 넘도록 포위당하였으나 외원(外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웠지만 힘이 부치어 마침내 나란히 죽어가서 흉적(兇賊)들이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변란이 생긴 이후로 성을 지키다가 죽은 이가 이처럼 많은 적이 없었으므로 말을 하자니 기가 막혀 같은 날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상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슬픈 교서(敎書)를 특별히 내리시어 충의(忠義)의 원혼들을 위로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조(擧措)가 없으신 것은 지극히 가엾고 측은한 마음을 우선 진정하여 말로 드러내지 않고 책응(策應)에 전념(專念)하시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세가 위급하여 착수(着手)할 말한 곳이 없으니 오직 인심을 감동시키고 사기(士氣)를 격려하는 것만이 만분의 일이나마 공효(功效)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특별히 사신(詞臣)에게 명하시어 한 장의 애통해 하시는 교서를 짓게 하여 죽은 이를 조상(弔喪)하고 가족(家族)을 위문하는 이외에 잘 헤아려 포증(褒贈)하여 원혼들을 감읍(感泣)시키는 한편, 앞으로 의용(義勇)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권면(勸勉)하소서.

그 중에 김천일(金千鎰)·최경회(崔慶會)는 당초에 조정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분연히 의병(義兵)을 일으켰고, 고종후(高從厚)는 아비의 원수를 갚고 왕의 원수를 무찌르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몸을 희생하였으니 모두 더욱 특별히 우대하는 포장(褒



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압(制壓)하는 것이 오늘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인데, 행조(行朝)가 멀리 떨어져 있어 사기(事機)가 늦어지고 있으며, 수성 대장(守城大將) 유홍(俞泓)은 나이가 늙어 믿고 맡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성룡(柳成龍)이 지난번 행재소(行在所)로 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병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 사려(思慮)가 보통 재상(宰相)에 비할 바가 아니니 와서 머물러 있으면서 명장(明將)과 협력(協力)하여 군사를 불러 모으고 계획하게 한다면 일분(一分)의 도움은 있을 것인데, 어찌 일이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해보지도 않고 그만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내장산(內藏山)에 있는 영정(影幀)을 옮기는 일은 너무 늦은 듯하여 성사(成事)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집경전(集慶殿)에 봉안(奉安)했던 어용(御容)이 현재 예안(禮安) 땅 청량산에 있는데 이 근처도 믿을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는 좌도 관찰사(左道觀察使) 한효순(韓孝純)의 서장(書狀)이 지금 막 도착하였으니, 한효순에게 하유(下諭)하시어 그곳의 관원 두 사람을 속히 어용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들은 모두 용루(庸陋)한 몸으로 오랫동안 근밀(近密)한 곳에 있으면서 시사(時事)의 어려움이 이토록 극한에 이른 것을 목도(目覩)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뢰지 않을 수 없어 황공하게도 만사(萬死)의 각오로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계사(啓辭)의 뜻이 매우 마땅하니,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하도록 하라. 앞으로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아뢰라."하였다.

정조10년 병오(1786,건륭 51) 2월26일(경자)

◑ 상언(上言) 152건을 각 해사(該司)에 판하(判下)하였다.

종묘서 수복(宗廟署守僕) 정덕룡(鄭德龍) 등이 관서(關西)의 소미(小米)를 획급(劃級)해 달라는 일이다.

임실의 유학 이교한(李喬漢)이 내장산(內莊山)의 유지(遺趾)에 사적지를 표시하게 해 달라는 일이다.

"임실(任實)의 유학 이교한(李喬漢)의 상언에, '임진왜란 때에 태조 대왕의 어용(御容)을 내장산(內莊山)의 용굴(龍窟)로 옮겨 봉안하였는데, 지금까지 유적지가 완연하여 나무꾼과 목동이 서로 기억하고 있으니, 속히 윤음을 내려 이적(異蹟)을 표창하소서.' 하였습니다. 어용을 잠시 봉안했던 곳은 거가(車駕)가 임행(臨幸)한 장소와는 차이가 있으니, 비석을 세울 수도 없고 또 각(閣)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여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으니,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정조13년 기유(1789,건륭 54) 4월23일(기유)

◑ 전라 감사가 정읍(井邑) 용굴암(龍窟菴)의 사실(事實)에 대해 사계(査啓)하였다.

전라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에,

"흥덕(興德)의 유학(幼學) 이교한(李喬漢)의 상언 내용인 용굴암 사적을 지방관인 정읍 현감(井邑縣監) 정동보(鄭東輔)에게 분부하여 달려 나가 살펴보게 하였더니, '영은사(靈隱寺)는 본현의 동남쪽 30리에 있고 절에서 서쪽으로 7리쯤에 겨우 20여 척(尺) 되는 용굴암의 고지(故址)가 있는데 산꼭대기에 있고 오르는 길이 구불구불한 외줄기라서 초부(樵夫)도 다니지 않은 지가 10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옆에 3, 4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석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용굴(龍窟)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일찍이 갑진년(1784, 정조8)에 정읍 유생 신성수(辛性修) 등의 상언으로 인하여 널리 물어서 장문하라는 명이 내렸다가 도신(道臣) 이재학(李在學)이 논계(論啓)하여 도로 철회되었는데 이교한의 상언은 신성수를 답습한 것입니다.

삼가 경기전(慶基殿)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임진년(1592, 선조25) 왜란 때 전관(殿官) 오가(吳哥) 성(姓)을 가진 사람이 어진(御眞)을 받들고 옥구(沃溝)로 달아나서 배로 서해(西海)를 거쳐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렀고 영변(寧邊)에 봉안하였다가 갑진년(1604, 선조37)에 다시 전주(全州)에 봉안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며, 《문헌비고(文獻備考)》 〈예고(禮考)〉에는 '선조(宣祖) 25년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36 Mac1 CTP-2400-CMYK

왜란 때 경기전 참봉 오희길(吳希吉)이 영정(影幀)을 받들어서 남몰래 간직하였다가 정읍 내장산(內藏山) 은적암(隱寂庵)에 봉안하였는데 곧이어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배로 아산(牙山)에 옮기고 또 강화(江華)로 옮겼으며 30년에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 별전(別殿)에 옮겨 봉안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며, 《국조보감(國朝寶鑑)》에는 '임진년에 전주가 위급하자 경기전 참봉 홍여율(洪汝栗)이 어진을 받들고 뱃길로 의주에 이르렀고 묘향산의 절에 옮겨 봉안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며, 《문헌비고》 〈안설(按說)〉에는 또 '임진년에 옮겨 봉안한 전말(顚末)은 다만 영희전지(永禧殿志)에 근거하여 기록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전지(殿志)도 공사(公私)의 문적을 증거로 삼았으나 《국조보감》이 또 이와 어긋나고 경기전 등록도 같지 않은데, 용굴암 3자(字)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태인읍지(泰仁邑誌)는 본영에 있는 것을 보면 애초 기록된 것이 없으며 본현에 신본(新本)과 구본(舊本)이 있는데 구본에는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 등이 태조(太祖)의 어용(御容)을 수직하느라 산골짜기로 들락날락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가상히 여겨 각각 별제(別提)에 제수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역시 읍호와 산명을 말하지 않았으며 신본에는 손홍록의 행장에 그 일의 전말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년에 지은 것입니다. 오희길, 안의, 손홍록 등의 자손이 소장한 문적은 여러 군데 해지고 온전하지 못한 쪽지 몇 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생각건대, 더없이 중대한 전례(典禮)를 선뜻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 일은 중대한 데 관계되는데 믿을 만한 문헌이 없고 전후 도신의 사계에서도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하는 뜻을 볼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윤허하였다.

일성록(日省錄)

◑ 정조13년 기유(1789, 건륭 54) 4월23일(기유)

전라 감사가 정읍(井邑) 용굴암(龍窟菴)의 사실(事實)에 대해 사계(査啓)하였다.

전라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에,

"흥덕(興德)의 유학(幼學) 이교한(李喬漢)의 상언 내용인 용굴암 사적을 지방관인 정읍 현감(井邑縣監) 정동보(鄭東輔)에게 분부하여 달려 나가 살펴보게 하였더니, '영은사(靈隱寺)는 본현의 동남쪽 30리에 있고 절에서 서쪽으로 7리쯤에 겨우 20여 척(尺) 되는 용굴암의 고지(故址)가 있는데 산꼭대기에 있고 오르는 길이 구불구불한 외줄기라서 초부(樵夫)도 다니지 않은 지가 10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옆에 3, 4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석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용굴(龍窟)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일찍이 갑진년(1784, 정조8)에 정읍 유생 신성수(辛性修) 등의 상언으로 인하여 널리 물어서 장문하라는 명이 내렸다가 도신(道臣) 이재학(李在學)이 논계(論啓)하여 도로 철회되었는데 이교한의 상언은 신성수를 답습한 것입니다.

삼가 경기전(慶基殿)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임진년(1592, 선조25) 왜란 때 전관(殿官) 오가(吳哥) 성(姓)을 가진 사람이 어진(御眞)을 받들고 옥구(沃溝)로 달아나서 배로 서해(西海)를 거쳐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렀고 영변(寧邊)에 봉안하였다가 갑진년(1604, 선조37)에 다시 전주(全州)에 봉안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며, 《문헌비고(文獻備考)》 〈예고(禮考)〉에는 '선조(宣祖) 25년 왜란 때 경기전 참봉 오희길(吳希吉)이 영정(影幀)을 받들어서 남몰래 간직하였다가 정읍 내장산(內藏山) 은적암(隱寂庵)에 봉안하였는데 곧이어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배로 아산(牙山)에 옮기고 또 강화(江華)로 옮겼으며 30년에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 별전(別殿)에 옮겨 봉안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며, 《국조보감(國朝寶鑑)》에는 '임진년에 전주가 위급하자 경기전 참봉 홍여율(洪汝栗)이 어진을 받들고 뱃길로 의주에 이르렀고 묘향산의 절에 옮겨 봉안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며, 《문헌비고》 〈안설(按說)〉에는 또 '임진년에 옮겨 봉안한 전말(顚末)은 다만 영희전지(永禧殿志)에 근거하여 기록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전지(殿志)도 공사(公私)의 문적을 증거로 삼았으나 《국조보감》이 또 이와 어긋나고 경기전 등록도 같지 않은데, 용굴암 3자(字)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태인읍지(泰仁邑誌)는 본영에 있는 것을 보면 애초 기록된 것이 없으며 본현에 신본(新本)과



구본(舊本)이 있는데 구본에는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 등이 태조(太祖)의 어용(御容)을 수직하느라 산골짜기로 들락날락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가상히 여겨 각각 별제(別提)에 제수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역시 읍호와 산명을 말하지 않았으며 신본에는 손홍록의 행장에 그 일의 전말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년에 지은 것입니다. 오희길, 안의, 손홍록 등의 자손이 소장한 문적은 여러 군데 해지고 온전하지 못한 쪽지 몇 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생각건대, 더없이 중대한 전례(典禮)를 선뜻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 일은 중대한 데 관계되는데 믿을 만한 문헌이 없고 전후 도신의 사계에서도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하는 뜻을 볼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윤허하였다.

면암집(勉菴集)

◑ 고종 43년(1906년) 병오 광무(光武) 10년, 면암선생 74세

2월, 창의(倡義)하기 위해 호남(湖南)으로 가다.

윤4월 13일, 태인(泰仁)에서 무성서원(武城書院)을 배알한 뒤 상소하고 의병을 일으키다. 14일, 행군(行軍)하여 정읍(井邑)에 도착하여 내장사(內藏寺)에서 유숙하다. 15일, 순창(淳昌)에 도착하여 구암사(龜巖寺)에 주둔하다. 16일, 곡성(谷城)에 가서 호남의 각 고을에 고하고, 17일, 순창으로 돌아오다. 20일, 전주(全州)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과 순창 군수 이건용(李建鎔)이 왜병을 이끌고 와서 공격하니, 의병이 무너지다. 23일, 체포된 후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군 헌병 사령부에 구금되다. 7월, 임병찬(林炳瓚)과 함께 대마도(對馬島)로 압송되어 위수영 경비대에 구금되다. 유소(遺疏)를 임병찬에게 불러주다. 11월 17일, 대마도에서 순국(殉國)하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38 Mac1 CTP-2400-CMYK

백암산의 문헌자료

◑ 백암산 정토사 사적(白巖山 淨土寺 事跡)

오호라 우리 선왕사 각엄존자께서 문도 등 산중의 석덕(碩德)을 불러모아 뒷일을 부촉하면서 이르기를 "저 내 본상인 백암산 정토사는 삼남의 소금강이라 혹시 하늘이 가물고 땅이 말라 만민이 모두 근심할 때 국가가 크게 놀라서 준수한 신하를 보내 친히 이 산에서 기도를 하게 하면 곧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하여 만민이 은혜를 입게 하였다. 이는 이른바 영이한 땅인지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할 방이다. 또 청룡 곡두의 주맥이 아래에서 분파하니 삼남이 스스로 그 형상을 주인 삼으면 만민을 보호할 것이고 맥을 끊어 큰길을 내면 자연히 만민이 피해를 입고 도인이 나지 않으리니 이런 일을 어찌 한탄하지 않겠는가.

아아, 또 한탄할 일은 이 절의 창건이 오래 되어 절의 모든 집들이 다 타락하고 불상과 법보 및 천인상이 모두 이지러져 거의 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내 말을 따르겠는가?" 석덕이 응답하기를 "어찌 기꺼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니 문인 등에 이르기까지 흡족한 마음으로 따랐다. 그래서 부자는 곡식과 비단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노역을 해서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한 결같이 모두 새롭게 해 나갔다. 몇 년 안 되는 사이 보찰(寶刹)을 열고 불전을 세우니 금벽(金壁)의 빛남과 상설(象設) 종고(鐘鼓)의엄숙 화려함, 승방 및 각 집의 고요하고 그윽함과 삼문주고(三門廚庫)의 크고 빛남, 담장 및 섬돌의 곱고 정밀함과 밥상, 그릇, 이불 같은 일용품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는 모두 우리 스승의 공덕이었다. 피폐한 것을 일으키는 일이 이미 끝나자 또 이르기를 "전당(殿堂)이 이미 이루어지고 불보(佛寶)도 이미 봉안하였으나 오직 법보(法寶)가 빠져 있다. 아홉 길 쌓은 공이 도리어 한 삼태기로 무너질까 보냐"하고 금 상국(相國) 홍수(洪綏)와 더불어 동심공원(同心共願)으로 각각 정재(淨財)를 내어 문인 심백(心白)과 지부(智孚) 등에게 바다를 건너 송나라로 들어가 대장경을 갖춰 오도록 하였다. 1년이 못 되어 바다 건너서 대장경을 구해오고 옻칠 장과 향낭(香囊), 사폭(紗幅) 등 모든 장엄구가 갖추어졌다. 신사년(1341)봄에 제산의 석덕을 불러 모아 전장법회(轉藏法會)를 닦음으로써 낙성하였다.

문인 목(牧) 등이 각기 한가지 씩 일을 맡아 경찬회(慶讚會)를 베풀되 오직 근엄하게 하였다. 경찬회 첫날 가리화나(伽梨和羅) 등의 물건을 베풀며, 약 10일간 수법(修法)하여 포시공덕주(布施功德住)를 천도(遷度)함이 풍성하였으며, 장교(粧校)를 건 것도 특수하여 사녀(士女)와 노유(老幼)가 수경(修敬)함이 지금과 같은 것이 예전에는 없었다. 나 법시(法豕)는 대중의 유나(維那)직책을 맡아 성대한 일을 보고 감히 이 방(榜)을 들어 축수(祝壽)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회에 나아간 선유(禪流)를 아래에 열거한다. (지정(至正) 원년 신사(1341) 사월 일)

◑ 백암산 정토사 교루기(白巖山 淨土寺 橋樓記)

홍무(洪武) 정사(1377) 2월 23일 정토사로 청수 징공(澄公)을 찾아갔더니 무설(無說) 유지와 청수가 남교(南橋) 밖에까지 나와 있었다. 다같이 계루(溪樓)에 올라 좌정하자 무설이 나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예전에 북으로 연도(燕都: 연경 지금의 북경)에서 놀고 남으로 강소(江浙: 강소성과 절강성)를 떠돌며 사천(泗川)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명산거찰이라는 곳은 거의 다 실컷 보았다. 그런데 그 불사를 경영하여 설 이어가며 단절 없이 산문(山門)을 이룬 것은 반드시 명승을 의지하여 살게 한 후에야 그렇게 된다.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귀국하여 여러 산을 찾아보았으나 사람과 그 대경이 서로 알맞은 것이 예전에 보던 것과 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오직 이 산만은 장성 북쪽 30리에 있는데 이름을 백암



(白巖)이라 하고, 혹은 암석이 모두 흰색이라서 그렇게 부른다고도 한다. 석벽이 깎아지른 듯 험하고 산봉우리가 중첩하여 그 맑고 기이하며 큰 모습이 실로 한 곳의 명승지가 될 만하다. 신라 때 어떤 이승이 처음으로 절을 짓고 살면서 이름을 백암사라 했다고 한다.

송나라(여기서 송나라는 남북조시대 남조의 송나라를 말한다.) 경평(景平) 연간(423~424)에 이르러 정토선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문계인 중연(中延)선사가 이를 이어 전당과 문무 · 장실 · 빈요 등 80여 칸을 다시 지었고, 중연의 문도들이 차례로 전하여 지켜오다가 일린(一麟)이 절을 맡게 되니 처음의 법도를 잘 이은 것이다.

우리 왕사이신 각엄존자에 이르러서는 나이 겨우 8세에 일린공을 좇아 살다가 뒤에 송광사 원오국사에게 들어가 현지를 참구하여 법기를 대성하고 월남사 주석을 비롯하여 20여 년간 송광사 주석을 거치는 동안 그 도가 대흥하였다. 충정왕 2년(1350) 경인 10월 보름에는 왕사로 추봉되어 법으로 왕화를 도운 것이 두 왕조에 걸쳤으니, 이에 이 절은 가히 불교의 흥장하고 왕가의 복을 비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 존자는 일린공의 뜻을 잊지 않고 옛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하였는데, 그 비용은 모두 당신의 바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의 문인들이 도운 것도 많았다.

대장경 일부를 갖추고 아울러 상주할 수 있는 재곡과 집용십기도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존자는 삼한의 명가 출신인데 청수는 그의 친조카이다. 존자가 일국의 종사가 됨에 배우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으나 청수가 사의로 정성껏 모시매 청수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이 절을 부탁하여 뒷일을 맡게 하였다. 청수는 이를 잘 이어받아 절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백 가지 폐단을 모두 드러내어 바로 잡으니 불보살(佛菩薩) · 천인의 형상이나 경패존경(經唄鐘磬)의 선양과 곳집의 수입과 같은 것이 옛날에 비해 배나 증가하자 모두들 존자가 부촉할 만한 사람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 뒤 경술년(1370) 여름에 비가 심하게 와서 계곡 물이 넘치니, 누각이 미친 듯한 물결에 휩쓸려 붕괴됨에 청수는 다시 재목과 기와를 모아 날을 새워 이를 이루어 내었다. 갈고 깎은 것이 법도에 맞고 채색도 알맞아 검소하지도 사치하지도 않다. 날마다 누각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 산은 더욱 기이하고 물은 더욱 맑으니, 이 누각을 지은 것이 우연이 아니다. 나와 자네가 다행히 누각 위에서 만나 친히 둘러보았는데 그냥 말없이 갈 수 있는가 하면서 기를 청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누관에 기가 있는지 오래 되었으나 그 산천의 빼어남과 풍경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여 둘러보는데 일조할 뿐이다. 그러나 세시는 비록 변하지 않고 풍경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정말 그 곳에 올라 보면 눈이 있는 자는 다 볼 수 있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명인운사와 고풍의열(高風義烈)은 마땅히 이런 글에 의탁하여 영원히 남을 것을 도모하니 하물며 관적에 매인 사원이겠는가. 주지 임면은 때가 없어 그 주지는 오래가지 못해 무덤이 오래되고 평평해져 없어진 것도 있다. 혹 있다고 해도 그 무리가 스스로 사람을 얻어서 주고받아 오래 전해도 폐단이 없음이 정토사와 같은 것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다. 나 정도전은 서생이라 불학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무설이 말한 이 절의 전말을 아주 소상하게 적음으로 해서 뒤에 이 누각에 오르는 사람들이 다만 뛰어난 산수와 풍경만 취하지 않고 앞사람의 공을 계승한 까닭을 알고 이를 보게 하노라.

◑ 장성현 백암사 쌍계루기(長城縣白巖寺雙溪樓記)

삼중대광(三重大匡) 복리군 운암(雲菴) 징공(澄公) 청수 절간(絕磵) 윤공(倫公)에 부탁하여 쌍계루(雙溪樓)의 이름을 짓고, 또 삼봉 정씨(三峯鄭氏)가 지은 누기(樓記)를 가지고 와 보여주었는데, 백암사의 내력은 자세하나 쌍계가 쌍계로 된 내력과 쌍계루가 쌍계루로 된 내력은 모두 생략되어 써 있지 아니하였다. 아마 그 이름을 명명(命名)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듯 싶다.

이렇게 되어 한번 구경하기로 작정하여 절간공(絕磵公)을 따라 절을 찾았다. 절은 두 물 사이에 있었고, 물은 절을 일으킨 윗목에서 합쳤는데 동쪽은 근원이 가까웠고 서쪽은 근원이 멀기 때문에 수세가 크고 작고하였다. 그러나 합하여 못을 이룬 뒤에 산을 빠져 흘러 내려갔다. 절 사면을 둘러 있는 산은 모두 높고 가팔라 한여름 6월 더위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40 Mac1 CTP-2400-CMYK

에도 바람을 쏘이고 땀을 들일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두 물이 합치는 곳에다 쌍계루를 세웠다. 왼쪽 물위에 걸터앉아 바른쪽 물을 굽어보면 다락의 그림자와 물빛이 아래위에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 하였다.

경술년 여름에 큰물이 나서 돌 축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누(樓)도 무너져버렸다. 청수옹은 이 누를 중수하고 쌍계루 기를 지어달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쌍계루는 우리 스승님이 세운 것인데 이처럼 무너져도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승님은 스승을 이어받기 오대(五代)나 되었으므로 절에 뜻을 둔 것이 지극 하였습니다. 그런 누가 지금 없어졌으니 그 책임을 어디로 돌려야 할 일입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날을 다투어 공사를 끝내고 옛 모습대로 다시 세우자 썩었던 재목이 견고하여지고 알 수 없게 되었던 채색이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서야 족히 스스로 위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스승님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점이 있지 아니한 가 두려워함이 있음을 내 제자들이 반드시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 제자로서 나를 따라 이 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나의 이 마음을 못 알아본다면, 절일은 지탱되지 못할 것이니 누(樓) 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불상에 먼지가 끼고 지붕에 비바람이 들이치게 되어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누 하나쯤 재건한 것으로써, 글로 쓸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꼭 글 잘하는 분을 구하여 써주기를 청하는 것은 오래도록 전하기를 꾀하기 때문이요, 나아가서는 나의 후배를 경계하기 위한 까닭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써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내 일찍이 행촌(杏村) 시중공(侍中公)을 스승으로 모셨고, 그 자질(子姪)과 같이 공부하였는데 선생은 그 계씨(季氏)다. 여러 번 써드린다는 약속을 어겨 왔으므로 이제 절간공(絕磵公)의 말을 인용하여 이름을 '쌍계루'라 하고 기를 지어 보낸다. "아, 내가 늙었구나. 명월이 누에 가득 찼으련만 하룻밤 그곳에서 구경할 길 없으니, 젊어서 길손 되지 못한 것을 한할 뿐이로다." 하고는, 그 사제(師弟)의 이어받은 계통은 자세하게 절 문서에 기재되어 있기에 여기에는 쓰지 않았다.

◑ 쌍계루설(雙溪樓說)

환암(幻庵)스님은 서법(書法)이 절묘하여 진체(眞體)를 터득하였다. 한 때 그의 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지만 반드시 시문을 보고 마음에 흡족해야만 붓을 들었다. 운암 징공 청수가 장성부에 있는 백암사의 누각을 중수하여 삼봉 정선생에게 누의 이름을 지어 줄 것을 청했다. 삼봉이 극복(克復)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記)는 운암의 무리인 절간윤사(絕澗倫師)로 하여금 환암에게 가서 글을 받으라고 하였다. 환암이 "이는 내가 쓸만한 글이 못됩니다. 목노가 세상에 계시는데 감히 누가 장문의 대작을 짓는단 말입니까"하였다. 그리고는 사미승을 절간에게 보내 목은에게 가서 누각의 이름과 기를 청하도록 하였다. 목노가 절간에게 물으니 절간은 '절은 두 물줄기 사이에 있고, 물은 절의 남쪽에서 합쳐집니다. 물의 근원은 동쪽이 가깝고 서쪽은 멀기 때문에 그 수세가 크고 작고합니다. 그러나 합수가 되어 못이 된 뒤에 산을 빠져 나갑니다.' 라고 하였다. 목노가 말하길 그러면 '쌍계루라하면 되겠군.' 하고는 붓을 들어 기를 썼다. 그 글은 한 점 더할 것도 없는데, 그 끝에 이르기를 '내가 늙었구나, 밝은 달빛이 누각에 가득해도 하룻밤 그곳에서 묵어갈 수 없으니, 젊어서 길손이 못된 것이 한스럽구나! 라고 하였다. 환암이 글을 받아쓰면서 탄복하여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의 시에

밝은 달은 쌍계루에 젖어 들고

봄바람은 팔여루에 살랑대네

소년시절에 길손 되어 놀던 곳이니

오늘 그대로 보내고 다시 노니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목로께서 이 시를 인용했으나 다듬은 흔적이 없으니 참으로 절묘한 솜씨입니다.'

운운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정토사(淨土寺) 백암산에 있는데, 절에 쌍계루(雙溪樓)가 있다.

『신증』 영천굴(靈泉窟) - 정토사 북쪽 바위 중턱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샘이 있다. 굴 북쪽 작은 틈에서 솟아나오는데, 비가 오나 가무나 한결 같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세종 29년 정묘(1447, 정통 12) 7월 9일(기해)

개성 북신사, 경기 분지천원, 신륵사 등의 관리를 지시하다

개성부 유수(留守)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외가(外家) 여흥군(驪興君) 민변의 분묘(墳墓)에 딸린 원찰(願刹)인 북신사(北神寺)가 무너져서 중이 들어 살지 못하여 산불[山火]을 금할 수가 없다는데, 이제 호조 참판(戶曹參判) 민신(閔伸)의 말을 들어 가까운 곳의 망폐(亡廢)된 절의 목재와 기와를 거두어 실어다가 주게 하라."

하고, 또 경기도 감사(監司)에게 유시하기를,

"임강현(臨江縣)에 있는 문순공(文順公) 민적의 분묘 동구(洞口)에다가 분지천원(芬地川院)을 옮겨 짓고, 중들을 살게 하여 산불 금지에 대비하게 하라. 그런데 원우(院宇)는 반드시 길가에 지어서 행려(行旅)에 편리하게 하되, 만일 설치할 땅이 마땅하지 않거든 사연을 갖추어 다시 아뢰게 하라."

하고, 또 여흥(驪興) 신륵사(神勒寺)에는 문도공(文度公)의 영정(影幀)을 모셨는데, 의지 없는 잡승(雜僧)들이 잘 수호하지 못하여 형편 없이 되었다기에, 이제 전라도 장성(長城) 백암사(白巖寺)의 중 학몽(學蒙)을 들어가 살게 하였으니, 잘 안접(安接)시켜 주게 하라."하였다.

◑ 쌍계루 원운(정몽주)

求詩今見白巖僧　把筆沈吟愧不能
淸叟起樓名始重　牧翁作記價還增
烟光縹緲暮山紫　日影徘徊秋水澄
久向人間煩熱惱　拂衣何日共君登

지금 시를 써 달라 청하는 백암승(白岩僧)을 만나니,
붓을 잡고 침음(沈吟)하면서 재주 없음 부끄럽구나.
청수가 누각 세워 이름이 이제 무겁고,
목옹(牧翁 이색)이 기문을 지어 값 더욱 더하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 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옷을 떨치고 자네와 함께 올라 볼까

◑ 쌍계루 차운(이정구)

每向江南憶老僧　石門相訪幾時能
桂花寂寂空山暮　芳草年年舊恨增
虛檻納涼波影動　疎林透月露華澄
明朝且把長房杖　萬崒烟霞取次登

언제나 江南향해 노스님을 생각하여,
석문을 찾아보기 몇 번을 하였던가
공산이 저물으니 규화가 쓸쓸하고,
방초근 해년마다 옛시름 더해준다.
난간이 시원하여 물결이 일렁이고
수풀에 달밝으니 이슬이 영롱하다.
밝아온 아침에도 죽장에 의지하여
연하(煙霞)낀 만수봉(萬岫峰)을 차례로 올라보세

◑ 쌍계루 차운(김원기)

堪嘆未作白巖僧　要次高詩又不能
山月溪風依舊在　騷人墨客逐年增
苦吟成處雲初散　醉履停時水复澄
遙想楓紅松碧裡　佩木尊 携友幾爭登

백암승 되지 못함 한탄해 마지 않고
아무리 읊어봐도 좋은 시 안나오네
산월과 계풍일랑 옛모습 그대론데
騷人과 墨客들은 해마다 더해가다
애써서 시 읊으니 구름이 흩어지고
술취해 머무는 곳 물 또한 청정하네
벽공과 붉은단풍 멀리서 상사하며,
벗함께 술병차고 몇 번을 올랐던가.

◑ 쌍계루 차운(권상로)

從古林林有道僧　幾多北秀與南能
幻師何日基初闢　淸叟當時建且增
山高白岳紅塵遠　樓壓雙溪一氣澄
自笑奇緣回圃牧　至今未得拂衣登

자고로 도승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북쪽에 신수스님 남쪽에 혜능스님
여환사 어느날에 이터를 개창했나
청수옹 그당시에 다시금 중건했지
백암산 높이 솟아 홍진을 멀리하고
쌍계루 진압하여 한기운 淸澄하네
포은을 회상하여 奇緣을 自笑함은
지금껏 옷떨치고 오르지 못함이라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42 Mac1 CTP-2400-CMYK

◑ 쌍계루 차운(만암)

地靈無負佳明僧　創寺當年兼此能
三百新詩希世感　兩朝名士一樓增
四時不動巖中立　今古長光水下澄
色色形形皆物外　閒忙分路幾人登

地靈이 밝은스님 저버리지 아니하여
개창한 당년부터 이런 능사 겸하였지.
삼백편 새로운 시 세상 드문 느낌이고
양조의 명사들이 한 누정에 빛 더 하네
암중에 우뚝 서서 사시사철 끄떡없고
수색은 맑고 빛나 예나이제 다름없네
갖가지 형색들은 세상 떠난 물색이라
閒忙한 갈림길에 몇 명이나 놀랐던가

◑ 백암산 관련 전봉준 연보

1894년 11월 27일 전라 전봉준, 태인전투에서 대패 후 동학농민군 해산

전봉준은 태인 전투에서 패한 후 동학농민군을 다시 결집하였으나, 이미 더 이상 전투에 임할 대오조차 갖출 수 없었다. 전봉준은 여기서 동학농민군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全琫準供草」『叢書』 18, 21쪽).

1894년 11월 29일 전라 전봉준, 입암산성으로 피신

이날 밤 전봉준이 입암산성으로 피신하여 하루를 유숙 하였다(「先鋒陣上巡撫使書」『叢書』 16, 276쪽, 「先鋒陣上巡撫使書」『叢書』 16, 287쪽 ;「日本士官函謄」『叢書』 16, 381쪽).

1894년 11월 30일 전라 미나미쇼시로부대, 전봉준 체포위해 입암산성 피습

미나미 쇼시로(南小四郎)가 이끄는 일본 부대가 전봉준이 입암(笠巖) 산성에 숨어있다는 것을 듣고 군관, 경병과 함께 갔으나 전봉준은 이미 알고 백양사로 피신하였다(「日本士官函謄」『叢書』 16, 381-382쪽).

1894년 11월 30일 관군 순무선봉진부대, 전봉준 체포시도 실패

순무선봉진 본 부대가 천원역(川原驛)에 주둔하며 전봉준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先鋒陣日記」『叢書』 16, 103쪽).

1894년 12월 2일 전라 전봉준, 순창 피로리에서 민정들에게 체포

전봉준이 김개남과 만나기 위해 순창 피로리로 잠입하였다가 12월 2일 밤 사인(士人) 한신현(韓信賢), 김영철(金永徹), 정창욱(丁昌昱)이 끌고 온 민정들에게 체포되었다. 전봉준은 순창에 수감되었다가 7일 일본군에게 인도되어 나주로 압송되었다(「巡撫先鋒陣謄錄」『叢書』14, 107-108쪽).

◑ 사가시집 권45

백암사(白庵寺)로 돌아가는 도암 상인(道庵上人)을 보내다 5수. 병서(幷序)

백암사는 고려(高麗) 시중(侍中) 행촌(杏村) 이 문정공(李文貞公)의 원찰(願刹)인데, 그의 아들 평재(平齋) 문경공(文敬公)과 손자 용헌(容軒) 국로(國老)가 각기 선인(先人)의 뜻을 이어서, 출가한 자손 중에 조행(操行)이 있는 자를 가리거나 혹은 승려 중에 명망이 있는 자를 간택하여 이 절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서로 전하여 수호해 온 지가 이미 100여 년이 되었다. 지난번에는 행촌의 외증손(外曾孫)인 판선종사(判禪宗事) 송은(松隱) 몽대사(蒙大師)가 이 절을 주관하였고, 그의 고제(高弟)가 바로 도암(道庵) 성 상인(成上人)인데 송은이 도암에게 이 절을 전하였으니, 도암 EH한 사문(山門)에서 숙망(宿望)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이 절에 머무른 지 지금 거의 30여 년에 이르는 동안, 도풍(道風)을 크게 선양함으로써 명성 높은 고승(高僧)들이 마치 비린내를 좋아하여 달려드는 개미들처럼 도암을 흠앙(欽仰)하여 서로 다투어 달려왔다. 인하여 생각하건대 거정(居正)이 예전에 흥천사(興天寺)로 송은을 찾아뵈었더니, 송은이 거정을 족질(族姪)이라 하여 정성껏 대우해 주고 이어 송은에 대한 설(設)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송은은 다시 백암사로 가게 되었다. 그 후 거정이 설을 지어서 도암을 통하여 부쳐 드렸더니, 뒤에 송은이 거정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설이 노승(老僧)의 기본 취지에 잘 부합한다." 하고는 도암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송은이 시적(示寂)하였으므로 지금은 송은을 생각만 할 뿐 만날 수가 없으나, 도암을 만나니 애오라지 스스로 위로가 된다.



도암은 본디 양주(楊州) 불암리(佛巖里) 사람인데, 거정의 별업(別業) 또한 그 이웃에 있었다. 도암의 나이는 나보다 다섯 살이 아래인데, 왕래하며 서로 종유한 지가 거의 50년이 되었다. 상인은 항상 백암사에 머무르다가 혹 경사(京師)에 오거든 반드시 먼저 나를 방문하곤 했는데, 금년 봄에는 흥천사에 와서 결하(結夏)를 하고 가을 기후가 점차 서늘해지자 또다시 산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재차 찾아와서 나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백암사는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의 자손들이 대대로 수호하는 원찰인데 공(公) 또한 행촌의 외현손(外玄孫)이니, 공의 한마디 말씀을 얻어서 길이 산문의 광영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므로 거정이 말하기를 "행촌의 내외 자손으로 지금 조정에서 벼슬한 이는 몇 천백 인이요, 심지어는 왕실의 외척이 된 이도 있으니, 비록 거정 같은 하찮은 외손(外孫)이 아니라도 또한 반드시 그 일을 크게 빛내 줄 이가 있을 터인데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였다. 그리고는 우선 절구 5수를 써서 보내드리고 겸하여 지주(地主) 조 사문(曺斯文)에게 부치는 바이다.

남국에 가장 이름난 절이 바로 백암사라
南國名藍是白庵
수많은 누대 사이엔 남기가 어우러졌는데
樓臺多少間晴嵐
언제나 집신 버선 차림으로 스님을 찾아
何時鞋襪尋師去
밝은 달밤 쌍계에서 종용히 담론해볼꼬
明月雙溪共軟談
가을바람은 점점 일고 호수는 하 맑은데
秋風欲落湖水澄
나그네 행장은 등나무 지팡이 하나로다
去去行藏一瘦藤
온 산에 원숭이 학은 서글피 기다릴 테고
猿鶴滿山應悵望
청산은 예전대로 흰 구름이 겹겹일 걸세
靑山依舊白雲層
천하에 명성 하 높아던 이행촌이거니
天下聲名李杏村
그 원찰을 의당 길이 보전시켜야 하는데
宜敎願刹鎭長存
나라 가득 자손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子孫滿國多於織
묻노라 그 어떤 이가 부지런히 수호할꼬
且問何人守勤
송풍나월이 산문을 보호하거니와
松風蘿月護山門
더구나 지주의 깊은 은택까지 입음에랴
何況深蒙地主恩
위하여 사문 조 태수에게 알려드리노니
爲報斯文曺太守
나도 행촌의 외현손이 되는 사람이라오
杏村吾亦外玄孫
목은의 큰 문장으로 사루를 잘 꾸몄는데
牧老雄文賁寺樓
삼봉의 뛰어난 필치 또한 풍류가 있거니
三峯妙筆亦風流
내 졸렬한 시구를 큰 소리로 읽지 말게나
莫將拙句高聲讀
아마도 산신령이 허여해 주지 않을 걸세
知有山靈不點頭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44 Mac1 CTP-2400-CMYK

입암산의 문헌자료

장성읍지

고려 송군비가 몽고적을 격퇴하던 곳.
선조26년 癸巳에 이귀가 장성현감이 되어 현인 윤진과 더불어 입암산성을 개축하여 호남의 保障으로 삼았고 윤진은 이곳에서 순절하였다.

효종4년 癸巳에 장성현감 이유형이 입안산성의 비저 협착함을 조정에 장문하여 더 높이고 넓히고 하였는데, 그 개축하는 역사는 군사들을 동원하였다. 동년 7월에 장성현이 입암산성 주진관이 되므로 장성현을 부로 승격하여 장성군호부사 겸 나주진관병마동검절제사 입암산성 수진관을 두었다.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 24권 세가24, 고종(高宗)3

정사(丁巳)에 왕이 몽고병들이 여러 섬들을 공격을 도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이광(李廣)과 송군비(宋君斐)를 파견하여 주사(舟師) 3백명으로 남하하여 몽고병을 막도록 하였다.

기미(己未)에 이광 송군비가 영광(靈光)에 이르러 길을 나누어 몽고병을 치기로 약속하였는데 몽고병이 알고 방비하니 광은 섬으로 돌아가고 군비는 입암산성을 지켰는데 성중에서 힘쎈 장정들은 모두 적에게 투항하고 오직 늙은이와 어린 사람만 남게 되었다. 하루는 군비가 거짓으로 연약하고 쇠약해진 사람 몇 명을 내보내니 성밖에서 이것을 본 몽고병이 양식이 다한 것으로 여겨 병사를 이끌고 성 아래에 이르렀다. 이에 군비가 정예의 병사를 이끌고 떨쳐 일어나 몽고병을 패배시켰는데 살상한 적군이 아주 많았고 적장 4명을 사로 잡았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종 안효대왕 43년

몽고병이 여러 섬을 공격하고자 꾀했기 때문에 장군 이광(李廣)과 송군비(宋君斐)를 보내어 주사 3백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막게 하였다.

이광과 송군비가 영광(靈光)에 달려가 길을 나누어 치기로 약속하였는데, 몽고병이 알고 방비하였다. 광은 도로 섬으로 들어가고, 군비는 입암산성을 지켰다. 성중의 장정(壯丁)은 모두 적에게 투항하고, 오직 늙고 어린 사람만 남아 있었다. 하루는 군비가 거짓 파리하고 약한 몇 사람을 성밖에 내보내어 보였다. 몽고병이 생각하기를 양식이 다 되었나보다 하고 군사를 끌고 성 아래에 이르렀다. 군비가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용기를 내어 적을 쳐서 이겨 부상당한 적이 매우 많았다.

◑ 백사집(白沙集)

정읍의 입암산성에 대하여
현(縣)의 남쪽 30리에 있는데, 주위는 대략 20리 정도이다. 《여지승람》에는 1만 2028척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5460척이라고 한다. 성의 형세는 금성(金城)에 비해 약간 작은데, 백척(帛尺)으로 2척이 지척(地尺)의 1척에 준하니, 《여지승람》에서 말한 것은 아마도 백척을 사용한 듯하다.

산세는 높고 험준한데 꼭대기가 움푹 들어가서, 사방은 높고 가운데는 널찍하다. 그 형세를 인하여 성을 쌓았으므로, 형상이 마치 말의 구유[馬槽]와 같다. 각(閣)은 붕상(棚上)에 있으므로, 밖에서 쳐다보면 아득하고도 엄연하여 그 내부를 헤아릴 수가 없다. 성 안의 사면은 한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고, 천지(泉池)도 넉넉하여 물이 만 필의 말도 먹일 만하다. 험고함은 금성(金城)에 미치지 못하나 형세는 그보다 낫다. 동·남·북 삼면이 모두 적을 받는 곳이고, 입암 일면은 위령(葦嶺)의 큰 길을 굽어 누르고 있어 지세가 더욱 기이하고 웅장하다.



난중잡록(亂中雜錄)

◑ 경자년 하 만력 28년, 선조 33년(1600년)

순찰사는 의기로써 권장하여 곡식을 각출해서 군량에 보태어 국가 대사를 치루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현재 완악한 적은 아직 섬멸되지 않았는데 명 나라 군사는 갑자기 돌아가버려 나라에는 막을 울타리가 없고, 가정에는 아침저녁을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있으며, 신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혹시 천심(天心)이 뉘우치지 않아서 난리가 다시 일어난다면 장차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의 손을 끌고 왜적의 흉악한 창끝에 머리를 맞대고 모두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견고한 성에 의지하고 요새를 지켜서 자강(自强)의 형세를 도모할 것인가? 왜적의 변란이 일어난 뒤로 말 · 소를 가진 사람은 혹은 싣고 혹은 타고 멀리 달아나 피난을 하되 오히려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빠른 배를 가진 사람은 살림을 거두어 싣고 외딴 섬으로 들어가 안락한 땅으로 삼고 있으며, 다시는 군사를 모아 대오를 지어서 흉악한 도적을 대항하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 아! 한심스런 일이다. 한번 정유년의 일을 들어 말한다면, 뭍에서는 왜적이 깊은 산 외딴 골짜기까지 샅샅이 뒤져서 남김없이 죽였고, 바다에서는 풍랑속에 적이 또 달려드니 길바닥에 쓰러져 어육(魚肉)이 된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되는지 모른다. 이것으로 보건대, 차라리 북산(北山) 위에 웅거하여 양식과 무기를 저장하고 무사할 때에는 무예를 연마하여 병력을 기르며 변란이 있을 때에는 여유있는 자세로 피로한 적을 기다리면서 한 모퉁이에 보장(保障)을 만들어 나라의 근본을 삼는 것도 또한 순리적인 일이요 유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재주 없는 몸으로 임금의 명을 받고 본도에 와보니 물자와 인력은 남김없이 피폐했고 민생의 어려움은 전날보다 곱절이나 더하다. 그러나 적임자가 아님을 헤아리지 않고 외람되이 국가에 보은할 뜻을 가다듬고, 예사로운 대화에도 강개히 분발할 생각이 내보이지만 가르칠 병정이 없고 먹일 양식이 없으니 뜻은 크고 재주는 성글어서 어디다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돌아보건대, 오직 입암산성 전라도 장성에 있음)이 형세가 제일이어서 백이산하(百二山河)보다 낫다. 전날 임진란 때에 성을 수리하고 곡식을 저축해 두고 장차 굳게 지키려 하였으나 막상 난리를 당하고 보니 허둥지둥하고 또한 주관하는 이가 없어서 그대로 흩어져 달아나버렸다. 지금도 선비들이 그 말이 나오면 혀를 차고 있으니, 그 옛성을 수선하고 거기에서 군사를 조련하면 한편으로는 유사시에 의지할 땅이 되고 한편으로는 좌우로 책응(策應)하는 편리함이 됨이 거의 적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중의 무리 약간을 모집하여 방들을 꾸미고 허물어진 데를 수리하기 시작하여 이미 한 달이 넘었으니 대략 완성되기를 기다려 나는 본영이라 일컫고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항상 거처하면서 계획을 짜겠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창고를 열고 다 같이 먹은 탓으로 관청의 곳간은 비었고 벼이삭을 비비어 군에 공급한 나머지라 민간의 저축도 다 없어져 버렸으며, 일정한 조세 수입으로는 나라의 비용에도 모자라고 모은 군사는 모두 수군으로 돌렸으니, 비록 성은 있으나 군사가 없으면 성이라 할 수 없으며, 비록 군사는 있으나 식량이 없으면 군사라 할 수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깊은 우물 속에 떨어진 느낌이다. 임진년 이래로 본도의 선비로서 나라 일에 애쓰고 힘쓴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였으며 또 고생도 하였다. 어떤 이는 의병을 규합해서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는 적을 막았으며, 어떤 이는 재물과 비단을 모아 행궁(行宮)의 수용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로 이어서 마초(馬草)와 군량을 빨리 나르는 모습이 길가에 잇대어 군용이 결핍될 근심이 없게 한 것은 시종 그 선비들의 공이었으니, 어떻다 하겠는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온 도가 적으나마 믿을 만한 것은 오직 이 성인데 성을 지키는 근본은 먹을 것이 넉넉한 데 있는 것이니, 이제껏 부지런히 일하고 고생하였지만 결국 이 거사에도 힘쓸 사람은 우리네 선비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쌓아두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면서도 혹시 한 용렬한 중이 자비를 들먹이는 것을 보면 곳간을 털어주는 것도 오히려 사양하지 않는데, 내가 구걸하는 것은 용렬한 중과 다르고 군량으로 쓰이는 것은 또한 자비를 들먹이는 허황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므로 비록 곡식을 가지고 있고 사리에 깜깜한 자라도 기꺼이 따를 것인데 하물며 도리를 아는 선비에게는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전쟁의 상처를 입은데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46 Mac1 CTP-2400-CMYK

가 이어서 번거로운 부역을 치러서 1년의 농사에 반년 먹을 저축도 없으며, 열 식구의 집에 수개월 먹을 양식이 없으니 울부짖는 어린아이는 마치 수화(水火) 속에 있는 듯한 형편이므로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두어들여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다행히 여러 고을의 어진 사또들이 경내의 전 관원이나 생원 · 진사 · 유생으로 생각이 있는 이들과 더불어 곡식을 얻어내는 편리한 방책을 마련하되 대략 의곡(義穀)의 예에 의하여 많이 내는 사람은 섬으로, 적게 내는 이는 말로 하며 비록 한 되나 한 홉까지라도 그 빈부에 따라 능력대로 모아 만분의 일이라도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양식에 보탠다면, 흙덩이도 족히 태산을 이룰 수 있으며, 작은 시냇물도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훗날 호남의 근본 계책이 오늘날 선비들의 힘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니,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경(子敬)이 곳간을 가리킨 일을 오로지 옛날에만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지 말며, 우리가 수레로 곡식을 나르는 일도 장래에 함께 칭송하게 하라. 우리 동지들이여! 각각 힘쓸지어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몽고군이 입암산성(笠巖山城)을 공격하니, 장군 송군비(宋君斐)가 쳐서 패배시켰다.

이광(李廣)과 송군비가 영광(靈光)으로 나아가 길을 나누어 치기로 약속하였는데, 몽고병이 미리 알고 방비를 하니 광은 다시 섬으로 들어가고 군비는 입암산성(옛 성은 지금 정읍현(井邑縣) 남쪽 30리에 있다)을 지켰다. 성중의 장정은 모두 적에게 투항하고, 오직 늙은 사람과 어린이만 남아 있었다. 하루는 군비가 거짓으로 파리하고 약한 몇 사람을 성밖으로 내보내어 적이 보도록 하니, 몽고병은 양식이 떨어진 줄 알고서 군사를 끌고 성 아래에 이르렀다. 군비는 정예한 군사를 거느리고 분발하여 격퇴시켜 많은 적을 살상하고 그들 장수 4인을 사로잡았다.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軍政編四) 전라도(全羅道)

【전주(全州)】 읍성 석축. 둘레 2,618보. 위봉산성(威鳳山城). 석축. 둘레 5,097파(把) 영로 : 웅치(熊峙) 진안과의 경계. 이치(梨峙) 진산(珍山) 통로. 소치(掃峙) 임실과의 경계. 이치(履峙) 금구(金溝)와의 경계. 새장치(塞墻峙) 남쪽 통로. 귀신치(歸信峙) 금구(金溝)와의 경계. 만마동(萬馬洞). 남쪽 통로.【익산(益山)】 기준성(箕準城). 석축. 둘레 3,900척. 영로 : 내산치(內山峙). 여산(礪山)과의 경계.【고부(古阜)】 읍성. 석축. 둘레 2,369척.【금산(錦山)】 읍성은 지금 폐지되었다. 영로 : 송치(松峙) 용담(龍潭)과의 경계. 송원치(松院峙) 진산과의 경계. 골남치(骨南峙). 북쪽 통로. 진산【(珍山)】 영로 : 이치(梨峙)전주와의 경계. 방현(方峴) 연산(連山)과의 경계[界]. 신목치(新目峙). 옥천(沃川)과의 경계.【만경(萬頃)】 읍성. 석축. 둘레 2,820척.【임피(臨陂)】 읍성 석축. 둘레 3,674척. 고진성(古鎭城). 토축. 둘레 10여 리.【흥덕(興德)】 읍성. 지금은 폐지되었다.【부안(扶安)】 읍성. 석축. 둘레 16,450척.【옥구(沃溝)】 읍성. 석축. 둘레 3,330척. 고현성(古縣城). 석축. 둘레 3,490척.【용안(龍安)】 읍성. 석축. 둘레 4,240척.【정읍(井邑)】 영로 : 안치(鞍峙) 태인(泰仁)과의 경계. 우사치(牛死峙) 순창(淳昌)과의 경계. 노령(蘆嶺) 장성(長城)과의 경계. 소노령(小蘆嶺) 흥덕(興德)과의 경계. 적치(赤峙) 고부(古阜)와의 경계. 율치(栗峙) · 입치(笠峙) 모두 서쪽 통로. 둔월치(屯月峙) 동쪽 통로. 갈치(葛峙). 동남쪽 통로.【고산(高山)】 영로 : 탄치(炭峙) 동쪽 통로. 뉴령(杻嶺). 용담(龍潭)과의 경계.【태인(泰仁)】 영로 : 정치(鼎峙) 동쪽 통로. 뉴치(杻峙) 남쪽 통로. 굴치(屈峙) 순창(淳昌)과의 경계. 구절치(九折峙) 남쪽 통로. 사슬치(沙瑟峙) 순창과의 경계. 운암치(雲巖峙). 임실(任實)과의 경계.【나주(羅州)】 읍성. 석축. 둘레 3,126척. 영로 : 영원치(嶺院峙). 영암과의 경계.【장성(長城)】 입암산성(笠巖山城) 석축. 둘레 동쪽이 1,300여 파, 서쪽이 1,400 파(把). 구진성(丘珍城). 석축. 둘레 400척. 영로 : 새치(塞峙) 창평과의 경계. 사라치(沙羅峙) 영광과의 경계. 곡도치(曲道峙) 순창과의 경계. 월은치(月隱峙). 정읍(井邑)과의 경계.【영암(靈巖)】 읍성 석축. 둘레 4,369척. 이진진석성(梨津鎭石城) 둘레 1,407척, 높이 8척. 어란진성(於蘭鎭城). 석축. 둘레 1,407척. 영로 : 둔덕치(屯德峙) 장흥과의 경계. 동치(東峙) 강진과의 경계. 가학치(加鶴峙) · 마치(馬峙) ·



우슬치(牛膝峙)모두 해남(海南) 통로. 건교치(乾橋峙) 남쪽 통로. 오소치(烏巢峙). 남쪽 100리 지점.

◑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시무(時務)를 아뢰는 차자(箚子) - 계사년(1593, 선조 26) 12월

신은 본래 용렬하고 비루한 사람으로 위태롭고 어지러운 때에 국사를 맡아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갓 모든 일이 끊어질 듯이 날로 위험이 절박한 지경에 이름을 보니, 신의 부재(不才)로는 만에 하나라도 도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민망하고 송구하여 좁은 식견에 미치는 바를 조목으로 아래와 같이 아뢰오니, 오직 전하께서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이들 왜적은 경상도에 주둔해 있으면서 군사를 쉬게 하고 군량을 축적하고 있으니, 명년 봄 3, 4월 사이엔 반드시 다시 함부로 삼키고 물어뜯되, 전라도가 가장 먼저 적의 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도원수 권율(權慄)은 군사 없이 대구에 있고, 순변사(巡邊使) 이빈은 비록 의령에 있다고는 하지만 거느리고 있는 주린 병정이 수백 명에 차지도 못한데, 사이에 이빈은 병이 있어 진에 오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선거이(宣居怡) · 성윤문(成允文) 등도 또 외따로 떨어져서 서로 모이면서 왕래하지만 감히 적의 울타리도 엿보지 못합니다. 지난날에 진주는 성지(城池)가 자못 완전하고 군졸도 많이 모였으며 맹장들도 많이 있었으나, 모략과 계책에 약간의 차질이 생겨 오히려 함락되었습니다. 오늘의 형세는 또 절대로 그전과 비할 수 없습니다. 적이 만약 한 번 움직이기만 한다면 전라도 이북은 다시 승세를 몰아 들어올 지경이 될 것이니, 전라도를 보전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뿐이니, 비록 명군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뜻은 언제나 요해처(要害處)를 선택하여 방비를 시설하고 굳게 지키게 하되 민간으로 하여금 전쟁이 있으면 들어가 보전하고 전쟁이 없으면 나가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이 진격하여도 소득이 없고 후퇴하면 뒤를 밟는 군대가 있으니, 며칠이 되지 않아 멈칫거리다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이는 오늘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긴요한 일이니, 만약 시급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망을 알 수 없습니다. 신이 금년 초봄부터 자주 '포루(砲樓)는 성의 수비'에 이롭다고 아뢰었습니다. 참으로 포루를 만들어 많은 화기를 설치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잃음이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동파(東坡)에 있을 때에 벌써 하삼도(下三道)의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힘이 닿는 대로 포루를 설치하라고 명하였지만 오늘에 이르도록 한곳도 거행하였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인정은 옛 것 따르기를 즐기고 일을 꾸미기를 꺼리는 법입니다. 한갓 적을 토멸할 공훈을 천병(天兵)에게 의지하고, 최하자(最下者)들도 적병이 스스로 물러가기를 바람으로써 천행을 기대하여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공문에 응하여 책임만 막습니다. 사기(事機)가 멀어짐이 날마다 더 심해 감을 알지 못하니, 분촌(分寸)의 시간이 아깝기만 합니다. 이같이 늑장을 부리다가 벌써 세모가 다가오니, 명년의 일을 또 어찌하겠습니까.

대저 머뭇거림은 일의 도둑입니다. 맹분(孟賁) 같은 용사가 결단성이 없어 의심하는 것은 어린애가 꼭 이르겠다고 기필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할 때에는 비록 좋은 모략을 귀히 여겼지만 또한 반드시 잘 결단하는 것으로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신이 전에, 진주는 반드시 왜적의 엿봄을 당할 것이라고 근심하여 일찍이 이런 말을 죽은 경상 감사 김성일(金誠一)에게 알렸습니다. 김성일이 홀로 신의 말을 굳게 믿고 즉시 진주를 시찰하여, 그 굽고 곧은 형세를 살펴 8좌(八座)의 포루를 설치하고자 즉시로 민간을 동원하고 역사를 시작해서 재목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일이 병들어 죽자 결국 이루지 못하고, 진주는 드디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아, 어찌 운수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불행이 이와 같습니까.

신이 가만히 관찰하건대, 왜적은 바로 섬에서 꾸물거리는 벌레 같은 종족이므로 처음부터 깊은 꾀와 먼 식견이 없었으나, 용병에는 제법 익숙하여 부산으로부터 천 리에 군영을 연결하여 깊이 남의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48 Mac1 CTP-2400-CMYK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1둔(屯)의 졸개가 많아야 1천 명이고, 적으면 혹 수백 명이어서 중간에 한 길을 열고 개미처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편이 서로 바라보는 곳은 모두 우리 땅이지만, 우리 군대는 가운데다 끼고 서서 관망만 한 채 2년이 지나도록 하나의 적둔(敵屯)도 격파하지 못한 것은 용맹한 자와 겁 있는 자의 형세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왜적이 잘 형세를 점쳐 얻음에 연유합니다.

그들이 진을 칠 적에는 반드시 좌우를 돌아볼 수 있는 높은 산꼭대기에 두고, 게다가 목책도 견고하고 참호까지 둘렀습니다. 목책에는 반드시 흙을 발라 겨우 화살과 돌을 막을 만하게 하고 많은 구멍을 뚫어 총을 쏘기에 편리하게 한 까닭에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평양의 모란봉(牧丹峰)·중화(中和)·황주(黃州) 같은 데도 경과하는 길이 모두 이와 같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경성 안은 적이 성의 주위가 너무 넓어 수비에 어려움을 알고서 다만 남산의 여러 기슭에 신호줄을 배치하고, 토굴도 역시 구비마다 반드시 서로 보이게 하며, 지키는 숫자는 비록 적다 하더라도 총의 사정거리는 매우 멀리 미칩니다. 이것은 왜적의 꾀가 교활하여 여러모로 헤아려 환란을 염려하여 대비함이 극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이른바 장수란 무리는 전연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형세가 있는 곳을 전연 살피지 못하고 헛되이 십백(十百)의 오합지졸만 모아 팔뚝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뜨면서 싸울 만하다고 하다가도 적을 만나면 남에게 뒤질까 두려워하며 달아납니다. 먼저 정해진 계책이 없고 꼭 지켜야 할 곳도 없어 떠돌아가며 왕래하기를 부평초가 강과 호수에서 서로 밀려다니듯 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이로써 대적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은 비록 어린아이라도 오히려 불가함을 알 것입니다.

병법에 "땅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 있고, 성에는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마진(白馬津)을 지키고 비호구(蜚狐口)에 웅거하면 천하의 형세가 한(漢)에 있고 동관(潼關)을 지키지 못하면 장안도 보전하지 못하며, 백마강과 탄현(炭峴)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제가 망하였으니, 이것이 그 징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팎의 사람들은 모두 소홀히 하여 살피지 아니하니, 신은 그윽이 미혹됩니다. 신은 호남 일로(一路)를 일찍이 몸소 지난 일이 없으나, 경상우도로부터 서쪽으로는 남원과 순천이 모두 큰 진이고, 그 다음으로 전주와 나주 등도 모두 꼭 지켜야 하는 땅에 속합니다. 남원은 전에 참장(參將) 낙상지(駱尙志)가 성곽과 참호를 수리하였지만, 우리나라 인심이 태만하기 짝이 없어 남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반드시 파괴하고자 하니, 지금 침훼(侵毁)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순천·나주·전주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상하건대, 반드시 서로 맞지 않을 것이니 지금 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3, 4월 적이 움직일 때까지는 아직도 몇 달이 남았습니다. 포루 같은 것은 공력과 역사가 많지 않아 그래도 설치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백성의 힘이 부족하면 충청·전라도의 승군 수천 명을 동원하면 열흘의 역사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목이 말라 우물을 파는 격이지만, 편안하게 앉아서 망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대저 오늘의 형세는 재정이 바닥나고 힘이 떨어졌으며, 인민이 사망으로 거의 다하여 봄이 돌아와도 경작할 뜻이 없으니, 적이 오거나 적이 물러가거나를 막론하고 벌써 지탱할 형세가 없습니다. 만약 약간이라도 구획하여 싸우며 지키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몇 달 뒤에는 생민이 장차 없어지고, 국사도 다시는 휴식할 곳이 없어질 것이니, 신은 한심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산성을 수축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앞서에도 누차 아뢰었습니다. 장성 현감 이귀(李貴) 같은 사람은 바로 일개 작은 고을의 수령이지만 오히려 능히 입암산성(笠巖山城)을 수축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모든 일은 하지 않음을 근심할 따름이지 한다면 반드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요점은 당사자가 마음을 다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경상우도도 비록 심히 쇠잔하고 파괴되긴 하였지만 수습하며 조치할 길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벌써 늦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일찍이 호남을 온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 방수(防守)는 마땅히 경상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도를 한번 잃어버리는 날이면 호남은 막을 곳이 없으니, 사방으로 흩어져 충돌하는 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가을 동안 우도에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의령 · 삼가(三嘉) · 고령 · 단성(丹城) · 안음(安陰) 등은 지세가 험하여 모두 옛 성이 있습니다. 만약 점차 수축하고 백성에게 살길을 권하면, 백성들도 마땅히 즐겨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고을에 통보하였더니, 삼가현(三嘉縣)의 백성들이 맨 먼저 명령대로 달려 나와 산성을 쌓고자 지형을 그려 가지고 와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올라오게 되었고, 또한 삼가는 현감이 갈렸으니, 그 뒤에는 소식이 끊어져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호성도정(湖城都正 종친(宗親) 이락(李洛)을 말함)이 의령에서 와서 말하기를, 곽재우(郭再祐) 역시 의령 산성(宜寧山城)을 쌓고자 하여 이 일을 여러 차례 이빈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그 일 역시 도모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신이 가만히 오늘의 인심을 보건대, 전적으로 왜적의 토벌을 명군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은 비록 행할 만한 책략이 있다 하여도 조치할 뜻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부터 타국에 군대를 청하여 국가를 회복하려 한 주장은 우리 쪽에 있었고, 타국의 군대는 우리를 위하여 원조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병의 치료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원기요, 타국의 군대는 약석(藥石)과 같습니다. 약석으로 치료할 때엔 반드시 원기를 바탕으로 삼습니다. 만약 우리 쪽에 원기가 전혀 없으면, 비록 만금(萬金)가는 약이 있더라도 어디에다 이것을 실시하겠습니까.

국가가 적침을 당한 지 2년이 되었고, 적이 경성을 물러간 지도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세월은 모두 헛되게 지나가 걷잡을 수 없이 날마다 그릇된 지경으로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8방은 패멸하고 재물과 곡식은 다 사라졌으며 백성들이 들판에서 어지럽게 누워 자고 도둑이 떼를 지어 일어나니, 근심할 일은 외적뿐만 아니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며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언제나 종이 한 장의 문자로 지방에 유시를 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제때에 봉행하지 아니하고 유유히 오늘에 이르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도는 전에 재삼 신칙하였고, 경상우도의 일은 별도로 도원수 권율에게 통유(通諭)하여 그로 하여금 시세에 따라서 조치하되 한 사람에게만 맡기소서.

가령 성주 목사 곽재우 같은 사람에게 일을 감독 주관하게 하여, 초봄에 농사가 시작되기 이전을 이용해서 승군을 징발하거나 혹은 고성, 합천, 의령, 삼가 등에 피란하여 살기를 꾀하는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하여 점차로 수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근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편의대로 성에 들어가 보전하게 하고, 공사의 축적을 그 속에 모은 다음 물자를 깨끗이 정리하고 적을 기다리다가, 적이 오면 들어가 보전하고 적이 떠나가면 산에서 내려가 경작하여 씨를 뿌리게 하소서. 이 계책이 만약 성공하면 우도는 거의 지탱하고 보전할 희망이 있고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에 대한 뉘우침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이순필(李舜弼)에게 보냄

오늘의 사태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서 마음과 힘을 쓰지 않는 것만을 좋은 계책으로 삼고, 국가에 큰 이해(利害)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마치 이웃집 일 보듯이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날로 퇴폐(頹廢)해 가고 있는 것이니, 자못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연(天然)의 요새(要塞) 적상산성(赤裳山城)을 대략 둘러본 적이 있는데, 이곳은 국사(國史)를 보관하는 곳으로만 여겨서 안될 곳이었습니다. 만약 임진왜란(壬辰倭亂) 전에 나라에서 이곳에 중진(重鎭)을 설치하였다면 왜적이 어떻게 금산(錦山)과 무주(茂朱) 사이에 웅거하여 기세(氣勢)를 떨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 형편을 본 자는 누구나 형의 편지에서 말씀한 계책과 같이 하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나라에서는 의례 반대하니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입암산성(立巖山城)은 또 적상(赤裳)에 비교될 수 없는 곳으로서 실로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대관방(大關防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관(關)과 제방(堤防)이란 뜻)이고 큰 요충지(要衝地)이니,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진(重鎭)을 설치한다면 효함과 같이 장엄(壯嚴)한 요새라 할지라도 어찌 이보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50 Mac1 CTP-2400-CMYK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집사(執事)께서 자세히 형편을 갖추어 먼저 요로(要路)에 있는 여러분과 상의한 뒤에 계문(啓聞)한다면 일이 혹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그곳의 형세를 살펴보니, 정읍(井邑)과는 매우 가깝고 장성(長城)과는 머니, 정읍을 입암산성(立巖山城)의 관할 안에 넣지 않는다면 이 산성은 아무 쓸모없는 곳이 되어 급할 때 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장성과 정읍을 병합(并合)하는 것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면 차라리 진원(珍原 지금의 장성군(長城郡) 진원면)을 떼어 내어 따로 한 개의 현(縣)을 만들지언정 정읍은 산성에 병합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건대 옛날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쌓을 적에 완풍군을 원망하는 자가 많았으나 끝내 나라를 살리는 곳이 되었으니, 국가의 이해(利害)에 관계된 일이라면 한때 여러 사람의 말 때문에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성(金城)은 백성에게 폐해를 입혀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아무 소용없는 곳이 되었다면 빨리 파(罷)할 것을 주청(奏請)하여 조금이나마 민폐를 덜어 주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 계곡집(谿谷集)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제10권

정부인 윤씨에 대한 묘지명[貞夫人尹氏墓誌銘]

천계(天啓) 정묘년(1627, 인조 5) 모월 모일에 수원부사(水原府使) 연양군(延陽君 이시백(李時白)의 봉호(封號)) 이공의 배필인 정부인(貞夫人) 윤씨가 수원부 관사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이해 모월 모일에 고양(高陽)의 이씨 선영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부인의 오빠인 운구(雲衢)가 행장(行狀)을 가지고 찾아와 말하기를,

"내 여동생이 묻힐 곳에 그대가 아니면 누가 묘지명을 써 줄 수 있겠는가."하였다. 나로 말하면 약관(弱冠)에 연양공과 교분을 맺은 사이이니, 부인은 나의 제수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감히 사양할 수가 있겠는가.

부인은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아동기에 놀 때에도 중문(中門)을 나가지 않았으며, 부모가 병들면 문득 먹지 않고 장난치거나 웃지도 않았다.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 때 이씨에 출가하여 예법에 어긋남이 없이 시부모를 섬겼으며, 집안일과 관련하여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는 법이 없었다.

이씨는 대족(大族)이었으나 한동안 생활이 매우 곤란하여 고향 시골집에 내려가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부인이 낮에는 직접 길쌈을 하여 시부모에게 따뜻한 옷을 마련해 드리고 저녁때 사실(私室)에 돌아와서는 불을 지펴 놓고 바느질을 하여 남편과 자식들의 옷을 짓곤 하였다.

또 연양공이 손님 데려오기를 좋아하였는데 친지나 벗들이 집에 올 때마다 쌀독에 남은 곡식이 없어도 음식 대접을 한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집안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어 종을 부릴 때에도 은혜를 먼저 베풀고 나중에 위엄을 세웠으며, 친척들을 대할 때에도 성의를 가지고 간절하게 맞았으므로 내외의 종족 모두가 열복(悅服)하는 가운데 비난하는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다.

연양공이 일단 높이 현달(顯達)하여 대군(大郡)을 맡게 된 뒤에도 부인의 조촐한 생활 태도와 성실한 자기 단속은 한결같이 예전의 거조와 똑같았다. 이렇게 본다면 연양공이 정사를 행하면서 내외의 한계를 엄격히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내조 덕분에 그러한 관직 생활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인이 죽었을 때 그 고을의 부녀자들과 어린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곡(哭)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현부인(賢夫人)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였던 것이다.

부인의 선조는 그 계통이 천수(天水)에서 나왔다. 그런데 고려 시중 관(瓘)의 후손으로 위(威)라는 분이 호남 안렴사(湖南按廉使)가 되어 남원(南原)의 극악한 도적들을 토벌하자 고려의 왕이 그 공을 가상하게 여겨 남원을 식읍(食邑)으로 주었으므로 자손들이 마침내 이곳을 관향(貫鄕)으로 삼게 되었다.

본조(本朝)에 이르러 휘(諱)가 혜라는 분이 예조정랑으로 있다가 세조조(世祖朝)에 관직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와서는 종신토록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그 증손에 강원(剛元)이 있었는데 강직한 기절(氣節)의 소유자로서 정언(正言)의 직책을 맡아 거



리낌 없이 과감하게 발언을 하였다. 그러다가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권간(權奸)의 미움을 받아 하옥된 뒤 강진(康津)에 장류(杖流)되었는데, 권간이 몰락하자 맨 먼저 발탁되어 사간(司諫)이 되었고 죽어서 대사헌을 증직받았다.

그가 진(軫)을 낳았는데, 그는 실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덕을 지니고 이를 순일하게 행동으로 실천한 분이었다. 왜란(倭亂) 때에 장성(長城)에 우거(寓居)하고 있었는데 정유년에 왜적이 호남 지방을 노략질하자 관찰사가 조정에 요청하여 공을 입암성 수장(笠巖城守將)으로 삼았다. 왜적이 이를 즈음에 함께 수비하고 있던 고을 수령이 밤에 양식과 병장기를 불태우고 몰래 도망쳤으나 공은 홀로 떠나지 않고서 마침내 거기에서 죽었다. 뒤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공은 예조 참의 권공 벽(權公擘)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이분들이 바로 부인의 고비이다.

연양공은 이름이 모(某)로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봉호) 모의 맏아들이다. 그 가문은 본디 충효(忠孝)의 절조가 굳건하였는데 부자가 모두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훈(策勳)되었다.

부인은 만력(萬曆) 신사년에 태어나 47세의 나이로 죽었다. 병이 일단 위독해지자 옷을 갈아입고 누운 자리를 바로한 뒤 눈을 감았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의 이름은 각(恪)으로 금구 현령(金溝縣令)이고, 차남의 이름은 한()이고, 딸은 현감 김련(金鍊)에게 출가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며, 내외 손이 약간명이다.

다음이 같이 명한다.

대방의 절의에 / 帶方之節義
영가의 문학 / 永嘉之文學
두 집안 아름다움 한 몸에 안은 데다 / 二家之美鍾焉
갖추어진 덕에 비해 복록이 짧은 것은 / 德備而祿不延
인색한 하늘 탓 돌려야겠지 / 歸之于命之嗇
그러나 후손들 필시 번창하여 / 後嗣必昌
이 묘지명 사실임을 증명하리라 / 徵此窆刻

◑ 국조보감(國朝寶鑑)

효종조 2 5년(갑오, 1654)

8월. 북도의 성진(城津)과 호남의 입암(笠巖) · 금성(金城) · 격포(格浦)에 성 쌓는 일을 연거푸 흉년이라 하여 대신들이, 풍년이 들면 그때 하자고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어느 때 무슨 변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그 일을 절대 범연히 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금년에 성 하나를 완성시키고 명년에 또 하나 완성시키고 하면 힘에 부치지도 않고 효과도 거둘 것이다."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장성현

동쪽은 담양부 경계까지 28리, 서쪽은 고창현 경계까지 15리, 남쪽은 진원현 경계까지 17리, 북쪽은 정읍현(井邑縣) 경계까지 26리 이고, 서울에서 6백 44리 떨어져 있다.

【건치연혁】 본래는 백제의 고시이현(古尸伊縣)이었는데, 신라에서 고쳐서 갑성군(岬城郡)이라 하였고, 고려에서는 지금 이름으로 고쳐 영광군에 붙였다가 명종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본조에서는 현감으로 고쳤다.

【관원】 현감 · 훈도 각 1인.

【군명】 고시이 · 갑성 · 오산(鰲山) · 이성(伊城).

【성씨】본현 이(李) · 서(徐) · 유(俞) · 공(孔) · 노(魯).

【형승】 산은 둘러있고 물은 굽이쳐 있다. 조종생(趙從生)의 시에, "산은 둘러있고 물은 굽이쳐 흐르니 하늘이 이룬 것이라네." 하였다.

【산천】 금오산(金鰲山) 현 북쪽 1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취령산(鷲嶺山) 현 서쪽 20리에 있다. 백암산(白巖山) 현 동쪽 30리에 있다. 반등산(半登山) 현 북쪽 18리에 있으며, 고창현에 상세히 나온다. 입암산(笠巖山) 현 북쪽 20리에 있으며, 정읍현에도 나온다. 용두산(龍頭山) 현 동쪽 1리에 있다. 송현(松峴) 현 서쪽 15리에 있다. 위령(葦嶺) 노령(蘆嶺)이라고도 하는데, 현 북쪽 30리에 있으니, 요해의 땅이다. 처용암(處容巖) 입암산 남쪽에 바위가 있는데 그 모양이 완연히 처용의 모습과 같으므로 이름지었다. 가천(可川) 현 남쪽 5리에 있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52 Mac1 CTP-2400-CMYK

는데, 위령에서 나온다. 황룡천(黃龍川) 일명 봉덕연(鳳德淵)인데, 단엄역(丹嚴驛) 동쪽에 있다. 백암산에서 나와서 진원현(珍原縣) 경내로 들어간다. 문필천(文筆川) 현 서쪽 7리에 있는데, 송현에서 나온다. 선연(船淵) 현 남쪽 25리에 있는데, 문필천 · 가천 · 봉덕연의 3물이 합치는 곳이며, 남으로 흘러서 광산(光山)의 생압도(生鴨渡)로 들어간다.

【토산】 생강 · 모시 · 대 · 비자(榧子) · 감 · 산무애뱀[白花蛇] · 석류.

『신증』【관방】 위령군보(葦嶺軍堡) 고갯길이 호젓하고 험해서 도적이 떼지어 모여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므로 나그네가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금상(今上) 15년에 보방수(堡防守)를 두었다.

【누정】 동루(東樓) 객관 동쪽에 있다.

【학교】 향교 현 북쪽 2리에 있다.

【역원】 단엄역(丹嚴驛) 현 남쪽 13리에 있다. 성임(成任)의 시에, "한 소리 베갯머리에 들리는 것은 꽃 사이의 새요, 몇점 누각에 마주 선 것은 대숲 밖의 산이로다. 해가 다 가도록 돌아다니는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누에 올라 한가한 틈을 잠깐 만드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의 시에, "졸졸 시냇물은 마을 안을 흐르고, 골짜기 가득한 솔과 대에 땅은 더욱 그윽하네. 잔들고 권하는 데 풍설(風雪)이 차구나. 소리 낮춰 읊조리며 중선루(仲宣樓)에 기대었네." 하였다.

득량원(得良院) 현 남쪽 15리에 있다. 가정원(可亭院) 고을 동쪽 18리에 있다. 미륵원(彌勒院) 현 북쪽 21리에 있다. 원 북쪽에 돌 미륵불이 있는데 높이가 4, 5길이나 되므로 이렇게 이름지었다. 보등원(寶燈院) 현 남쪽 4리에 있다.

【불우】 취서사(鷲棲寺) 취령산에 있는데, 석탑과 석종이 있다. 송(宋) 나라 때에 중 운묵(雲默)이 있었는데, 중국에 외유하였고, 글씨를 잘 써서 세상에 이름이 있었다. 그가 죽자 제자가 탑과 종을 세워서 유해를 안치하였다.

정토사(淨土寺) 백암산에 있는데, 절에 쌍계루(雙溪樓)가 있다. 이색(李穡)의 기문에, "삼중대광 복리군 운암 징공 청수(三重大匡福利君雲巖澄公淸■)가 절간 윤공(絕磵倫公)으로 하여금 나에게 그 누각에 이름을 지어줄 것을 청하면서 삼봉 정씨(三峯鄭氏)의 기문도 함께 보여주었다. 절의 내력은 상세하나, 시내가 어떤지 누각이 어떤지는 모두 생략하고 쓰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짓기가 어려웠다. 이에 절간에게 물으니, 절이 두 시냇물 사이에 있는데, 물이 절의 남쪽에서 합치며. 물의 근원은 동쪽이 가깝고 서쪽이 멀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있는데, 합쳐서 못이 된 뒤에 산을 나와서 흐른다고 한다. 절의 사면은 산이 모두 높고 험해서 무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한 바람을 맞을 곳이 없으므로, 이 두 시내가 합류하는 곳에 누각이 있어 왼쪽 물에 걸터앉아 오른쪽 물을 굽어보고 있으면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 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고 한다. 경술년 여름에 큰물이 나서 돌 제방이 무너지매 누각도 따라서 무너졌다. 청수가 이르기를, '누각은 우리 스승이 세운 것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의 스승 각엄존자(覺儼尊者)께서는 스승과 제자로 서로 전해 온 지가 모두 5대나 되었다. 그런 까닭에 산문(山門)에 유의하기를 지극히 하였다. 누각이 지금 없어지면 책임이 장차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이에 날짜를 기약하고 목공을 고용하여 그 옛 모습을 회복하였는데, 썩은 것은 견고한 것으로 갈고 퇴색한 것은 선명하게 하니, 이에 위안이 될 만하였다. 그러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혹시나 우리 스승의 마음을 져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을 내 제자들이 꼭 알지 못할 것이요, 내 제자로서 나의 뒤를 이어 이 절에서 사는 자가 혹시 내 마음을 모른다면 산문의 일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 어찌 누각뿐이겠는가. 불상에 먼지끼고 집에 비바람 치는 것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러므로 한낱 누각의 다시 건축함을 비록 글로 쓸 만한 것은 못되나, 반드시 글 잘하는 이가 쓰기를 구하는 것은 후세에까지 전하기를 꾀하기 때문이며 내 제자들을 경계하려는 것이니, 부디 사양하지 마시오.' 하였다. 내가 일찍이 행촌 시중공(杏村 侍中公)에게 사사하여 그 자질(子姪 이름은 암(岩))과 벗하고 놀았는데 그 스님은 그이의 계씨였다. 그 청을 어기기 어려워서 골짜기에서 들은 말을 따라 쌍계루라고 이름 지었다. 나는 이미 늙어서, 밝은 달이 누각에 가득 찼을 터인데, 그 안에서 한 번 자지 못하게 되었으니, 소년시절에 그 절의 객이 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그 스승과 제자의 서로 계승한 것은 책에 있으므로 쓰지 않는다." 하였다.



정몽주(鄭夢周)의 시에, "지금 시를 써달라 청하는 백암승(白岩僧)을 만나니, 붓을 잡고 침음(沈吟)하면서 재주없음 부끄럽구나. 청수가 누각 세워 이름이 이제 무겁고, 목옹(牧翁 이색)이 기문을 지어 값 더욱 더하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 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에서 시달렸는데, 어느날 옷을 떨치고 자네와 함께 올라 볼까." 하였다.

『신증』 영천굴(靈泉窟) 정토사 북쪽 바위 중턱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샘이 있다. 굴 북쪽 작은 틈에서 솟아나오는데, 비가 오나 가물거나 한결 같다.

【사묘】 사직단 현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현 서쪽 2리에 있다. 여단 현 북쪽에 있다.

【고적】 망점산성(望岾山城) 현 동쪽 10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천 6백 척, 높이가 5척이고, 안에 작은 못이 있다.

【효자】고려 서능(徐稜) 고려 때 사람인데, 벼슬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목에 종기가 나서, 서능이 의원을 청하자 와서 보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얻지 못하면 목숨을 건질 수 없다." 하였다. 서능이, "때가 섣달이니, 어떻게 살아있는 개구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병환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슬피 울었다. 얼마 후에 의원이, "산 개구리가 없더라도 약을 만들어 보자." 하여, 나무 아래에서 약을 달이는데, 갑자기 약탕관 안으로 떨어지는 물건이 있어서 보니, 곧 살아있는 개구리였다. 의원이 놀라서, "아들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하늘이 바로 내려준 것이니, 어머니의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고, 약에 합하여 종기가 난 곳에 붙이니 곧 나았다.

『신증』본조 차순년(車舜年) 역리(驛吏)인데, 어려서부터 어버이를 섬기기에 효성스러웠고, 가절(佳節)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어 마을 사람들을 맞아서 즐겼다. 아버지가 일찍이 임질을 앓아서 숨이 막혀 끊어지려 하자 순년이 하늘에 부르짖으며 목숨을 빌었는데, 이윽고 숨을 쉬고 살아났다. 금상 23년에 복호하였다.

『신증』【열녀】본조 즉지(則只) 학생 김계창(金繼昌)의 아내다. 지아비가 죽자 3년을 곡하며 잔 올리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아버지가 수절하는 뜻을 빼앗으려 하니, 죽음을 맹세하고 ㅉㅗㅈ지 않고, 사진을 벽에 걸고 종신토록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지냈다. 금상 8년에 정려하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연혁】 선조 정유왜란(丁酉倭亂) 후로 장성과 진원(珍原)이 매우 쇠잔하니, 진원과 합치고 치소(治所)를 성자산(聖子山) 밑으로 옮겼다. 옛 치소는 부(府)의 북쪽 20리 금오산(金鰲山) 밑이다. 효종 6년에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읍호】 오산이성(鰲山伊城).

【관원】 도호부사(都護府使) 나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鎭管兵馬同僉節制使)와 입암산성(笠巖山城) 수성장(守城將)을 겸한다. 1인.

【고읍】 진원(珍原) 남쪽으로 20리에 있다. 본래는 백제의 구사진(邱斯珍)이다. 당 나라가 백제를 멸하고 귀차(貴且)라 고치고 분차주(分嵯州)의 영현(領縣)으로 만들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에 귀원(貴原)으로 고치고 압성군(押城郡)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 9년에 나주에 속하게 하고 명종 2년에는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3년에 현감으로 고치고 선조 경자년에 내속시켰다.

【방면】 읍동(邑東) 동남쪽으로 15리에 있다. 읍서(邑西) 끝이 10리. 내동(內東) 남쪽 처음이 15리, 끝이 25리. 외동(外東) · 남일(南一) · 남이(南二) 모두 처음이 20리, 끝이 30리. 남삼(南三) 처음이 15리, 끝이 30리. 서일(西一) 처음이 15리, 끝이 20리. 서이(西二) 처음이 20리, 끝이 40리. 서삼(西三) 처음이 10리, 끝이 25리. 북일(北一) 처음이 15리, 끝이 30리. 북이(北二) 처음이 20리, 끝이 40리. 북상(北上) 처음이 15리 끝이 40리. 북하(北下) 동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40리. 봉면(面) 북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0리.

마량부곡(馬良部曲)은 진원의 옛 현이다. 서쪽 20리에 있다.

【성지】 입암산성(笠巖山城) 북쪽으로 40리. 정읍(井邑) 경계에 있다. 전에는 석성의 옛터가 있었는데, 선조 30년에 수축하였고, 효종 4년에 둘레가 2천 7백 95보, 포루(砲樓) 넷, 성문 둘, 암문(暗門) 셋, 여울 하나, 연못 아홉, 샘물 열네 개로 개축하였다. ○ 수성장은 본부사가 겸한다. 별장 1인.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54 Mac1 CTP-2400-CMYK

○ 속읍은 장성 · 광주 · 나주 · 고창 · 정읍 · 태인이다. ○ 장경(長慶) · 흥경(興慶) · 인경(仁慶) · 고경(高慶) · 옥정(玉井) 등 다섯 절이 있다. 승장(僧將) 1인. ○ 창(倉) 여섯.

장성고읍성(長城古邑城) 서북쪽으로 15리에 있다. 둘레는 2천 1백 척이고 우물이 셋이다.

진원고읍성(珍原古邑城) 구진성(丘珍城)이라고도 한다. 남쪽으로 15리 불대산(佛台山) 동쪽 기슭에 있다. 둘레가 1천 4백 척. 우물 셋, 여울 둘이 있다.

망점산고성(望岾山古城) 동북쪽으로 10리에 있다. 둘레는 2천 6백 척이며 연못이 하나 있다.

이척성(利尺城) 남쪽으로 10리. 불대산(佛台山) 서쪽 끝에 있다. 둘레가 1천 5백 20척이며, 우물 넷, 여울 여섯이 있다.

【창고】 읍창(邑倉) 읍내에 있다. 북창(北倉) 북쪽으로 20리에 있다. 사창(社倉) 남쪽으로 20리에 있다. 성창(城倉) 입암산성에 있다.

【역참】 영신역(永申驛) 남쪽으로 20리에 있다.

【토산】 죽전(竹箭) · 닥종이 · 옻[漆] · 뽕 · 차 · 매실 · 꿀.

【사원】 입암서원(笠巖書院) 선조 경인년에 건립하여 현종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김인후(金麟厚) 문묘에 보인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태종 10년 경인(1410 영락8년)

경상도(慶尙道) · 전라도(全羅道) 여러 고을의 산성(山城)을 수축하였는데, 창녕현(昌寧縣)의 화왕산(火王山), 청도군(淸道郡)의 오혜산(烏惠山), 감음현(感陰縣)의 황석산(黃石山), 선주(善州)의 금오산(金烏山), 창원부(昌原府)의 염산(廉山), 계림부의 부산(夫山), 남원부(南原府)의 교룡(蛟龍), 담양부(潭陽府)의 금산(金山), 정읍현(井邑縣)의 입암산(笠巖山), 고산현(高山縣)의 이흘음산(伊訖音山), 도강현(道康縣)의 수인산(修因山), 나주(羅州)의 금성 산성(錦城山城)이다.

◑ 세종실록 지리지

입암산 석성(笠巖山石城)【둘레가 2천 9백 20보요, 안에 시냇물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 선조 26년 계사(1593, 만력 21)12월 3일(임자)

비변사에서 전라도 각지의 산성을 수축하여 들어가서 지키게 하도록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일 전라 감사 이정암의 장계에 의하면, 도내의 산성을 살펴보니 남원(南原)의 교룡 산성(蛟龍山城), 담양(潭陽)의 금성 산성(金城山城), 순천(順川)의 건달 산성(乾達山城), 강진(康津)의 수인 산성(修仁山城), 정읍(井邑)의 입암 산성(笠巖山城)이 모두 천험(天險)의 요새로 되어 있어 난을 당하여 화를 피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입암 산성이 제일 훌륭한 천험인데, 고성(古城)을 수축하는 데는 인력이 많이 들지도 않고 또 도내(道內)의 중앙에 관애(關隘)를 이루고 있으므로 힘을 합하여 지킨다면 하도(下道)의 적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소(大小) 인민이 모두들 이를 수축하여 호남(湖南)의 보장(保障)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삼국 시대에서 고려 말기에 이르기까지 외환(外患)이 그치지 않아서 전쟁이 말할 수 없이 많았는데도 지탱하여 보수(保守)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산성의 이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환란을 대비함에 있어 이 일에 제일 관심이 깊었었는데 태평이 계속된 이후로는 전혀 축설(築設)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적들이 한번 일어나면 승승장구하여 이르는 곳마다 붕괴되어, 흩어져 달아난 인민들마저도 몸을 숨길 곳이 없어 모두 적의 칼날에 죽게 하였으니, 말하기에도 참혹합니다.

대저 적이 믿고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오직 철환(鐵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평지에 있는 성은 거개가 낮기 때문에 적이 비루(飛樓)를 타고 성안을 넘겨다보면서 조총(鳥銃)을 난사, 성을



지키는 군사로 하여금 머리를 내놓지 못하게 한 다음, 용력 있는 적이 긴 사다리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성첩(城堞)을 타고 곧바로 올라와 대초로 성을 파괴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킬 수가 없는데 진주(晉州)에서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산성의 경우는 높이 반공(半空)에 솟아 있으므로 비루가 있다 해도 쓰기가 어렵고, 올려다보고 조총을 발사해도 곧바로 올라갔다가 도로 떨어지게 되므로 적의 장기(長技)가 모두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아군이 궁시(弓矢)나 석거(石車)로 위에서 마구 물 붓듯이 쏘아대면 비록 원숭이 같이 날렵하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천 산성(仁川山城)·구월 산성(九月山城)·미타 산성(彌陀山城)·행주산성(幸州山城)의 싸움에서 모두 지리적인 험요(險要)를 이용하여 승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지형을 선택하여 산성을 쌓은 다음 백성을 인솔하여 들어가 보전하게 하고, 공사(公私)의 저축을 모두 모아다가 그 가운데 적치하게 함은 물론 들을 깨끗이 비운 상태에서 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적이 올려다보면서 공격해 와도 번번이 패배할 것이고, 또 들에는 노략질할 것이 없어 군량을 대기가 어렵게 되면 반드시 우물쭈물하다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패주하는 때를 이용하여 각진(各陣)에서 정예병을 출동시켜 적의 앞뒤를 단절하기도 하고 혹은 귀로(歸路)에서 요격하기도 하는 등 공격한다면 몇 번 하지 않아 적의 기세는 절로 쇠약해지고 아군은 절로 사기가 진작될 것입니다. 오늘날 적을 막는 방책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인심(人心)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아 온갖 일이 폐이(廢弛)되어 비록 시행할 만한 계책이 있어도 조처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정암의 말도 혼자의 의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역시 본도의 인정을 인하여 이렇게 아뢴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 한 바 교룡 산성은 남원에서 5리(里) 안에 있습니다. 남원에는 원래 성이 있고 낙 참장(駱參將)이 새로 수축한 것도 굳게 지킬 만하니, 산성에서 마주 대하여 함께 지킨다면 더욱 적이 감히 침범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금성 산성은 전에 이성임(李聖任)이 수축하였고, 입암 산성은 장성 현감 이귀(李貴)가 거의 다 수축했습니다. 건달 산성과 수인 산성 또한 이 예에 의해 수축하게 하고 미리 근처의 인민들에게 알려 만일 적변이 발생하면 제때에 들어가 보전하여 기필코 지키도록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도내에 민력(民力)이 바야흐로 고갈되어 성을 수축하는 역사에 다시 민력을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귀가 도내의 승려들을 동원하여 편의에 따라 역사를 끝마치려 한다는데 이 계책이 매우 온편합니다. 이정암에게도 이 예에 의해 시행하게 하되 역사가 끝나거든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기타 동복 산성(同福山城)·옹성 산성(甕城山城) 등도 또한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축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장성 현감 이귀는 유생(儒生)으로서 도임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도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조하는 등 조처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즐겨 따른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지 진실로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귀의 일은 매우 가상한 것이니 상을 논하여 포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권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의 여러 고을에도 이런 내용으로 신명(申明)하여 계칙(戒飭), 모두 이귀가 한 것처럼 각기 본읍의 군사를 초발하여 성심껏 훈련시키되, 조총을 가르치기도 하고 궁시를 익히게 하기도 하여 조처에 방도가 있게 되면 백성이 수고롭지 않고도 일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라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예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귀의 일은 매우 가상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일은 비록 사람들의 기림이 있어도 실효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실상이 드러난 후에 포장하도록 하라."하였다.

◑ 선조 27년 갑오(1594, 만력 22) 2월 27일(병자)

비변사에서 입암 산성 등의 수축을 총섭장 유정과 승군에게 책임지울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 권협의 장계를 보니 '삼가(三嘉)의 악견 산성(岳堅山城), 합천(陜川)의 이숭 산성(李崇山城)은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56 Mac1 CTP-2400-CMYK

비록 외형상 험하기는 하나 모두 철환(鐵丸)의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人情)이 위태롭게 여긴다. 곽재우(郭再祐)의 말로는 「가야산(伽倻山)의 용기 산성(龍起山城)과 지리산(智異山)의 귀성산성(龜城山城)은 형세가 높고 깎아지른 듯하며 성안이 넓어 보통 산성에 견줄 바가 아니어서 참으로 얻기 어려운 천험(天險)이다.」고 하니, 만약 총섭장(總攝將) 유정(惟政)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승도(僧徒)를 모아 형편대로 수축하게 한다면 백성의 힘을 번거롭히지 않고도 공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장성(長城)의 입암 산성(笠巖山城)은 험준한 기암 절벽으로 적을 피하는 데 있어서 첫째 가는 곳이다. 지금 수축을 거의 마치고 또 사찰을 세워 영구한 계책으로 삼고자 현감 이귀(李貴)가 중 법견(法堅)을 불러 그 일을 주관토록 하였다. 만약 조정에서 부총섭(副總攝)이라는 관교(官敎)를 성급(成給)해주고 또 인자(印子)를 내려 권장한다면 공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권협이 그 형세를 직접 보고 도내의 민정을 살펴서 말한 것이니, 악견 · 이숭 두 산성은 전적으로 유정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승도를 모아 형편대로 수축하게 하고, 입암 산성도 이귀의 말대로 법견을 부총섭으로 삼는 것이 시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관교(官敎)를 만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군대를 이끌고 왜적을 토벌한 승려를 총섭이라 이를 수는 있지만 한 개의 산성을 수축하는 승려에게 갑자기 총섭의 권한을 주고 교지와 인자까지 내려준다면 어떨지 모르겠다. 다시 살펴 시행하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상의 전교가 과연 윤당합니다. 다만 그 이름만 칭호하고 별달리 총섭의 권한은 주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를 칭탁한 범람한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니, 군공(軍功)으로 논상(論賞)하는 규례에 의하여 대선 체문(大禪帖文)을 만들어 보냄으로써 권하여 이루도록 기약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효종 6년 을미(1655, 순치 12) 4월 17일(신미)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동래에 성 쌓는 일에 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의백(任義伯)이 면대하여 아뢴 일을 비국은 어찌하여 품처(稟處)하지 않는가?"

하니, 영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동래(東萊)에서 성을 쌓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이조 판서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동래 고을 뒤 언덕을 보니, 지금 고을이 있는 곳보다 나은 듯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유년에 약조한 뒤로 곧 수축했어야 할 것인데, 전란의 상처가 겨우 안정되었으므로 겨를이 없어서 그러한 것인가."

하였다.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장성(長城)을 승호(陞號)하는 일은 어떻게 처치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사(府使)로 높이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 이시방이 아뢰기를,

"현감 이성징(李星徵)이 고을 일에 마음을 다하므로 장성의 일은 이 사람에게 맡겨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음관(蔭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기(才器)가 걸맞다면 어찌 문관 · 음관을 논하겠는가."

하였다. 대사헌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입암 산성(笠巖山城)은 본디 호남(湖南)의 형승(形勝)이라 일컬으나 넓어서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 현종 5년 갑진(1664, 강희 3) 3월 3일(을축)

상참 후 능행, 유황, 강도 방어, 서원, 중추부 절수 등에 관해 논의하다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았다. 대사간 김수흥이 아뢰기를,

"충청 수사 박이명은 탐욕스럽고 교활하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 입암 산성(笠巖山城) · 금성 산성(金城山城) 등지에 나간 번고 어사(反庫御史) 오두인(吳斗寅)은 번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 부사 이하악(李河岳)이 군기(軍器)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도 모두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부서진 군기도 수리하지 않고 산성을 고쳐 쌓았다는 것도 애들 장난하듯 해놓은 것이었으며, 또 감사 조귀석(趙龜錫)이 실결(實結)을 재결(災結)로 보고한 것도 다 눈으로 보고서도 서계(書啓)에다 갖추어 기록하지 않았으며, 또 자신이 간직(諫職)에 있으면서도 그를 들어 탄핵도 않고 다만 사사로이 진신들 사이에다 말만 퍼뜨리는 등 봉사(奉使)를 형편없이 하였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자,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현종 4년 계묘(1663, 강희 2) 2월 21일(경신)

비변사에서 입암 산성의 군량미 문제를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입암 산성(笠巖山城)의 군량미는 3만 3천 7백 석인데 작년에 봉납된 것이 겨우 반을 넘었습니다. 김제(金堤) · 함열(咸悅) · 만경(萬頃) · 임피(臨陂) 4읍은 하나도 봉납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 4읍에 재임한 수령을 영문(營門)으로 잡아들여 곤장을 치고 향소(鄕所)의 색리는 엄한 형벌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엄중하게 곤장을 친 뒤에 본성에 충군시키고 즉시 후임자를 뽑아 속히 내려보내어 가을까지 기한을 정하여 봉납하게 하였다.

◑ 숙종 4년 무오(1678, 강희 17)11월 23일(경신)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대신(大臣)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전주(全州)의 별영군(別營軍)은 처음에 산행(山行)으로 인해 창설(創設)하였는데, 여러 해를 첨가(添加)하여 1천 5백여 명이나 되었으니, 청컨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주관(主管)하여 연습(鍊習)하게 하시고, 또 담양(潭陽) · 순창(淳昌)은 금성 산성(金城山城)을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데, 양읍(兩邑)이 서로 다투어 항거하니, 청컨대 담양(潭陽)을 수성장(守城將)으로 삼고, 순창(淳昌)을 협수장(挾守將)으로 삼아 한결같이 수성장(守城將)의 호령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장성(長城)은 입암 성장(立巖城將)으로 또 영장(營將)을 겸(兼)한 까닭으로 나주(羅州)를 호령하려고 하고, 나주(羅州)는 그 진관(鎭管)인 까닭으로 장성(長城)의 아래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 청컨대 산성(山城)의 소관사(所管事)는 나주에서 첩정(牒呈)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일은 장성에서 첩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기었다.

◑ 숙종 44년 무술(1718, 강희 57) 9월 4일(기묘)

태안 군수 안서우가 안흥진의 방비에 필요한 변개해야 할 다섯 가지 건을 상소하다

태안 군수(泰安郡守) 안서우(安瑞羽)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안흥진(安興鎭)에다 군향(軍餉)을 유치(留置)시켜 강도(江都)를 지원하게 한 것은 진실로 매우 치밀한 것이었으나, 지금 수만 석의 군량을 바닷가 한 모퉁이에다 유치시켜 두었는데, 본진(本鎭)의 입방(入防)한 군사는 십수 명에 불과하니 적선(賊船)이 갑자기 정박한다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난리를 당하여 군량을 운반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장차 진(鎭)에 딸린 약간의 군졸로서 조운(漕運)할 계책을 삼으려 하나, 선인(船人)의 무리는 흥판(興販)을 일삼아 각처로 떠돌아다니므로 평상시에도 갑자기 모우기 어려운데, 난리를 당하여 어찌 수습하기가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58 Mac1 CTP-2400-CMYK

쉽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본진(本鎭)에 1천 석(石)을 유치시키도록 하는 외에는 바닷가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평상시에는 조적하게 하고, 난리를 당해서는 조운하여 옮기도록 하면 적에게 양식을 대주는 근심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첫째입니다. 우리 나라의 전선(戰船)은 몸체가 무겁고 커서 조수(潮水)가 크게 이른 후에야 운용(運用)할 수 있으므로, 만일 적선(賊船)이 갑자기 이른다면 그것을 대적할 수 없음이 필연적인 일입니다. 또 이른바 수군(水軍)은 반드시 부근(附近)의 백성이 아니고, 평상시 점열(點閱)하여 점고를 거친 자도 아주 적은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수합(收合)하겠습니까? 지금의 형세로는 전방 병선(戰防兵船)의 수군(水軍)·주사(舟師)·능로군(能櫓軍)을 모두 혁파(革罷)하고 백성들을 모아 전선(戰船)이 정박한 곳으로 이사하게 하되, 3백 명을 한 정하여 모두 둔전(屯田)과 급복(給復)을 허락하고 근처의 어염(魚鹽) 또한 굽거나 채취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 들이지 말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떠나갈 수 없게 해서 연변(沿邊)을 지키도록 하고, 곳곳마다 15명이 각기 자기의 재물을 내어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 척의 배를 만들게 하되, 평상시에는 그 둔군(屯軍)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난리를 당해서는 일시에 장비를 싣고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함께 진격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손(子孫) 대대로 영구히 둔군(屯軍)을 삼는다면, 각자가 그의 부모(父母)와 처자(妻子)를 돌아보아 염려하여 나아가 용감하게 대적할 것이니, 이것이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둘째입니다. 해서(海西)의 대흥 산성(大興山城)과 호남(湖南)의 입암 산성(笠巖山城)을 당초에 창설(創設)한 것은 대체로 요충(要衝)을 중하게 여겨서인데, 임진 왜란과 병자 호란 때 적병(賊兵)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지경처럼 침입하였습니다. 마땅히 대흥산성과 입암 산성을 큰 진(鎭)으로 삼아 일찍이 곤수를 지낸 무신(武臣)을 가려서 육군 방어사(陸軍防禦使)로 차임(差任)할 것이며, 호서(湖西)의 충주(忠州)와 청주(淸州)는 삼남(三南)의 요해지(要害地)이니 두 곳 가운데 별도로 육군 통제사(陸軍統制使)를 두어 별영(別營)을 지휘하게 해서 군사를 나누어 가서 구원하도록 한 후에야 근심이 없게 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세째입니다. 적(敵)을 방어하는 방법은 청야(淸野)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각기 성(城)을 쌓게 하되, 커도 10리(里)를 넘지 않게 하고 작아도 7리를 넘지 않게 한 후에 각양(各樣)의 조적과 여러 군향(軍餉)을 모두 성 안으로 바치게 한다면, 백성들이 틀림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킬 것이니, 이것이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네째입니다. 지금의 고치기 어려운 폐단은 이웃이나 친족을 침해하여 징수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군영(軍營)의 군포미(軍布米) 및 각 보포미(保布米)를 모두 없애고, 1년에 꼭 감해야 할 수량을 계산하여 경외(京外)의 가호(家戶)에 돈으로 징수하게 하되, 위로 삼공(三公)으로부터 아래로 사(士)와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대(大)·중(中)·소(小)의 가호(家戶)로 나누어 그 돈의 수량을 올리거나 낮추게 하고, 여러 고을의 각항(各項)의 보인(保人)을 원군(元軍)으로 채우게 한다면, 여러 고을에서는 군사가 없으면서 군사가 있는 것이 되고, 국가에서는 돈이 없으면서도 돈이 있을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다섯째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그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렸으나, 끝내 채택하여 시행한 것은 없었다.

◑ 증좌승지윤공순의비명(贈左承旨尹公殉義碑銘)

有明朝鮮國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 尹公 殉義碑銘 竝序

유명조선국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윤공 순의비명 병서(서문이 포함되었음)

嘉善大夫 全羅道觀察使 權적 一撰

가선대부 전라도관찰사 권적 글을 지음.

通政大夫 長城都護府使 李顯允 書

통정대부 장성도호부사 이현윤 글씨를 씀.

昔在趙宋末元兵徇池州

옛날 조송(趙宋) 말엽에 원나라 군대가 지주(池州)를 침범했을 적에

通判趙公昺發 繕壁聚糧爲固守計

통판 조묘발이 성벽을 수리하고 양식을 모아 굳건히 수비할 계책을 행하다가



及至事不可濟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미쳐서

乃置酒會親友與訣

마침내 술자리를 두고 벗들을 모아 더불어 이별하고서

謂妻雍氏曰 吾守臣不當去 汝先出走

아내 옹씨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을의 수령(守臣)이라서 떠날 수가 없소. 그대는 먼저 탈출하시오"라고 하니

雍曰 若爲忠臣 吾獨不得爲忠臣婦乎 願與同死

옹씨가 말하기를 "당신이 충신이 되는데 저인들 충신의 지어미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원컨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였다.

昴發笑而許之

묘발이 웃으며 이를 허락하고서

遂與共縊于從容堂

마침내 함께 종용당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不■讀書至此 未嘗不掩卷流涕悲其事奇其節

재주 없는 내가 글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 일찍이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슬피 여기고 그 절개를 기특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今觀夫栗亭尹公事蹟 其夫婦同死節義雙成

이제 저 栗亭 尹公(윤진)의 사적을 보니 그 부부가 함께 죽어 절개와 의리를 함께 이루었으니

眞可謂千載一揆百世相感者 ■不偉歟烈哉

참으로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통하는 동일한 도리이며 백대(百世)의 세월의 격차에도 서로 감동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할만하다. 어찌 훌륭하고 장하지 않겠는가!

謹按 公諱軫字季邦坡平人也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는 진(軫)이요 자는 계방이니 본관은 파평이다.

麗代諱英贊 以討賊功封南原

고려 때의 선조 휘 영찬은 도적을 토벌한 공으로 남원군에 봉해졌으며

四代祖諱■ 禮部員外 與成三問朴彭年友善

사대조 휘 혜는 예부 원외랑이 되어 성삼문, 박팽년과 벗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光廟朝奪官歸長城

세조(光廟) 때에 관직이 삭탈되어 장성으로 귀향하여 살았다.

考諱剛元判校以直道■權■(凶)杖配楊口

부친이신 휘 강원은 판교가 되어 바른 도로써 권세가(權凶)를 거스르다가 양구(楊口)로 장배(杖配)되었는데,

寔娶縣監李時榮女 生公于配所 嘉靖二十七年戊申歲也

이에 현감 이시영의 딸을 아내로 맞아 유배지에서 공을 낳았으니 가정 27년 무신년이었다.

甫■■ 河西金先生 一見大異之 期以遠大 稍長 不事擧業留心正學

윤공이 일곱 여덟 살 무렵에 하서 김선생(김인후)께서 한번 만나보고 크게 특이하게 여겨서 원대한 성과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금 장성하여서는 과거공부(科業)를 일삼지 않고 바른 학문에 마음을 두었다.

逮遭判校艱 居廬三年 攀慕踰度 朝夕哭墓 哀動傍人 關制擧孝行 拜慶基殿參奉 例陞奉事

부친상(判校艱)을 당함에 미쳐서(1572년 11월) 삼년동안 시묘살이를 하면서 의지하고 사모함이 정도를 지나쳐서 아침저녁으로 묘에서 통곡하니 슬픔이 주변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효행으로 제거(制擧)되어 경기전 참봉에 제수되었다가 봉사로 예승(규례에 따라 벼슬을 높이는 것)되었다.

庚寅丁內艱 壬辰正月去喪

경인년에 모친상(內艱)을 당하여 임진년 정월에 탈상하였다.

四月倭寇犯京城

4월에 왜구가 경성을 침범하자

遂■家歸長城別業

마침내 가솔을 이끌고 장성의 별장(別業; 곧 別莊)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60 Mac1 CTP-2400-CMYK

으로 돌아왔다.

公素性慷慨 慕古人節義

공은 본디 타고난 성품이 강개(慷慨; 불의를 용납하지 않음)하고 옛사람의 절의를 사모하여

每月夜誦諸葛公出師表胡澹庵封事 未嘗不擊節於邑

달 밝은 밤에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와 호담암(胡澹庵)의 봉사(封事; 밀봉하여 올린 상소문)를 송독할 때마다 일찍이 무릎을 치며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至癸巳 湖南伯李公廷■ 以笠巖山城形勢斗拔 可以遮截賊路 啓公董築

계사년(1593년)에 이르러 전라관찰사(湖南伯) 이정암이 입암산성의 형세가 험준하고 우뚝 솟아서 왜적의 행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공에게 축성을 감독하게 하였다.

公以爲此城卽國家保障重地 遂應■不辭

공이 이 성은 곧 국가의 보장중지(保障重地)라고 여겨서 마침내 부름에 응하여 사양하지 않았다.

身操版■ 日夜籌■ 設砲樓 建倉庫 儲軍糧 以固必守

몸소 판자와 삽을 잡고 밤낮으로 계책을 세워(성을 쌓는 일을 시행하여) 포루를 설치하고 창고를 세우고 군량을 저장하여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였다.

丁酉秋賊兵陷閒山島 公携妻子入城

정유년 가을에 적군이 한산도를 함락시키자 공이 처자를 이끌고 성으로 들어왔다.

及南原失守 兇鋒遍湖甸

남원이 함락(失守)되고 경기와 · 충청(湖甸)까지 흉악한 왜적의 선봉이 다다른 때에 미쳐서

公之親戚咸勸出避曰 公受命築城不受命守城

공의 친척들이 모두 성을 나가 피할 것을 권하며 말하기를 "공은 성을 쌓을 것만을 명받았지, 성을 지키라는 명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公正色曰 此城城乃吾死地 今日乃吾死日

공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이 성이 바로 내가 죽을 곳이요, 오늘이 바로 내가 죽을 날이다."라고 하였다.

隣守數人約與共守者皆不至

이웃 고을의 수령 몇 사람으로 함께 지키기로 약조한 자들이 모두 오지 않자

公獨聚義兵數百 竭力警守 城陷

공이 홀로 의병 수백 명을 모아 힘을 다해 경계하고 지켰으나 성이 함락되었다.

戈劍交勁而顔色不變 罵不絕口 兀坐受刃

창칼로 겨루면서도 안색이 변치 않았으며 적을 꾸짖는 소리가 입에서 그치지 않았고 꼿꼿이 앉아 죽음을 당했다.

妻權氏 故參議擘之女 見賊至引佩刀自決

아내 권씨는 본래 참의 권벽의 딸인데 도적이 다다른 것을 보고 차고 있던 칼로 자결하였다.

賊義而哀之 不脫衣服而去

왜적들이 부인을 의롭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 의복을 벗기지 않고 떠났으니

■所謂夫婦同死節義雙成者 豈不信然矣乎

과연 이른바 부부가 함께 죽어 절개와 의리를 함께 이루었다는 말이 어찌 사실임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亂定 贈公左承旨旌閭權氏

난이 평정되자 공은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부인 권씨는 정려를 받았으니,

隱卒之典亦至矣

죽은 공신을 애도하여 추봉하는 법(隱卒之典)이 또한 지극하구나.

噫 公之世德 可見於南原禮部兩公

아! 공의 대대로 전해지는 덕은 남원(윤영찬)과 예부(윤혜) 두 공(公)에게서 볼 수 있다.

而公早受判校公義方之訓 耳濡目染 無非忠孝節行

공이 일찍부터 판교공(윤강원)의 가르침(義方之訓; 집안에서 부친에게 받는 가르침)을 받아 귀로 익숙히 듣고 눈으로 익숙히 보아(耳濡目染) 충효와 절행이 아님이 없었는데

畢竟所成就 如彼卓卓



마침내 성취한 것이 저와 같이 탁월하여

至今 湖中父老 說其事 ■■出涕 義烈之感人 有如此也

지금에 이르기까지 호중의 부로들이 그 일을 말하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니 의열의 사람을 감동시킴이 이와 같음이 있구나.

長城守李公顯允

장성사또 이현윤이

■任二載 百廢俱興 尤致力於固■崇節之方

부임해온지 이년동안 온갖 폐해졌던 제도(좋은 제도)를 모두 다시 행하고 굳게 지키고 절의를 숭상하는 방법에 더욱 힘을 다하였다.

首先修治笠巖城 偏感公義烈 伐石樹碑 欲表章事實以激勵來世

가장 먼저 입암성을 중수하였는데 공의 의열에 유달리 감동하여 돌을 다듬어 비석을 세워서 윤공의 의열을 표창(表章)하여 후세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遂馳書請記之

마침내 글을 보내 비문을 써주기를 청해오니

不■適按此道而權夫人寔爲從高祖姑

재주 없는 내가 마침 이 전라도의 관찰사이고 권부인이 나의 종고조모가 된다.

顧念先故義 不敢■略述公立■始末 以歸之丹

돌아보건대 먼저 옛 의리를 생각해보니 감히 공의 절개를 지켜 목숨을 버린 자초지종을 약술하여 그 충심에 돌이키지 않을 수 없으니

我同志之士 庶或諒余慕義感舊之心而恕其■妄也耶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이 혹여 나의 의를 사모하고 옛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믿어 나의 참람되고 망령됨을 용서하겠는가!(불초한 자신이 과분하게 윤공의 비문을 쓴 것에 대해)

係曰 瞻彼南紀 有嚴屹屹 夫死於節 一體成仁 萬古并烈 ■之不■ 名與不滅

이어서 찬하노라 "저 남방의 강기(南紀)를 바라보니 우뚝 높은 바위로다. 지아비 절개를 지켜 죽으니 한 몸이 인을 이뤘도다. 만고의 나란한 의열, 부서지지 않는 바위와 같아서 이름과 함께 없어지지 않으리."

崇禎紀元後 再壬戌十月 日立

숭정기원후 두 번째 임술년 시월 일입

◑ 우계집(牛溪集-성혼) 권6 잡저(雜著)

8월 5일에 장성(長城)에 사는 참봉(參奉) 정운룡 경우(鄭雲龍慶遇)와 박사(博士) 변이중 언시(邊以中彦時)가 나란히 말을 타고 찾아와서 하루 저녁 유숙하고 갔다.

정군은 장성과 정읍(井邑) 두 고을의 사이에 있는 노산(蘆山)의 산중에서 경치 좋은 곳을 찾는데, 시냇물을 따라 산속으로 10리쯤 들어가면 온통 푸른 절벽이 깎아지른 듯이 서 있으며 물과 돌이 깨끗하고 그윽하였다. 채 3리를 못 가서 말에서 내려 걸어서 이곳에 이르면 북쪽과 동쪽, 남쪽은 모두 푸른 절벽이 천 길 높이로 서 있고 서쪽에는 석문(石門)이 있으며 동쪽 절벽 위에는 큰 시냇물이 흘러내려 20길 높이의 폭포가 쏟아진다. 북쪽 절벽에는 돌길이 나 있어 동쪽 절벽 위에 이를 수 있으며, 동쪽과 북쪽의 절벽은 모두 바위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돌 하나가 펑퍼짐하여 수백 명이 앉을 만하였다. 물이 이 사이로 흐르는데 옥처럼 깨끗하고 빛나서 손으로 공중에 솟구쳐 나는 물을 희롱할 수 있다.

작은 암자가 북쪽 절벽 아래에 있는데 양지바른 곳에 있어 습하지 않고 밝으며 동쪽으로 7, 8십 보 지점에 폭포가 보인다.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윽하고 조용하며 깨끗하고 경치가 빼어난 것을 말로 다 기술할 수가 없다. 붉은 언덕과 푸른 절벽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하며 소나무와 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인적이 드물지만 사방의 산이 그리 높지 않아 추운 겨울이라도 암자 앞에는 눈이 먼저 녹는다. 암자의 이름은 하곡서실(霞谷書室)이고 시내의 이름은 몽계(蒙溪)인데, 이는 모두 정군이 이름 지은 것으로 정군이 거주하는 장성의 개계촌(介溪村)과는 20여 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62 Macl CTP-2400-CMYK

◑ 국조보감(國朝寶鑑) 권30

진사 정운룡(鄭雲龍)은 장성(長城) 사람인데 향리에서 조행이 있었다. 이때 현감 이계(李)가 학교를 설립하여 선비를 가르쳤는데 운룡을 초빙하여 선생으로 삼았다. 하루는 여립이 이계에게 서찰을 보내어 제수(祭需)를 요구하였는데 열읍에 두루 미쳤다. 이계가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는 하루의 교분도 없는데 어찌하여 서찰을 보내어 요구하면서 수량을 정하여 징수하기를 마치 상사(上司)가 호령하는 것처럼 한단 말인가."

하고 드디어 답하지 아니하였다. 운룡이 여립과 서로 알고 있음을 알고 그 서찰을 보이니, 운룡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학식이 넓고 이발(李潑) 형제가 자주 칭찬하였기 때문에 한두 차례 만났다. 요즘 듣건대, 가정 생활의 처사가 흉악하고 간사한 정상이 많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서찰을 보니 더욱 증험이 된다. 이 사람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후일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서찰을 보내어 이발도 함께 끊어버렸다.

◑ 서계집(西溪集-박세당) 권14 묘표(墓表)

황창부위(黃昌副尉) 변공(邊公) 묘표 임오년(1702) 겨울. 이하의 묘표도 모두 같다.

효종 10년인 기해년(1659)에 소현세자(昭顯世子)의 1남 3녀가 모두 작위를 받았다. 아들은 군(君)이 되고 딸은 군주(郡主)가 되고 사위는 모두 부위(副尉)가 되었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황창부위이다.

공은 성은 변씨(邊氏)이고 휘는 광보(光輔), 자는 여필(汝弼)이며, 본관은 황주(黃州)이다. 선대에 송나라가 멸망할 때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로 온 변려(邊呂)라는 분이 고려를 섬겼는데, 공(功)으로 태천백(泰川伯)에 봉해졌다. 시대가 멀어 그 후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한다. 윤(允)이 서해도 안찰사(西海道按察使)가 되어 황주에 살았는데, 자손이 그로 인해 그곳에 살게 되었다. 몇 대를 전하여 석(碩)에 이르는데, 석의 아우가 순(順)이고, 순의 손자 안열(安烈)이 원천백(原川伯)에 봉해져 변씨가 마침내 원주(原州)와 황주로 본관이 나누어졌다. 8대조 정(靜)은 숙부 광수(光秀)를 따라 여러 차례 전공(戰功)을 세웠으나, 고려 말에 광수가 참소를 당해 죄를 받게 되면서 이에 연루되어 장성(長城)에 유배되니, 후손들이 또 장성에 거주하게 되었다. 고조 휘 택(澤)은 좌승지를 지냈다. 증조 휘 이중(以中)은 종부시 정을 지냈고 호는 망암(望菴)인데, 학문을 좋아하고 선행을 즐겨 하여 일찍부터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율곡(栗谷 이이(李珥)) 등 제현(諸賢)의 추중을 받았다. 만년에 오랑캐의 난을 만나 소모사(召募使)와 조도사(調度使) 등의 신분으로 분주히 활약하여 충성과 지성이 성대히 드러나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으며, 호남의 사인(士人)들이 추모하여 사당을 세웠다. 조부 휘 경윤(慶胤)은 마지막 관직이 예조 좌랑이었는데, 문학(文學)과 기절(氣節)을 이어받아 일세(一世)의 추중을 받았다. 문경호(文景虎)가 현인(賢人)을 헐뜯고 광해(光海)가 모후(母后)를 폐하자, 전후로 직언하는 상소를 올리고는 장성에 은둔하여 백양산(白羊山) 자하동(紫霞洞)으로 들어가 산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자칭 '자하옹(紫霞翁)'이라 하고, 또 호를 '치재(恥齋)'라 하였다. 후에 특별히 예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부친 휘 명익(命益)은 금산 군수(錦山郡守)이고, 모친 숙인(淑人) 광주 김씨(光州金氏)는 목사 효성(孝誠)의 따님이다.

공은 인조(仁祖) 22년인 갑신년(1644)에 태어났다. 7세에 문장을 엮을 줄 알았으며 자태가 숙성하였다. 13세 되던 효종(孝宗) 7년 병신년(1656)에 상이 친히 선정하여 소현세자 막내 따님의 배필로 삼고는 이실(貳室 왕의 부마)처럼 돌보아주었다. 이듬해에 예부시(禮部試)에 입격하자 상이 매우 기뻐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모친상을 당하였다. 당시 김 숙인(金淑人)이 금산(錦山)에 계셨는데,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문후하러 달려가던 도중에 부고를 전하러 오는 자를 만나고는 놀라 쓰러져 혼절했다가 한참 지나서야 깨어났다. 거상할 때는 벽용하고 미음을 마시며 점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이듬해가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이었고, 현종(顯宗) 경자년(1660) 7월에 복제를 마치고 비로소 부위의 명에 사은하니, 상이 인견하여 총애하며 하사한 것이 특히 후하였다. 이해 겨울에 또 부친상을 당해 애훼를 더 심하게 하여 숨만 근근이 쉬면서 곡읍(哭泣)하고, 조석으로 제전



(祭奠)을 반드시 몸소 올렸다. 병이 나자 현종이 듣고는 안타깝게 여겨 중관(中官)에게 어선(御膳)을 들려 보내며 죽는 것은 효가 아니라고 효유하게 하니, 공이 감격하여 명을 받들었으나 병이 이미 고질이 되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위독해지자 어의가 약을 가지고 와서 진찰하였으나 결국 신축년(1661) 12월 18일에 졸하니, 나이 겨우 18세였다.

부고가 전해지자 상이 탄식해 마지않았고, 삼전(三殿)이 각기 중사(中使)를 보내 호상(護喪)하게 하고 관곽(棺槨)을 내리고 부의(賻儀)로 거마와 의복을 보내주었다. 임인년(1662, 현종3) 3월 12일에 영평(永平)의 갈현(葛峴)에 안장하였고, 금상 병인년(1686, 숙종12) 3월 6일에 여주(驪州) 상두산(象頭山) 장흥사(長興寺) 북쪽 기슭으로 천장하였다. 넉넉한 예전으로 장례와 제례를 모두 돌보아 주었으며, 또 장흥사 및 산록(山麓)의 토전(土田)을 하사하고 무덤을 지키는 노비를 지급해 주었으며, 이해에 또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수연(壽宴)에 따른 경사로 인해 작질을 한 등급 올려 증직하였으니, 모두 남다른 은수(恩數)였다.

경순군주(慶順郡主)는 소현세자의 셋째 따님으로 인조 21년인 계미년(1643)에 태어났다. 3세에 소현세자가 졸하고 다음 해에 강씨(姜氏)의 옥(獄)이 일어났다. 인조가 근후(勤厚)한 여시(女侍)를 골라 잠저(潛邸) 시절의 옛 궁에 가서 보양(保養)하게 하였고, 효종은 자신의 소생처럼 어루만지고 사랑해 주었다. 14세에 하가(下嫁)하여 4년 만에 군주에 봉해졌으며, 또 3년 만에 공이 별세하였다. 금상 23년인 정축년(1697) 12월 18일에 낙선방(樂善坊)의 집에서 졸하니, 예는 부위의 상과 마찬가지였지만 은수는 더 후중하였다. 이듬해인 무인년(1698) 2월 9일에 상두산 남쪽 기슭 유좌(酉坐) 언덕에 합장하였으니, 이는 또 전의 무덤이 길지(吉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향년 55세로 후사를 두지 못하였다.

공이 임종 시에 반드시 형제의 아들을 후사로 데려오도록 유언하였는데, 얼마 뒤 형 광재(光載)는 외아들 일(佾)을 두었고 아우 광식(光軾)은 역시 아들이 없이 죽었다. 경순군주가 공의 뜻을 어기고 싶지 않아 일의 둘째 아들 치은(致殷)을 데려와 품에 안고 양육하여 장차 후사로 삼으려 하였는데, 광재가 반대 의견을 고집하면서 손자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소목(昭穆)이 중도에 끊기는 것이란 이유로 족질(族姪)을 후사로 세우도록 조정에 청하였고 경순군주도 사연을 진달하였다. 상이 그런 사정을 가엾게 여겨 대신에게 묻자 대신도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치은에게 그 숙조(叔祖)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명하였으니, 실로 특별한 은수였다.

공은 천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기품이 고상하였다. 효우(孝友)에 독실하여 결국 애훼하다가 천수를 누리지 못하였다. 경순군주는 겸손하고 검소하며 시부모를 섬김에 예를 다하였고 공의 형제자매를 정성으로 대하였다. 공이 졸한 뒤 소박하게 지내며, 일생을 마치도록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 이 어찌 후세에 전해야 할 훌륭한 배우자의 미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유독 후한 복을 받고도 그 보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어째서란 말인가. 슬프다.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이긍익) 권14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오희길(吳希吉)을 참봉으로 삼고 정운룡(鄭雲龍)을 왕자 사부(王子師傅)로 삼았다.

이전에 고창(高敞)사람 오희길이 정여립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희길은 여립이 이이와 성혼을 헐뜯고 배척한다는 말을 듣고 여립의 간특한 것을 열거하여 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관계를 끊어 버렸었다. 역변이 생긴 뒤에 임금이 여립의 집에서 가져온 문서 중에서 그 편지를 보았었는데, 전라 감사가 여립의 문도를 잡아서 가둔 명부에 오희길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곧 특명으로 석방하게 하고 이르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기특한 선비일 것이니 내가 벼슬을 주려 한다." 하고 의정부에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또 임금이 이르기를, "정해년간에 간당들이 이이(李珥)와 성혼을 배척할 때 조정의 신하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이와 성혼을 구하고 여립을 배척하는 자가 없었는데도 희길은 이런 때에 능히 여립에게 글을 보내어 그 심술을 공격하였으니, 실로 가상한 일이라 포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참봉을 제수 하였다.

장성(長城)에 사는 진사 정운룡은 그 고을에서 행실이 착하며 이름이 있었다. 장성 현감 이계(李)가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64 Mac1 CTP-2400-CMYK

선비들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세우고 운룡을 청하여 스승으로 삼았다. 하루는 여립이 이계에게 편지로 자기 집에서 쓸 제수(祭需)물자를 요구하고, 또 다른 여러 고을에도 두루 이와 같이 요구하였다. 이에 이계가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과 단 하루도 사귀어 본 일이 없는 터인데 어찌 편지로 물품 수량까지 정해서 요구하는 것인가.마치 상관이 하관에게 호령하듯이 하였다." 하고, 회답도 하지 않고, 그 편지를 운룡에게 보이니, 운룡이 말하기를, "이발(李潑)의 형제가 이 사람이 학문이 넉넉하다고 칭찬하므로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근간에 들으니 그가 집을 다스리고 처사함에 있어 흉하고 간사한 것이 많다고 하더니, 지금 이 편지로 더욱 잘 알겠다. 이런 사람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즉시 이발에게까지 아울러 교분을 끊어버렸던 것이다. 이때에 와서 임금이 그 절교 편지를 보고 포장하는 말을 내리고, 특별히 왕자 사부(王子師傅)를 제수하였다.

◑ 난중일기

9월 16일 [양력 11월 5일]〈기유〉 맑다.

체찰사 이원익 부찰사 한효순 일행이 고창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장성에 이르러서야 잤다.

9월 17일 [양력 11월 6일]〈경술〉 맑다.

체찰사와 부찰사는 입암산성(立巖山城)으로 가고, 나는 혼자 진원현(장성군 진원면)에 이르러 진원현감 심윤과 같이 이야기했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65 Macl CTP-2400-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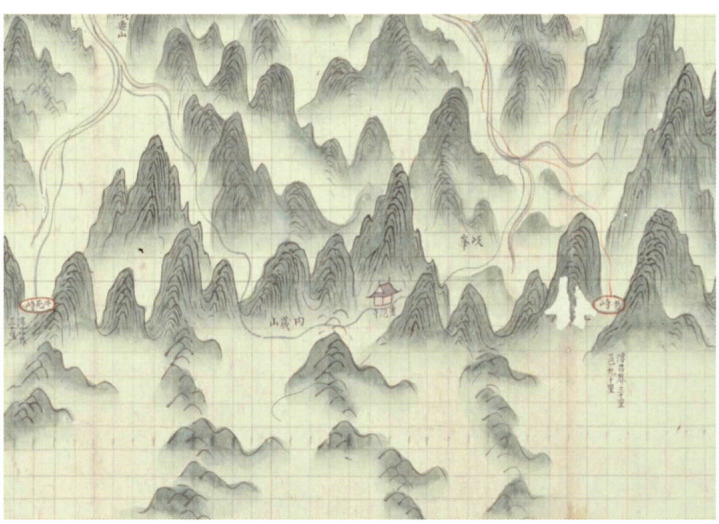
고지도 속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



여지도(1730년대)

여지도는 173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도책으로 총6책으로 이루어진 전국 군현지도 이다. 내장산의 산명은 보이지 않으나 영은사를 중심으로 산봉우리의 모습을 표시하고 있다.



비변사방안지도(1739년 이후)

대략 1739년 이후에 만들어진 이 지도에는 내장산의 산명과 영은사가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 소둥근재로 불리우는 우사치(牛死峙)가 표시되어 있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4 PM 페이지166 Macl CTP-2400-CMYK



지승(1970년대)

지승은 군사요지인 관방처와 군현을 총 6책으로 나누어 그린 지도로 내장산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영은사와 노령, 입암산성이 표현되어 있다.

광여도(19세기 초)

광여도는 19세기초 만들어진 전국 군현 지도집으로 영은사를 중심으로 내장산은 그려져 있지 않으며, 대략적인 모양은 지승과 비슷하게 표시하고 있다.





백암산



여지도(1730년대)

전라남도 장성부 지도에 보이는 현재의 백양사 부분은 약사암(藥師庵)과 백양사(白羊寺), 영천굴(靈泉屈)이 각각 표시되어 있다.

백양사의 명칭이 백암사 혹은 정토사에서 백양사로 변경된 시기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여지도를 통해 볼 때 1730년대 이전 이미 백양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동지도(1750년대)

지도를 살펴보면 백암산이라는 산명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약사암(藥師庵)과 백양사(白羊寺), 영천굴(靈泉屈)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약사암이 백양사보다 크게 그려져 있어 당시 약사암이 대외적으로 유명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승(1770년대)

지도를 살펴보면 해동지도나 여지도와 같이 약사암(藥師庵)과 백양사(白羊寺)가 표시되었고 영천굴(靈泉屈)은 영천사(靈泉寺)로 표시되어 있다. 또 백양사 주변에 2개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쌍계루나 다른 백양사의 건물을 그려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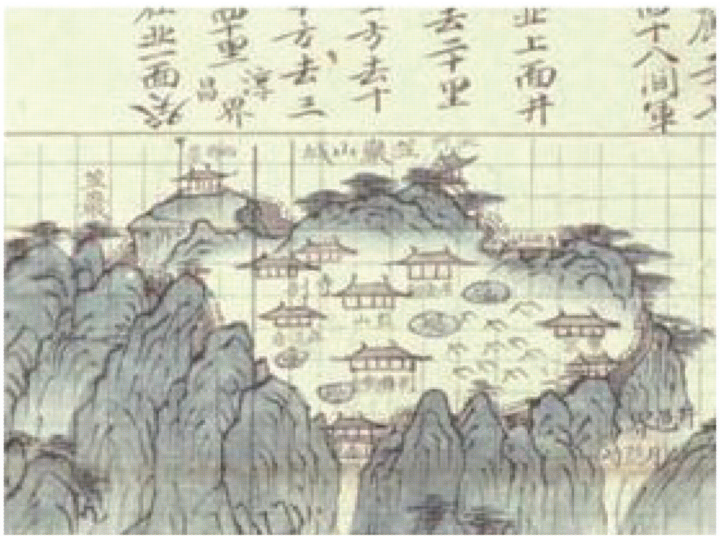
1872 지방지도(1872년)

지도에서 백양사가 옛 명칭인 정토사로 표현되어 있고 여러 암자도 그려져 있다. 또 그림 중 쌍계루로 보이는 건물의 모습도 그려져 있어 특이한 지도 자료라 할 만하다.





입암산



비변사방안지도(1739년 이후)

지도를 살펴보면 남문과 북문이 표시되어 있고 중앙에 관청인 별장소가 보인다. 이 지도상에는 2개의 망대가 보이며, 사찰과 창고가 표시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성안의 저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 총4개의 저수지가 표시되어 있다.



지승(1770년대)

지도에는 남문과 북문이 그려져 있고 별장소와 객사 및 창고가 그려져 있다. 장대는 1개소만 있으며, 창고 뒤편에는 사찰로 추정되는 건물이 그려져 있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5 PM 페이지170 Macl CTP-2400-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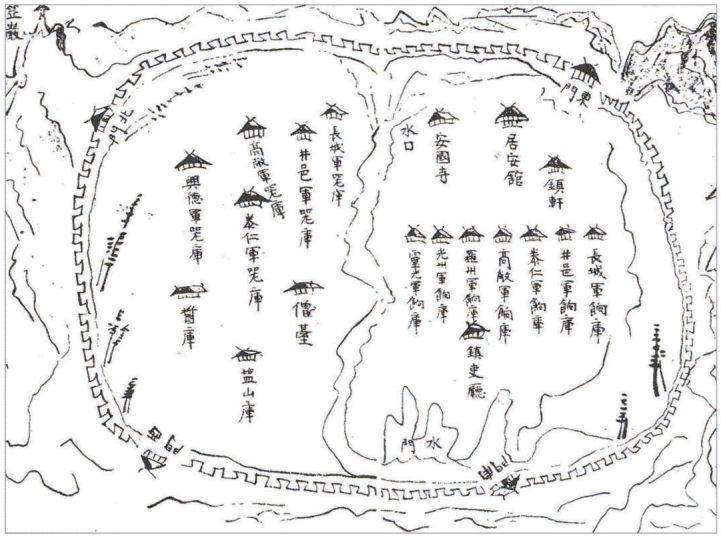


입암산성도(1750년대)

입암산성의 모습을 가장 세부적으로 표현한 지도라 할 수 있다. 지도를 살펴보면 진남루가 그려져 있고, 각 읍의 창고와 6개의 사찰, 6개의 저수지가 그려져 있다. 북문과 남문 및 6개의 장대가 그려져 있어 지금까지 그려진 지도 중 가장 많은 장대를 표현하였다.

호남읍지 입암산성진지도(1871)

동서남북 4개의 문과 수문이 표시되어 있고, 관청인 진헌과 사찰인 안국사가 표시되어 있다. 영광, 광주, 나주, 고창, 태인, 정읍, 정성 등 주변 속현의 군량창고와 군기창고가 표시되어 있어 입암산성의 크기와 세력범위를 알려주는 지도이다. 특히 소금창고와 된장창고가 있어 장기간 농성을 준비한 성임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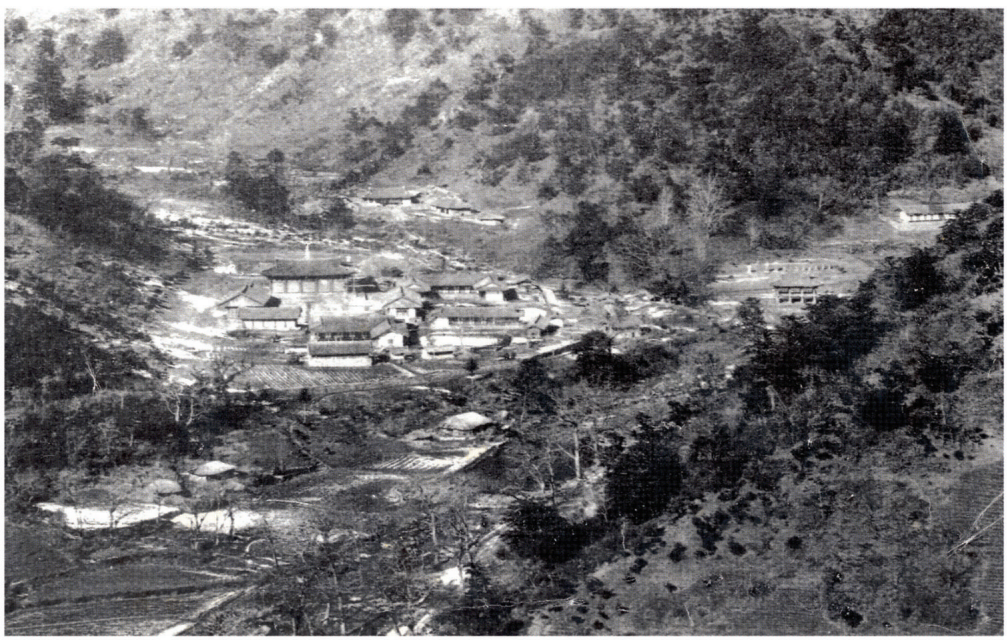
내장산국립공원 옛사진



내장산 내장사 대웅전 앞 기념사진(1934년)



내장산국립공원 진입로(1969년)



일제강점기 백양사 중창 후 사진(1920년대)



백양사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사천왕문(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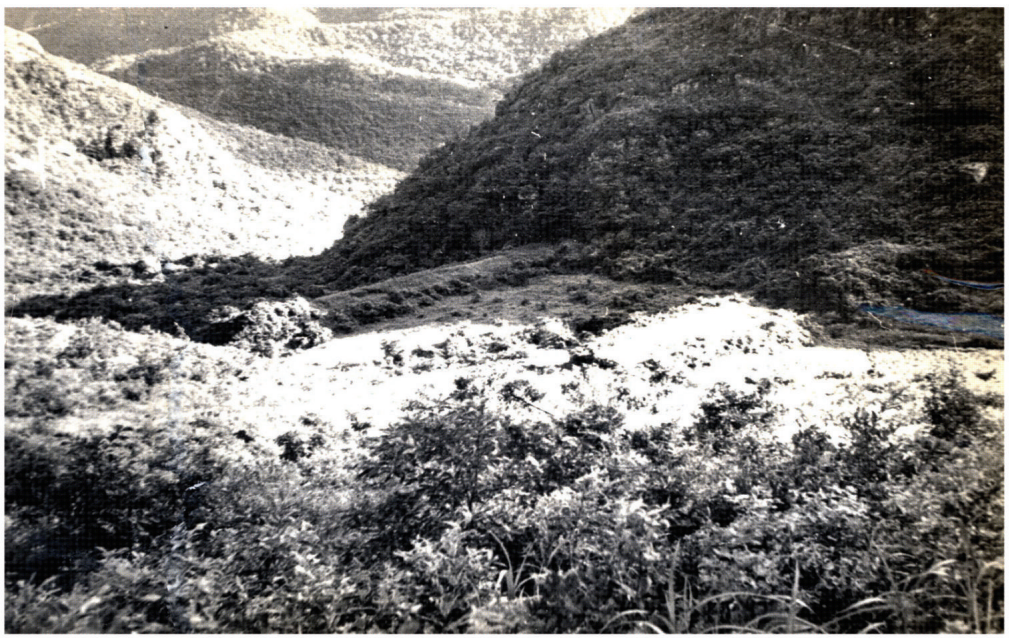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5 PM 페이지173 Mac1 CTP-2400-CMYK



백양사 가는 길(1960년대)



쌍계루 복원전 백암산과 전경(1970년대)



입암산성 남문 위 제1 저수보 사진(1971년)



입암산성 성내리 마을 전경(1980년대)



복원하기 전 입암산성 남문 사진



입암산성 성내리 마을 사람들 생활모습(1980년대)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자원

내 장 산

1) 유형문화자원

◑ 월인석보제15 (보물 745-10호)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세조 5년인 1459년 합편하여 편찬한 것으로 모두 2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15권 등 9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구암사 내 고서를 정리하던 중 발견되어 보물로 지정되었다.

월인석보제15는 초간본으로 낙장이 전혀없는 완질이며 기존에 지정되어있던 보물 제745호로 지정되어 있던 월인석보 중 빠져있던 권수를 보완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

◑ 내장사조선동종 (시도유형문화재 제49호)

내장사 조선동종은 1768년에 만든 전형적인 조선시대 종이다.

전체높이 0.8m, 종신높이 0.6m, 입지름 0.5m의 작은 크기인데, 원래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 있던 종이다. 조한보가 그의 아버지인 조인구의 복을 발원하고자 만든 것인데, 내장사가 중건된 이후에 옮겨오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공출을 피해서 원적암에 감추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정읍시내 포교당에 피신시켜 보호했다고 한다.

종 입구에는 당초문(여러갈래 덩굴이 비꼬여 뻗어나가는 무늬)을 돌리고, 종의 어깨부위에는 당초문과 물결무늬인 여의두문을 나란하게 위아래로 배열하였다.

종의 어깨 아래에는 작은 2겹의 원 24개를 배치하고, 원 안에다 범자를 표현하였다. 당초문으로 장식한 4개의 사각틀(유곽) 안에는 각 틀마다 연잎으로 장식한 아홉 개의 젖꼭지(유두)를 만들고 있으며, 유곽 사이에 2구의 보살상을 두고 있다.

당좌 사이에는 "건융 삼십삼년 무자 시월 시주 조한보 전남 장흥군 보림사주성 윤광형"과 같은 명문이 있어 분명한 제작시기와 장소, 시주자와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다.

◑ 영은사지(시도기념물 제63호)

영은사는 636년(백제 무왕 37)에 영은조사가 50동의 큰 절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고 그 뒤 1098년(고려 숙종 3)에 행안선사가 중창하였다고 한다.

1539년(중종 34)에 내장산에서 일어난 승려들의 난동으로 내장사(지금의 벽련암)와 함께 불탔다고 하지만 사찰의 소실과 폐사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1567년(명종 22년)에 희묵대사가 법당과 요사를 지으면서 이름을 내장사로 고쳐 불렀다고 하지만 명칭 변경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 논란거리이다.

근래인 1938년 매곡선사가 대웅전을 중수하고 명부전과 요사를 신축했으나 한국전쟁 때 방화로 다시 불타버렸다.

정부의 국립공원 개발계획으로 일주문(1973년)/명부전(1975년)/정혜루(1978년)를 다시 지었고 1979년에는 인도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 내장사지 (시도기념물 제73호)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읍조'에는 "백련사 혹은 내장사 재내장산(白蓮寺 或은 在內藏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백련사는 내장사라고도 말하며 내장산에 있다."라는 뜻이다.

원래 명칭은 백련사로 백제 의자왕 20년(660년)에 유해선사가 세웠다고 하나 언제부터 백련사라



고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백련사와 내장사라는 명칭을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언제부터 암자로 격하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가 사명을 백련사에서 벽련사로 직접 고쳐 걸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사찰 뒤 암벽에는 태인 출신의 몽련당 김진민이 쓴 '석란정'이라는 바위새김글이 지금도 남아 있다.

◑ 청매당(인오선사)부도

자는 묵계(默契), 호는 청매(靑梅).

청매당 인오선사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명승인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의 뜻을 받들어 의승장(義僧將)으로 왜적과 싸워 공을 세웠다.

그 뒤 행각승이 되어 전국을 다녔으며, 말년에는 부안(扶安) 요차봉(了嵯峰) 기슭에 월명암(月明庵)을 짓고 수도하다가 지리산 연곡사에 들어갔다. 그 후 청매파를 개설, 후학양성과 불교중흥에 노력하여 조선 중기 이후의 선종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고, 1617년(광해군 9) 왕명으로 정심(正心)·지엄(智嚴)·영관(靈觀)·휴정·선수(善修) 등 5대사의 영정을 그려 조사당에 봉안하고 제문을 지어 봉사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고사(古事)와 법화(法話) 등에 대하여 풀이한 「청매집」이 있다.

◑ 서보단 및 서보단 사적비

내장산국립공원 내 내장사지구에 서보단 사적비와 기념탑이 있다.

현재 서보단은 그 자취가 남아있지 않고, 단을 벽련암에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후대에 이 뜻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사적비가 남아있다.

현재 서보단사적비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명성황후가 폭악무도한 일본에 의하여 살해되자 이에 대한 복수심이 고조되었다. 1903년 무성서원에서 호남지역 향교에 통문을 보내 내장산에 모이길 촉구하였고 각 향교에서 54명의 유림들이 내장산 벽련암에 모여 단을 쌓고 명성황후를 추모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였으니 이 단을 서보단 또는 영모단이라 한다.

선인들의 얼이 서린 향토역사유적을 보호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뜻에서 서보단 사적비를 1991년 서보단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세우고 기념탑을 4년 뒤인 1995년 8월에 정읍시 보조로 세웠다.

◑ 정혜루

정혜루는 영은사(靈隱寺 : 지금의 내장사를 칭함)의 문루로 1466년인 세조 12년에 기공하여 다음 해에 준공한 삼칸의 누각이다. 웅장하고 화려하여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다는 극찬의 내용이 정혜루기에 남아 있다.

현재의 정혜루는 1977년 정부의 내장사 복원계획에 따라 다시 건립한 2층 문루이다. 전면의 현판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던 탄허스님의 글씨이고 후면의 현판은 서예가 월담 권영도 선생의 작품이다.

◑ 내장사 부도전

내장사 부도전에는 약 15 기의 부도가 있다.

중창과 소실을 거듭하던 내장사를 현재 모습으로 조성하는데 기초를 닦은 매곡선사와 (백)학명선사의 사리탑비가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 중기의 명승이자 문객으로 이름을 날린 청매당 인오선사의 부도탑도 이 부도전에 안치되어 있다.

청매당 인오선사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명승인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로 임진왜란 시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구국의 선두에서 활약했다. 또한 청매파를 개설하여 후학양성과 불교중흥에 힘써 조선 중기 이후의 선종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고사(古事)와 법화(法話) 등에 대하여 풀이한「청매집」이 있다.

◑ 불출암지

불출봉에서 원적암으로 70m 정도 내려가다 보면

암벽에 형성된 반호반굴형의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불출암이 있었다.

연혁은 분명치 않으나 고려 광종 26년(975년) 하월선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1922년 정명심화가 사재로 나한전 3칸을 세웠으며 의당 김은호의 정화와 백학명의 서액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 뒤 또 요사를 세웠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1년 1월 28일 소실되었다.

암굴은 동벽 약2m 높이에 10개의 자그마한 홍역형(넓이 36㎝ 길이 45㎝ 높이 48㎝)의 구멍이 파여 있는데 이는 1922년 백학명 선사가 16나한상을 안치하려고 좌대로 천각한 것인데 봉안하려던 전날 밤 난데없이 물이 나오는 바람에 나한전에 그대로 봉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불출암은 완전한 동굴이 아니라 암벽 밑에 천연으로 형성된 반로반굴형의 공간이다(넓이 7.6m 중간넓이 11.6m 길이 1.8m 높이 4.8m).

◑ 석란정지

벽련암 우측 서래봉 탐방로로 100m쯤 올라가다 보면 우편에 넓다란 암대가 있다.

옛날에는 암대위에 향기로운 석란이 피어 학명선사가 좌선하던 곳으로, 이곳에 석란정을 세우기로 하고 지방인사들이 석란계를 조직했으나 학명선사가 타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36명의 계원명단만 서편암벽에 석판으로 붙어있다.

또한 조선말기 유림들이 모여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고 원수를 갚을 것을 맹세했던 서보단이 있던 곳이었다.

지금은 정자나 석란은 없고 암대위에는 「석란정」이라는 몽련당 김진민의 필적이 새겨져 있을 뿐 석란은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없다.

◑ 신선문

금선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대문의 형상을 갖춘 암석이다. 고대 신선들이 신선폭포에서 목욕을 한 후 이문을 통하여 우화등천 하였다고 한다. 등선문 또는 용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신선동의 관문이 되는 곳이다.

◑ 용굴

용굴은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있던 책들을 옮긴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금선계곡내 기름바위 못 미쳐 오른쪽 절벽 위 까치봉으로 오르는 산 벽위에 암굴이 있으니 이곳에 용굴암이 있었다(넓이 8.5m 길이 8m 높이 2~2.5m).

안의의 난중일기에 의하면 선조 25년(1592년) 7월 1일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용과 전주사고 전적을 맨 처음 피난시킨 곳이 용굴암이며 안의 손홍록 혹은 경기전 참봉 오희길이 지키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3월이 지나서 9월 28일 더욱 안정한 곳을 골라 보다 험중한 비래암으로 옮겨졌다고 전하고 있다.

◑ 보화교 교당

정해마을 내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옛 보화교 교당으로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축조하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새암바다 상징우물

우물은 정읍시 남쪽 신정동 정해마을에 예부터 있던 정(井)자형 우물로 '큰새암'이라고 불려왔다.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근래까지 가정에는 우물이 없었으며, 100 여 가구 규모의 큰 마을에서 생활용수를 오직 이 우물에 의존했으므로 우물 이름도 큰새암이라 불렀다.

1973년 새마을 사업으로 원 자리에서 우측으로 약 50m 정도 옮겼으나, 1994년 7월에 원래 자리로 복원하고, 주변에 기와 담장을 설치했다.

참고로 정해마을은 남쪽으로 삼성산, 서남쪽으로



입암산, 동쪽으로 내장산을 접하고 있는데, 마을형세가 풍수상 행주형이라고 한다. 즉 마을 한가운데에 집을 짓거나 가정마다 우물을 파면,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배가 침몰한다는 생각으로 근래까지도 유일한 우물인 큰새암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2) 무형문화자원

◑ 송죽마을 유래

송죽(松竹)마을은 내장산 불출봉 아래 내장저수지(內藏貯水池)에서 동남쪽으로 2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솔터(松竹), 대숲골(竹林), 동석(銅錫)의 합성 지명이다. 송정(松亭)의 '송(松)' 자와 죽림의 '죽(竹)' 자를 따 송죽(松竹)이라 불린다.

진주 강씨(晉州 姜氏)가 먼저 터를 잡고, 나중에 광산 김씨가 이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나, 현재는 고흥 유씨가 주성(主姓)을 이루고 있다.

《구 한국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舊 韓國 地方行政區域 名稱一覽)》에 정읍현(井邑縣) 동면 송정리(松亭里)로 기록되어 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자료에는 쌍암리에 죽림(竹林)과 송정(松亭)마을 명칭이 보인다.

◑ 덕흥리 당산제(대가마을 당산제)

대가마을 당산제와 관련하여 자료 및 청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실체 및 증언을 구하지 못하였다. 다만 인근 마을인 복흥면 덕흥리(현 봉덕리)에서 당산제를 하고 있으며, 덕흥리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대가리와 합하여 봉덕리로 법정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에 덕흥리 당산제를 대가마을 당산제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한편 덕흥리 당산제는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덕흥리 마을에서 치뤄지고 있다. 마을 입구에 1.3m 높이의 선돌과 아름드리 당산나무숲인 당산이 두군데 있다.

음력 2월 초하루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줄을 꼬아 만들고, 풍물패와 함께 마을을 돈 다음 꼬아놓았던 줄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마을 입구의 입석에 줄을 감아주고, 웃당산과 가운데 당산에서 제를 지내며 음복을 한 다음 굿판을 벌여 마을의 풍년과 화합을 기원한다.

◑ 장군바위 전설

장군바위와 관련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내장산 중턱에 작은 암자가 있었고, 법사와 상좌 두 사람이 불도를 닦고 있었다.

법사는 매일 밤 상좌 몰래 어디를 다녀오곤 했는데, 이를 궁금하게 연긴 상좌는 어느날 법사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다. 상좌가 몰래 따라가 보니, 법사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가서 그 바위를 한 손으로 가뿐히 들고 바위 밑에 고인 물을 떠 마시고 있었다.

법사가 아무리 힘이 장사라지만, 장정 수 백명이 함께 들어야 할 바위를 들어올리다니 신기하기만 하였다. 상좌는 바위 밑에서 나오는 물이 필연코 힘을 얻는 약물이라고 판단하여, 법사 몰래 대나무 빨대를 만들어 물을 마시게 되었다.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마셨더니 과연 골격이 커지며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법사와 같이 한 손으로 바위를 들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상좌가 몰래 물을 마시게 된 것을 알게된 법사는 노발대발하였고, 상좌의 힘을 시험하기로 하였다. 법사는 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던지고, 상좌는 산 아래에서 법사가 던지는 바위를 받기로 하였는데, 힘이 세진 상좌는 법사가 던지는 바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때 상좌가 받아서 주변으로 던진 바위가 수없이 밭에 흩어져 박혀 있었는데, 논으로 개간하면서 바위들을 깨고 옮겼으나, 지금도 2~3개의 큰 바위가 남아있어 장군바위라 명명되고 있다.

대가마을 세선바위 전설은 자료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때, 아마도 이 장군바위에서 유래한 입석에 대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 자포마을 당산제 및 선돌

이 선돌은 자포마을의 번영과 풍요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자포마을 주민들은 이 선돌을 정성껏 섬김으로써 마을에 재앙이 없길 바라고 있다.

자포마을에는 할아버지 선돌과 할머니 선돌이 있다. 할아버지 선돌은 마을 앞산의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해 세웠고 할머니 선돌은 마을 뒷산의 음기(陰氣)를 누르기 위해 세웠다고 전한다.

아들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선돌에 정성껏 빌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매년 음력 2월 초하루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선돌에서 지내고 있다.

이 당산제는 당산제 전형의 형식과 절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간소화 된 형태로 남아있지만 공원 인근 지역에서 행해지는 유일한 당산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정해마을 지명유래

정유왜란에 왜장 소조천륭경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새재'를 넘어 가려고 이 곳 '샘 바다'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왜군이 몰려온다는 바람에 피난민들이 입암산성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 어떤 술사가 그의 술법으로 왜군을 방어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술법으로 별안간 새파란 바다를 이루어 창파가 물결치도록 만들었다. 피난민들은 모두 신기하게 여겨 안심하게 되었다. 왜군이 이곳에 다다라 뜻밖의 바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한 왜군은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니 바다가 아닌 육지였다. 왜군은 이것이 필시 어떤 사술의 조화라고 깨닫고 그대로 행군하였다. 안심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던 많은 피난민들은 불시에 밀어 닥치는 적군에 여지없이 화를 입고 말았다 한다. 이로부터 정촌(井村)이란 이름은 정해(井海)로 바꾸어져 부르게 되었다 한다.

◑ 부부나무 이야기

정해마을 입구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서로를 얼싸안고 자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3백여년동안 가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며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무를 부부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조선 숙종 2년에 안윤형이란 사람은 아들 4형제가 병과에 급제하자 큰 잔치를 열고 우물가에 기념으로 이 부부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부드럽고 자애로운 여성을 상징하는 버드나무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남성을 상징하는 팽나무가 서로 끌어안은 형태가 특이하다. 부부나무의 모습을 마치 행상나간 남편이 무사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백제가요 정읍사의 애절한 내용과 흡사하다. 부부나무의 효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해마을은 부부가 백년해로하고 금실이 아주 좋아 아직까지 이혼한 가정이 없다고 한다.

백 암 산

1) 유형문화자원

◑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보물 제1346호)

백양사 26대 주지였던 소요대사의 승묘탑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가, 2002년 9월 25일 보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질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높이 160cm 둘레 280cm 직경 100cm로 되어 있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석종형 부도로 지대석과 기단부는 8각으로 되어 있다.

탑신부와 상륜부를 하나의 몸체(석재)로 구성하여 상륜부 정상에 여의주형 보주를 마련하고 사방에 용두를 배치하여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으로 구성하였고 용두 사이에는 소용돌이치는 구름무늬를 볼륨 있게 장식하였다. 정상의 여의주형 보주 상단에 원형의 작은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또 하나의 작은 부재를 결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탑신부 중앙에는 장방형의 구획을 두어 "소요당(逍遙堂)"이란 당호를 음각으로 종서하였다.

위패형 장식의 좌우 유곽아래에는 구름에 싸인 두 마리의 용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으며 후면에



도 한 마리의 용을 배치하여 모두 3마리의 용이 탑신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두 줄의 굵은 돌출선으로 구획된 하대에는 전면에 거북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양각하고 그 좌우로 돌아가면서 귀면 게 개구리 거북 파도문 운문 등을 장식하였다.

풍화로 인하여 탑신 좌우측의 조각이 상당부분 떨어져 나가 있다.

◑ 장성 백양사 백학봉(명승 제38호)

백양사는 632년(백제 무왕 33)에 여환선사가 백암사로 창건하여 5차례의 중창을 거치면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1034년(고려 덕종 3) 중연선사가 재창하면서 사찰명을 정토사로 바꾸었다. 이 내용은 정도전이 지었다고 전하는 백암산정토사교루기(白巖山淨土寺橋樓記)에 "이 산은 암석이 모두 흰 빛을 띠고 있어 백암이라 하였으며 장성군 북쪽 30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한때 폐사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서산대사 유정의 수제자인 소요대사의 출가와 휴정의 4세 법손인 환성선사와 그의 문손들이 머물면서 더욱 탄탄한 도량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일제시대 사찰령에 의하여 시행된 30본산제도를 통하여 송광사 / 대흥사 / 선암사와 함께 전라남도 지역의 본산으로 지정되었다.

백양사 출신으로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한 서옹스님이 주석한 이후 80년대부터 추진해온 불사 끝에 총림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1996년 3월 31일 고불총림으로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백학봉은 암벽이 하얀 빛을 띠고 있고 백학봉 아래 학바위가 있어서 백학(白鶴)이란 이름이 붙었다. 백양사와 더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일찌감치 인정받아서 대한 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백양사와 백학봉은 그 경관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식생 생물자원의 보고로 인정받아서 2008년 2월 5일 국가 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 장성 백양사 고불매(천연기념물 제486호)

백양사고불매는 백양사 우화루 옆에 서 있는 매화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8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알려지기로는 1700년 경부터 백양사의 스님들이 매화나무를 심고 가꾸어왔는데 19세기 백양사의 위치를 이전할 때 지금의 자리에 백매와 홍매 한 그루씩을 심었다고 한다.

그 중 백매는 고사되고 홍매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1947년 백양사가 고불총림을 결성하면서 이 홍매에게 고불을 닮았다 하여 고불매란 이름을 붙여줬다고 전한다.

◑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9호)

백양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상은 서방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여래를 구현한 상으로 장대한 체구에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불상이다.

이 불상은 2005년 2월 발견된 복장물에서 1741년(영조 17) 명부전의 시왕상 중수와 함께 개금불사를 시행했다는 복장기(26×129cm)가 나왔다. 이로써 이 불상이 17세기 전반기(또는 16세기 후반)에 조성되어 1741년에 개금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목부분과 양 어깨부위와의 연결부분이 매우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둘째 깊게 파인 U자형의 옷주름과 가슴중앙에 일자형으로 가로 지른 3조의 띠주름 위에 연화문 장식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양 어깨에 나타나는 Ω자형의 옷주름과 무릎 밑으로 펼쳐진 Ω자형의 군의자락 불상의 앉은 자세가 거의 직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17세기 전기에 제작된 불상이 많지 않기에 이 불상은 당시의 시대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아미타회상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

백양사 극락전에 봉안되었던 조선시대의 아미타회상도이다. 1775년에 제작된 후불탱화로서 보기 드문 대형 작품이다.

탱화에는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 / 여섯 나한 / 사천왕 / 건달바 / 긴나라가 묘사되어 있다.

화면은 상하 2단으로 크게 구분하여서 상단의 아미타여래는 하단 중앙에서 시작되는 높은 불탁 위에 연꽃을 깔고 가부좌한 모습이다.

부처의 주위에는 네 보살과 나한 긴나라와 건달바가 앞의 인물상들에게 가려져 머리만 묘사되어 있다. 하단에는 사천왕과 네 보살이 부처의 조금 옆쪽에서 앞에서부터 크게 자리 잡고 서있다.

이 불화는 부처를 중심으로 정확한 좌우대칭구도이지만 각 인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다르고 서로 대화를 하는 듯이 자유롭게 그려져 있는 특색있는 탱화이다.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화의 색감과 구도를 갖고 있으나 후대에 여러 곳에 덧칠을 함으로써 작품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 백양사극락보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호)

백양사 극락보전은 정면3칸 측면 3칸의 규모를 가진 다포양식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극락보전은 '극락정토'를 상징하며 서방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는 건물이다. 극락보전은 선조7년(1574)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건축양식이나 형태로 보아 영·정조 시대 만들어진 건축물로 보이며,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백양사의 역사에서 보듯이 정토사 혹은 정토정사를 표방한 경우가 많아 아마도 이 극락보전이 백양사의 주 금당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옛 건축양식의 원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매우 귀중한 역사자료이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32호로 지정되어 있다.

◑ 백양사 대웅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

백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를 가진 다포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이다. 대웅전은 원래 '큰 영웅의 집'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큰 영웅 즉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신 건물이다. 대웅전의 경우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협시보살인 문수와 보현보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관음보살을 둔 이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내부는 우물바닥과 우물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천장 닫집 주위에는 조그만 청룡, 황룡, 비천, 청학과 백학을 탄 선인들이 날고 사슴과 봉황 등이 모빌처럼 앙증맞게 매달려 보는 이의 이채를 띠게 만든다. 백양사 대웅전은 1919년 만암선사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43호로 지정되어 있다.

◑ 백양사 사천왕문(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44호)

백양사 사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사천왕문은 주로 사찰의 초입에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상을 세워 만든 문이다. 사천왕은 불국토의 사방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으로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인데 각각 비파, 용과 여의주, 보검, 탑을 가지고 있어 구별된다. 백양사 사천왕문은 1919년 대웅전이 조성 됐을 때 같이 세워졌으며, 구례 화엄사, 장흥 보림사의 사천왕문과 함께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44호로 지정되어 있다.

◑ 장성 백양사 각진국사복구진영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0호)

이 진영은 팔상탱화와 함께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반환된 것이다.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가로 85cm, 세로 131cm이고, 얼굴부분은 물에 얼룩져 번진 흔적이 심하고 전체적으로 박락된 곳이 많아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불화기에 의하면 道光 5년, 1886년에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각진국사 각엄(覺嚴) 복구(復丘)는 명문대가인 고성 이씨 집안에서 충렬왕 때의 명신 이존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8세에 백양사에서 불가에 입문한 뒤 산수 간에 유유자적하며 수도에만 정진하였다. 후일 문도들의 도움을 받아 퇴락



한 백양사를 중건하였고,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져와 백양사에 봉안하게 하였다. 그림에 표현된 각진국사는 검정의자에 걸터앉아 향 좌측을 향하여 약간 측면으로 그려져 있으며 청색 법의와 빨간색 가사를 걸치고 긴 불자를 왼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얼굴은 짧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있고, 가늘고 긴 눈과 눈썹의 끝이 강하게 꺾인 형태로 표현되어 엄숙한 인상을 준다. 스님의 앞으로는 거칠고 뾰족한 바위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심하게 굽은 소나무 줄기가 상단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다.

◑ 청류암 관음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79)

청류암은 백양사에 소속된 암자로 1350년(충정왕 2) 각엄왕사(覺嚴王師)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곳 청류암은 마음을 청청한 맑은 물에 비유하여 청정무구한 심성으로 선(禪)에 들어라하여 청류암이라 하였다 한다.

이 암자에서는 백양사 제15대 주지 청수선사를 비롯하여 제25대 환양선사 제26대 소요대사 제35대 도암선사 제43대 금해선사 제47대 환웅선사 제50대 만암대종사(1930~1942년)에 이르기까지 백양사의 고승대덕 스님이 주석하여 선도를 이룩한 청정도량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남천감로 각자와 장군샘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공주 우금티에서 패배한 후 장성지역으로 숨어들어 왔는데 입암산성에서 재기를 노리다 관군을 피해 백양사 청류암에서 하루 동안 기거하였다고 한다. 이때 청류암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너무나 맑고 시원해 '남천감로'라는 글을 바위에 새겼다고 전해진다.

현재 남천감로 각자가 남아 있고 주변에 샘이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이 이를 장군샘으로 부르고 있다.

◑ 봉황대 각석

바위 암벽에 새겨진 봉황대 각석은 '봉황대'라는 명문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문이 가운데 새겨있고 주위에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석의 조성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몇몇 각석에서 보이는 간지로 보아 1890년대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백양사 탄생상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 이 탄생상은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대좌 높이 9cm 불상높이 22.5cm, 폭 8cm이다. 상의는 입지 않았고 하의만 입고 있다. 통통한 얼굴에 낮은 육계머리와 합쳐져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대좌는 앙련과 복련이 중대석이 없이 이어진 모습이다. 목이 아주 짧고 등이 구부정한 모습에서 조선시대 작품으로 보인다.

◑ 신소 사천왕상 기실비

신소 사천왕상 기실비(新塑四天王像記實碑)는 1925년 7월 백양사 사천왕문에 소조의 사천왕상을 새로 모신 기록을 적어 놓은 비다. 이 비의 전면에는 신소사천왕상기실, 뒷면에는 시주자 108명의 이름, 좌측면에는 관련 스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비문은 만암스님이 썼으며 비신의 폭은 47.5cm, 두께 27.5cm, 높이 141cm이다.

◑ 백양사 청류암관음전후불탱화

백양사 청류암 관음전의 후불탱화인 이 불화는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붉은 색조에다 구름이나 옷자락 사이에 진한 청색을 사용하였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그려진 이 삼불회도는 가로 139cm, 세로 166cm의 크기로 화기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인 광서(光緖) 19년(1892)에 장성 백양사 청류동 기봉암(岐鳳庵)에서 조성하여 관음전에 봉안하였다고 되어있다.

◑ 국제기각자

국제기 자는 옛 국기단 터를 알려주는 각자로 바

위에 세로로 '國祭基(국제기)'라는 글자가 2행 새겨져 있다.

각자를 새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61년(헌종 2)에 국기제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아마도 국기제와 국기단이 사라진 후 그 위치를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 새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기양연각자

기양연 각자는 백양사에서 약사암으로 가는 탐방로 좌측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바위에는 奇亮衍, 山人桂煥(기양연, 산인규환)이 세로로 두줄 새겨져 있고, 아랫쪽 바위에 長春洞天 耕叟烟霞 (장춘동천 경수연하)란 글자가 세로로 두줄 새겨져 있다.

두 각자의 서체가 달라 같은 시기에 새겨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종 때 정읍현감이 기양연과 백양사의 고승인 도암의 제자인 규환의 이름과 신선사상이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다.

◑ 만암당부도

이 부도 역시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서 앞서 살핀 소요당 부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작품이다. 8각 지대석 부분이 매몰되어 있는데, 지대석 상면에서 보주까지의 총 높이는 175cm이고 종신(탑신)부분의 최대둘레는 285cm이다.

지대석 위의 기단부 역시 8각인데, 측면의 앞쪽 모서리에는 기어오르는 형태의 거북을 좌우로 배치하였고 후면에서도 한 마리의 거북을 두었다. 그리고 각 면에는 간략화 되고 변형된 화문을 장식하여 소요당 부도의 장식문양과는 비교가 된다. 기단부 상면은 볼륨이 풍부한 8엽 복련과 간판을 장식하였고 그 위로 1단의 호형(弧形) 괴임을 마련하여 종형탑신을 받고 있다.

이 부도의 주인공은 법명이 종헌(宗憲)이며 법호(당호)가 만암이다. 속성은 송씨로 고종13년(1876) 고창에서 출생하였다. 11세에 백양사에서 출가하여 교선을 두루 공부한 후 1914년 백양사 주지로 선임되어 중건불사를 이루었다.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불교전수학교(현 동국대학교 전신)와 광주의 정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952년 조계종 종정에 추대되었으며, 1956년 입적하였다.

◑ 백양사 나반존자상

나반존자는 독성(獨聖)이라고도 하며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을 말하는 것으로 백양사의 나반존자상은 십육나한상과 마찬가지로 1925년에 이만총(李萬聰)이 조성하였다. 소조상으로 높이 42cm, 가로 42cm, 세로 33cm의 크기이다. 십육나한상과 그 표현방식이 매우 흡사하다.

◑ 백양사 대웅전독성탱화

가로 130cm, 세로 158cm의 크기로 장지에 채색하여 그렸다. 1926년에 대웅전 후불탱화를 그렸던 금어 봉영(奉榮)과 화사(畵師) 춘화(春化)가 제작하였다. 폭포가 흘러내리는 험준한 바위산이 빽빽이 들어찬 언덕에, 두 동자를 거느린 나반존자가 앉아 있다. 나반존자는 붉은 해무리 모양의 두광을 가지고 있고, 턱밑까지 내려오는 긴 눈썹, 구레나룻 수염이 표현되어 있다.

독성의 얼굴은 움푹 들어간 눈으로 인해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손에는 긴 석장과 염주를 들고 있으며 언덕 사이에 아름다운 꽃과 불로초 등이 그려져 있다. 조사가 앉은 언덕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몇 그루 자리 잡고 있는데, 언덕을 흘러내리는 반복된 선과 소나무 가지의 동일한 형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어서 도식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백양사 대웅전신중탱화

대웅전의 향우 측 정면 벽에 걸린 신중탱화는 가로 210cm, 세로 290cm로 비단에 채색 된 그림이다. 이 불화는 대웅전 후불탱화와 함께 1922년에 그려진 것으로, 후불탱화보다 초록색의 사용을 줄이고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여 그렸다. 일반적인 신중탱화와는 달리 범천과 제석천, 위태천왕 등이 상단에 흩어져 크게 그려져 있고, 많은 신중들이



대략 4개의 단으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다. 앞의 후불탱화와 마찬가지로 화면 하단부터 그 크기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작아져서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금어는 봉영(奉榮)이다.

◑ 백양사 대웅전후불탱화

후불탱화는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그리고, 6대 보살과 사천왕 그리고 10대 제자가 3단으로 나뉘어 그려진 영상회상도이다. 장지에 채색을 하였는데 가로 320cm, 세로 350cm이다. 향 좌측 하단에 실린 불화기에 의하면 불기(佛紀) 2949년(1922)에 금어(金魚:탱화제작의 우두머리) 봉영(琫榮)과 재명(再明)이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불화는 전체적으로 초록색과 빨강색조로, 약간의 옷자락과 먼 하늘 표현에 청록색을 사용하였다. 중앙의 석가모니는 꽃무늬 단이 달린 빨강색 법의를 입고, 대좌 위에 앉은 모습으로 둥근 얼굴이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이 두 개의 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두광은 진한 초록색을 칠하여 부처의 정상 계주에서 발산하는 빛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신광은 중앙 하단에서 부챗살 모양의 파상선을 긋고 선 안쪽에 빨강, 파랑, 초록 등 장식적인 색을 칠하였다. 이것은 조선 말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주변의 성중들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이 가장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크기로 배치하여 점점 멀어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제일 하단의 양쪽 끝에 위치한 두 천왕은 갑옷을 입고 매우 건장하게 그려져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손의 모습 등이 어색한 편이다. 만암스님은 1916년에 쇠락한 백양사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대중창 불사를 계획하였다. 1926년까지 백양사를 증축하였는데, 그 증축때 이 불화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채색과 구름 등의 표현에서 20세기 초기 작품의 특성이 보인다.

◑ 백양사 기적비

전면과 뒷면만 각자가 되어 있다. 전면에는 전서체로 「백양사기적비명」이라는 비액이 가로로 새겨져 있고, 비제 역시 「백양사기적비명」이나 글씨는 세로로 쓴 행서체이다. 뒷면에는 백양사 창건연대 · 창건주 · 주지 · 동역 · 본사조연 · 제산조연 · 제산사중 · 단신조연 등을 새겼다.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1892~?)가 찬하고, 글씨는 성당거사 김돈희가 쓴 것이다. 1926년에 세운 이 비는 크기가 높이 210.5cm, 폭 74.5cm, 두께 39.5cm이다.

◑ 백양사 극락보전신중탱화

이 불화는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가로 200cm, 세로 135cm이다. 하단중앙의 불화기에 의하면 光緖十九年 壬辰年에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광서 19년은 1893년이고 임진년은 1892년 이어서 1년의 차이가 나지만 간지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892년에 청류암에서 조성하여 극락전에 봉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면은 진한 청색의 하늘바탕에 구름이 둘러 쌓인 천중이 2개의 단을 이루고 나타나있다. 하단은 여러 신중들이 자리하고 있고, 상단은 범천, 제석천, 위태천왕 등이 자리하여 하단보다 그 크기가 더 크다.

◑ 백양사 양악선사비

양악당(羊岳堂) 계선(啓璇)(1697~1783) 선사의 비석이다. 전면 상단에 전서로「양악선사비명」이라는 비액(碑額)을 새기고 그 좌측에 세로로 「양악선사비명병서」라는 비제를 해서로 새긴 다음 비문을 새겼다. 비문은 우측면으로 이어진다. 뒷면에는 11단에 걸쳐 8세까지의 사법(嗣法)을 새겨 놓았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82.5cm, 폭 58.5cm, 두께 30.7cm이다. 1935년에 세운 이 비석은 염재거사 송태회가 찬하고 글을 썼다.

◑ 백양사 화엄종주연담당대사비

화엄종주 연담당(蓮潭堂) 유일(有一)(1720~1799) 대선사의 비석이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72cm, 폭 72cm, 두께 30cm이다. 전면에 가로로 「연담당대선사비명」이라는 비액을 새기고, 그 좌측에 세로로 「화엄종주연담당대사비명병서」라는 비제에 이어 비명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화엄종의 내력과 연담의 행장과 저술을 비롯하여 비를 세운 내력을 적고 이어서 제산(諸山)의 조연(助緣)과 당시의 문도의 이름을 새겼다. 문도의 이름은

좌측면으로 이어진다.

1927년 3월에 세운 이 비는 난곡거사(蘭谷居士) 이건방(李建芳)이 찬하고 성당거사(惺堂居士) 김돈희(金敦熙)가 글씨를 썼으며, 새긴 사람은 한선장(韓善章)이다. 그런데 이 비는 원비가 아니나 전면의 비명은 옛 비석 그대로인 듯하고, 뒷면의 글은 정호 박한영이 새로 추가한 것이다. 비액은 전서이고, 비명은 행서이다.

◑ 백양사 모운당부도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이며, 높이는 128cm이고 둘레는 214cm 이다. 8각 기단석(가로 83cm, 세로 80cm, 높이 12cm) 위에 종형 탑신을 올렸다. 기단석 측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윗면에는 부분적으로 복련의 연화문 장식이 장식되었으며, 1단의 호형괴임을 마련하여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에는 두 줄의 굵은 선으로 상대와 하대를 구획하여, 상대 내에는 6자의 범자문을 장식문양으로 새겼는데 범자문이 상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조선 후기 범종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하대에는 두 마리의 거북과 한 마리의 자라와 게를 조각하였다. 상대와 하대 사이에는 4구의 유곽을 마련하였는데, 유곽이 상대에서 분리되었으며 사다리꼴이 아닌 장방형 모양이다. 유곽 안에는 연봉형 종유가 돌출되어 있다. 전면에 선각으로 위패형 장식(가로 10cm, 세로 38cm)을 마련하여 "모운당"이란 당호를 종서로 음각 하였다. 천판부에는 복련을 장식하고, 그 위의 상륜시설로는 돌출된 연주문띠 위로 앙련이 중첩된 연봉형 보주를 올렸다.

모운당은 법명이 진언(震言)이고 속성은 정씨이며 진양(晉陽) 사람이다. 광해군 14년(1622)에 태어나 숙종 29년(1703) 입적하였다.

◑ 백양사 무가당부도

이 부도는 석종형 부도로서 규모는 높이 150cm이고 둘레는 261cm이다. 팔각형의 기단석(가로 97cm, 세로 88cm, 높이 29cm) 위에 종형 탑신을 올렸다. 기단석 윗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나, 전면과 측면에는 선각으로 앙련을 장식하였는데 후면에서는 생략되었다. 종형 탑신에는 전면에 2단의 장방형 구획(가로 20cm, 세로 42cm)을 마련하여 "무가당"이란 당호를 종으로 음각하였는데, 자경은 8cm 내외이며 깊이는 0.5cm 정도이다. 천판부에는 19엽 복련을 선각으로 조식하였고, 상륜시설로는 연주문 돌기대를 돌린 다음 중첩된 앙련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연봉형 보주를 올렸다. 이 부도의 조성 시기는 17C말 이후로 추정된다.

◑ 백양사 서운당부도

이 석종형 부도는 서부도전의 부도 중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서, 크기가 110cm이고 둘레는 152cm 이다. 규모는 작으나 세부양식은 무가당 부도나 모운당 부도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8각으로 다듬어진 기단 위에 종형탑신을 올렸는데, 기단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탑신 역시 두 줄의 굵은 돌출선으로 상대와 하대를 구획했을 뿐 별다른 장식은 없다. 부도의 형식이 모운당 부도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아 17C말 이후로 생각되어 진다.

◑ 백양사 영월당 부도

이 부도 역시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서, 규모는 총고 171cm이고 둘레는 225cm이다. 6장의 석재로 이루어진 방형의 지대석(가로 172cm, 세로 162cm) 위에 놓인 8각 기단석(가로 94cm, 세로 88cm, 높이 36cm)은 방형의 석재를 모줄임한 형태로서 8면중 4방 모서리면의 길이가 전후면과 측면에 비해 짧다. 8각 측면에는 연봉형 장식과 변형된 화문이 장식되었는데, 후면은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다소 파손된 상태이다. 기단 상면은 복련을 장식하였으나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었고, 1단의 각형 괴임 위에 종형 탑신을 안치하였다.

탑신에는 상대와 하대, 유곽 및 위패형 장식이 마련되었다. 상대에는 전면의 연봉형 장식을 중심으로 범자문을 돌렸다. 상대와 연결하여 4구의 유곽을 설치하였는데, 내부에는 화판받침 위에 종유를 배치하였다. 전면 중앙의 상대와 하대 사이에 위패형 장식(가로 19cm, 세로 48cm)을 양각하고 구획하여 그 안에 "영월당"이란 당호를 세로로 음각하였다(자경 5~6.5cm). 하대는 탑신 하단에서 20cm 정도 올라와 두 줄의 굵은 돌출 선으로 구



획하였는데, 그 내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천판부에는 12판 복련의 연봉형 간판을 조각하였다.

상륜시설로는 여의주를 움켜진 4마리의 용두를 장식하였는데, 전면의 용두가 나머지에 비해 훨씬 크게 묘사되었고, 소요당 부도나 만암당 부도와는 달리 용의 머리가 정상쪽이 아닌 아래쪽을 향하도록 조각하였으며, 용두부분의 조각이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다. 정상부분은 소용돌이치는 구름 형태로 마감하였다.

이 부도의 주인공인 영월당 경문(鏡文)은 설두 봉기(雪竇 奉琪: 1824-1890)의 동문 형제이므로, 이 부도의 조성시기도 19C말 이후로 추정된다.

◑ 백양사 지백당부도

이 부도 역시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서 앞서 살핀 慕雲堂 부도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규모는 총고 160cm이고 둘레는 242cm이다.

여섯 장의 석재로 이루어진 방형 지대석(가로 155cm, 세로 164cm) 위에 2단의 8각기단부를 마련하여 종형 탑신을 올렸다. 2단의 기단부에서 하단을 보면 윗면의 동서남북 사방에 거북을 한 마리씩 배치한 것 외에는 특별한 장식은 없다. 상단은 비교적 잘 정돈되고 볼륨이 있는 16엽 복련을 배치하였는데, 8각 모서리의 복련 화판은 크고 그 사이의 화판은 좀 더 작게 표현되었다. 탑신부의 장식을 보면, 상 · 하대의 구획과 4구의 유곽시설 및 위패형 장식을 보인다. 상대에는 구름무늬 사이에 법자문과 卍자문을 양각으로 새겼다. 상대와 하대 사이에 마련된 4구의 유곽은 방형이며, 화판받침 위에 돌출된 종유를 표현하였다. 하대내에는 장식이 없으나 하대를 구획하는 위쪽 돌기선상의 측면과 후면에 화문을 장식하였다. 전면 중앙에 위패형 장식을 마련하였는데, 하단에는 앙련좌 위에 장방형 구획(가로 15.5cm, 세로 25.5cm)을 마련하고 여의두문 형태의 이수(이무기)형 옥개석을 묘사하였다. 장방형 구획 내에는 다시 1단의 장방형 구획(가로 10cm, 세로 21.5cm, 깊이 0.5~1cm)을 만들어 "지백당"이란 당호를 세로로 음각하였다(자경 3.5cm 내외). 천판부에는 26엽 복련을 볼륨 감 있게 조각하였다. 상륜시설로는 돌출된 연주문띠를 돌리고 앙련이 중첩된 커다란 연봉형 보주를 올렸다.

이 부도의 조성 시기는 모운당 부도와 거의 동일한 시기로 추정된다.

◑ 백양사 화담선사비

화담당(華曇堂) 법린(法璘)(1843~1902) 선사의 비석이다. 비좌 전면 116cm, 폭 90cm, 높이 12cm에 다시 전면 100cm, 폭 69cm, 높이 12cm에다시 전면 100cm, 폭 69cm, 높이 34cm의 2중 비좌에 전면 61cm, 두께 32cm, 높이 165cm의 鳥石으로 만든 비신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전면 105cm, 측면 72cm, 높이 50cm의 비갓을 올려 마감하였다.

전면에는 가로 7cm, 세로 9.5cm 크기의 「화담선사비」라는 비액이 있고, 세로로 「화담선사비명병서」라는 비제에 이어 사의 행장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5세 법손까지의 문도질이 4단에 걸쳐 새겨져 있다. 전면의 비문은 영호정호가 찬하고 염재거사(念齋居士) 송태희(宋泰會)가 글씨를 썼다. 불기 2966(서기1939)년 3월 14일에 세웠다. 양 측면에는 각자가 없다.

◑ 백양사 명부전 지장삼존 시왕상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 그리고 시왕(十王)및 사자(使者), 판관(判官)이 모셔져 있다. 지장보살은 높이 110cm이고, 폭 77cm로 앉아있는 모습이다. 도명과 무독귀왕은 입상으로 높이 144cm이다. 시왕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높이 150cm이고 지옥사자와 판관은 높이 140cm이다.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은 목조이고, 시왕상은 소조상으로 만암스님이 중창불사를 할 때 조성한 것이다. 지장 보살은 승려의 머리 형태를 가지고 얼굴 아랫볼이 부풀어 오르고 목이 거의 없는 모습이다. 손에는 아무런 지물을 들지 않고 아미타인 수인을 결하고 있다.

◑ 백양사 칠성전 칠성상

대웅전 앞에 조사전과 한 건물로 모셔진 전각이

칠성전이다. 칠성전에는 칠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일광보상(日光菩薩), 월광보살(月光菩薩), 칠원성군(七元聖君)이 조각되어 모셔져 있다. 칠성전의 본존은 근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칠성과 일광, 월광 두 보살은 소조상으로 높이가 대략 80cm 내외인데, 1880년의 작품이다. 이 칠원성군은 원래 고종 17년(1880) 경진년에 왕의 명으로 조성하여 운문암에 봉안하였다. 이후 1948년 10월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운문암에서 위험을 느껴 이곳으로 옮겨 봉안하였다고 한다. 칠원성군은 모두 문관의 복장을 한 모습으로 머리 위에 하얀색 별이 달려 있고 검은색 단이 둘러진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윗옷과 노랑, 파랑색의 내의를 입고 있다.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보살의 모습에 왕관형 관을 쓰고 있다. 머리 위에 일광보살은 빨간색의 해를 월광보살은 노란색의 달을 매달아 놓았다.

◑ 백양사 팔상탱화 3점

팔상탱화는 각각의 크기가 106cm*114cm. 104cm*114cm, 104cm*114cm이다. 백양사에서는 1987년 11월에 반환하였는데, 이 팔상탱화 3점도 반환받아 현재 백양사가 소장하고 있다. 원래 여덟 폭이었던 것을 5폭은 도난당하고, 3점만 남은 것으로『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유상출가상(逾城出家相)』이다. 모두 비단에 채색된 것으로 연대가 명시된 화기는 없다. 화면 안에는 여러 개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각 그림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빨간색 네모칸에 검정글씨로 쓰여 있다. 모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사용하고, 각 이야기의 내용을 분할된 공간 안에 그려 넣었다. 각 공간들은 구름이나 담장으로 나뉘어져 여러 가지 서술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의 경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두 시녀를 거느린 마야부인이 중앙 상단에 나타나 있는데, 그 옆에 "마야천상생도솔천래견야(摩耶天上生兜率天來見也)"라고 쓰여 있고, 커다란 대궐에는 "구중전(九重殿)", 장례식을 치르는 그림 옆에는 "호곡송언(呼哭送言)" 늙은 노인이 누워있는 곳 옆에는 "로봉노병와(路逢老病臥)", 등 부처의 생애에 있었던 주요 장면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작품의 색과 표현 형식으로 보아 19세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현재 대웅전에는 1988년에 그린 팔상탱화가 향 좌측에 봉안되어 있는데, 이 팔상탱화와는 표현형식이 다르다.

◑ 백양사 괘불지주

백양사 돌 괘불지주는 조사전과 칠성전이 있는 건물 앞에 좌우로 놓여있다. 큰 돌 하나를 깍아 내려가 두 개의 기둥으로 만든 이 지주는 높이 1m 정도이다. 최근 공사중 좌측 지주 하나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대웅전과 괘불지주와는 위치가 맞지 않다. 따라서 이 괘불지주가 쓰일 때는 지금 진영각 위치에 주 전각이 있었을 것이다.

◑ 백양사 대웅전 십육나한상

십육나한은 현세에서 정법(正法)을 지키는 16명의 아라한(阿羅漢:수행자의 최고 이상 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양사 대웅전의 십육나한상은 1925년 공시찬(孔施贊)이 조성한 것으로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각각의 나한은 하나의 나무에 조각하여 의복과 표정을 모두 다르게 처리하였다. 얼굴의 주름과 목 힘줄, 웃는 표정과 빠진 이까지 세세하게 묘사하였으며, 옷자락에 비단 무늬까지 섬세하게 그려 넣은 좋은 작품이다.

◑ 백양사 불사리탑

백양사 불사리탑은 대웅전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형의 하대석위에 연꽃을 장식한 엔타시스형 석주로 중대석을 삼은 8층 석탑이다. 탑은 본디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무덤으로, 홀수 층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나 이 탑은 짝수인 8층으로 되어 있어 불교의 8정도(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를 상징한다고 한다. 이 탑은 일본의 홍법(弘法)(774~835)대사가 天竺(지금의 인도북부)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백용성(白龍城)(1864~1940)스님이 모시고 있다가 1924년 만암선사가 백양사에 이를 봉안하여 탑을 세웠다. 탑의 모습이 기존의 석탑과



상이하고 중대석과 탑신의 석재의 재질도 달라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탑이다. 본래 석탑은 대웅전 및 금당 앞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이 탑은 대웅전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시는 탑으로 불상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건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백양사 불사리탑비

백양사 대웅전 뒤쪽에는 일본의 흥법(弘法)(774~835)대사가 천축(天竺)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8층탑이 서있다. 그 진신사리가 어떤 경로로 백용성(白龍城)(1854~1940)스님이 모시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924년 만암 스님이 이를 이 곳에 모셨다고 한다.

백양사불사리탑비는 바로 이 불사리탑을 건립한 연기를 기록한 비석으로 불사리탑 후면 좌측에 있다. 1924년에 세운 이 비석의 비문은 만암스님이 지었고 글씨는 추사의 해서체를 집자한 것이라고 한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76cm, 폭 76cm, 두께 21.5cm이다.

그런데 이 비의 좌측면에 보면 원래의 위치는 불사리탑 앞에 있었고, 또 비면의 소중한 기문과 방명이 풍우로 금이 가고 마모되어 글자가 심히 훼손되어 개탄을 금치 못해 다시 새겼다고 한다. 그리고 좌측면에 보면 1934년에 다시 세웠다고 하여 불과 10년 사이에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 백양사 서향암돌탑

백양사 서향암돌탑은 백양사의 수많은 고승들의 오랜 다비장(茶毘場) 터인 서향암의 입구 오른쪽에 높이 180cm쯤 되는 소형의 돌탑 1기가 만들어져 있고 지척의 거리인 다비장 터에 또 하나의 돌탑이 조성되어 있다.

기존 돌탑이 풍수지리 및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이용하는 반면 이 백양사서향암돌탑은 스님들의 다비장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 추측된다.

◑ 백양사 오백나한상

1824년 11월에 화순 쌍봉사의 오백나한전이 무너져서 나한전 내의 불상을 백양사로 옮겨왔다. 석조나한좌상 241구, 목조나한좌상 200구, 소조나한좌상 32구 및 석조사자상(使者像) 3구, 목조수문장상 2구 등 모두 478구였다. 그중 대부분이 유실되고 남은 7점이 대웅전 향 좌측벽에 모셔져 있는데 모두 석조이다. 그들은 대략 높이 40cm내외로 표정과 자세가 매우 독특하다. 여러가지 조각방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일 것으로 보고 있다.

◑ 백양사 진영각, 칠성전

백양사 진영각, 칠성전은 다른 지역의 진영각 및 칠성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진영각과 칠성전은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으나 백양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다. 진영각, 칠성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면4칸 측면3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진영각이 정면 3칸, 칠성전이 1칸을 차지하고 있다.

진영각은 사찰의 조사 및 업적이 높은 고승의 진영을 모시는 곳으로 백양사의 진영각에는 개창자인 여환선사를 중심으로 중연선사와 각진국사 및 30여분의 고승의 진영을 모시고 있다.

칠성전은 주로 칠성각(七星閣)이라고 하는데 민간신앙인 칠성(북두칠성)을 모시는 곳으로 주로 사찰의 뒤편에 있으나 백양사는 대웅전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은 모두 1919년 만암선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시대 말 불교건축의 정형성이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 백양사 명부전

백양사 명부전은 정면5칸 측면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우물마루와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다. 명부전은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하는데 지장보살과 십왕(十王)을 모시는 건물이다. 지장보살은 원래 부처의 반열에 오른 보살인데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여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그러한 이유로 보살이지만 관을 쓰지 않고 있으며 손에 궤장이나 법륜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표현된다. 백양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 이외에 지옥을 다스리는 십왕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는데 각자의 지옥을 다스리며 사람의 평생의 선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백양사 명부전 지하에 납골당인 영각당을 지어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백양사 서향암 미타보궁 아미타여래상

이 불상은 높이 46cm로 청동으로 제작하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아미타구품의 수인을 결하고 있다. 내의의 통견을 걸치고 무릎 위가 수평으로 좁게 만들어져있다. 청류암의 불상과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백양사 청류암 아미타여래상

단정한 얼굴에 야무진 체구를 가진 이 불상은 청동으로 제작하였는데 높이는 70cm이다. 내의의 윗부분은 옷 주름이 잡혀있고 통견의 오른쪽 자락이 어깨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돌아간다. 몸에서 내려온 옷자락은 결가부좌한 다리위에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이러한 표현은 18세기 불상에 자주 보이는 특징으로, 이 작품도 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 백양사 범종루

백양사 범종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으로 된 누각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아래층은 홍살로 사면을 두르고 범종을 두었으며, 위층에는 법고, 운판, 목어를 두었다. 범종루는 대체로 불교의 불전사물인 범종, 법고, 운판, 목어를 두는 곳인데 백양사 범종루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불전사물은 소리를 통하여 만물을 구제하고 불법에 귀의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범종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고는 수소와 암소의 가죽으로 만든 북으로 들짐승을 구제하고, 운판은 구름모양의 금속판으로 날짐승을 구제하며, 목어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으며 수중생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불전사물을 두드림으로써 사찰의 시간 및 행사를 알리기도 한다.

2) 무형문화자원

◑ 중고기 이야기-구연자 : 구연자-안재운

진묵대사가 운문암 절 같은 디서 사는디. 항시 내려오면 전에는 이치왕 때지. 인자 이렇게 합창례(合掌禮)고 있어, 그저 농부고 누구한테던지 중이라는 것은 천했어요. 이씨 왕때는. 그런게 개성 도읍(1)[주]고려때를 말함.에는 중이 아주 득세도 했은 게는 말헐 것이고, 그리고 왕씨 때 중이 전부 다 종씨로 되다 시피 했어. 그리고 이 한국 때는 말하자면, 이태조 때는 중이 하대를 받았읍니다. 그런게 언제든지 산사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합장허고, 예, 안허고 가면은 그때 질(길)을 가덜 못했어. 인제 이 초군들이 있어도 그래.

[조사자: 나무꾼들?] 암만 그 또 질에 내려오다가도, 행각(行客)을 만나도 이렇게 허고 가고, 앞으로 꼭 가고 그랬어. 그런데 한 번에는 농부들이 쉬는가 봅니다. 그러자 갱변에서 괴기(고기)를 잡어 잡어갔고 인자 요새 같으면 추어탕이라고 안해요? 인자 끓여갖고 술먹고, 야단헐 땐인디 진묵대사가 내려오던 몬양이여. 내려오는디 합창 배례를 안하고 가. 그런데 벌써 알던 몬양이지, 진묵대사는 도통한 높은 중인게,

"아, 저런 중이 평민들 보고 합장도 안하고 간다고. 나쁜 중이라고 잡어 오라."

고, 그래 잡어다 놨어. 그런 국 끓여놓고 술 먹는디,

"중도 괴기 먹을 줄 아느냐?"고

그랬단 말이여.

"아이 괴기 먹지. 못 먹을 것 뭐 있냐?"

고, 국을 한 그릇 떠준게 먹었어. 아 그런디,

"중이 고기 먹는 중이 어디 있느냐?"고,

인자 실갱(殺生)이라. 인자 그럴거 아니요. 중은 고리를 안 먹는 것인데 먹는다고.



"아 그럼은, 아 내가 당신들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은게 그럼 도로 내놓을란다." 고.

"내놓으라."고 그랬어.

"그럼 내놓는다."고.

"어디 중이 괴기를 먹고 술 먹는 법이 있느냐?"

고. 인지,

"술은 입으로 토허고 괴기는 뒤로 내놓을란다."고.

인지 그런게 곡목은 기름기를 뒤로 내보낸다고 이런게로,

"내보내라."헌게,

"따라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강벤으로 갔어요. 물에로 갔어. 물어가서 쏴, 똥을 쏴 똥을 싼는디 뭔 괴기가 막 꿈틀거려. [일동: 웃음] 그것 중괴기라고 있읍니다. 여기 안고랑에 가서 본다. 산중 고랑에 가면 모다 중괴기가 있어요. 그것괴기를 보고 중괴기라 그래요. 죄다 내버리고 댕긴게 괴기가 비늘이 없어요. [조사자: 바늘이 없어요.] 응. 그 괴기가 비늘이 없어. 그런게 맛도 없어. 누리고 그것이 요 안고랑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 백양사까지 있고 그고랑 있는디 잘 안먹어요. 그 괴기를 그 중괴기라고 그 진묵대사 똥구녁에서 나왔다는 중괴기라고 그런 중입니다. 인자 웃스런 얘기를 하나 했어. [일동: 웃음]

묵중에게 시험당한 백양사 주지-구연자 : 최준성

그것도 뜬 소문인디, 지금 그 때가 인종 때나 됐던가 백양사 주지라고 있잖아? 주지라는 사람이 백락산이라고 혀. 그러니까 배가, 영번이네. 집안 되거든요. 백락산. [조사자: 백학산?] 주지로 있을 때 절에 가서 있는거래요. 어디서 꿈도 아니고 잉, 머슴살이 같이 허름한 사람이 왔어.

"절에 있을란다."

고, 그러니까 절이다가는 머슴을 두면은 묵중이라는 사람을 두거든. 묵중이라고 나무해다가 불때는 것을 묵중이여. 그러니까 그 묵중이가 거기서 나무해다가 불을 때주고 그러는디. 그 허는 행동이 이상스러워. 이상스러우니까 혼자서 헌단 말이, '어디로 보든지 꼭 도를 통헌 것만 같여.' 그래 그 사람 내력을 알기 위해서 그 묵중이 가서 자는 방, 지금 같으면 머슴, 머슴이지, 그이를(여기) 들어가서 '그러냐? 저러냐?' 물었싼게 주지한테 헌단 말이,

"아무 날은 난리가 난다."

고 그려. 아이 느닷 없이. 그러면,

"난리가 나면 어떻냐?"

"예가(여기가) 있으면은 살기가 어려운게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살 수가 있다."고.

"그럼은 그러라."고.

그런디 그러면은,

"피난 가서 먹을 것이 있어야 허지 않냐?"허니까,

"그럼은 찰떡을 해가지고 질머지고 가자."

그 소리 했더니, 그가 찰떡을 해가지고 질머지고 한동안 가니께, 큰 산이 당도허거든. 산이 당도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구름이 덮여있어. 그런디 거 가서 보니까 저 산 바위 꼭대기가.

"그 절벽인디 거기를 올라가야 산다."

헌디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이이가 뭐라고 허는게로 그 그기서 동우리가 내려오드래요. 그 위서 줄을 달아가지고 그러더니,

"그놈을 타야 헌다고. 타라."고.

[조사자: 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로 광주리 같이 해가지고 위에서 줄을 잡아 댕기면 그 바위 위로 올라가는 구럭이 내려와.

[조사자: 바위우로 산꼭대기에서.] 응. 그래서 그놈 혼자 탔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번지고 혼자 타고 저 절반쯤 올라기니까, 지금 같으면 승강기 올라가다가 중지되듯기 딱 중지가 되 번졌어.

[조사자: 중지?] 응, 가지도 않으고, 오지도 않으고, 중간에 있어. 밑으로 내려오자니 떨어져 죽겄고. 위로 올라가자니 올라갈 디가 없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서 다람쥐가 나와[조사자: 다람쥐가.] 나오더니 그 줄을 타고 내려와, 다람쥐가? 그러더니 이놈을 물어 뜯드래요, 줄을. 그러니 이러한 답답헌 노릇이 있는가. 그놈이 물어 뜯어번져 풀이 끊어지면은 땅에 떨어져 죽어번지겠

고. 위로 잡아 댕기지는 안하고.

그런디 한참 있는게로 한가락이 똑 떨어지네. 그런게 깜짝 놀래 것 아니여? 소리를 버럭질렀지. 그러사닌게 깜짝 깨어버렸지.

"네이(너의) 맴이 어찌 약혀?"

허고, 딱 뚜들드래요, 어깨를 그러고 본게 젤 반갑겄네. 그런게 이 사람이 떡 헌다 말이, "음, 이 주지라, 백양주지가 쓸만헌 사람인가 허고 내가 찾아왔더니, 맘이 너무 약허다."

고, 그석을 보니 소리쳤다고 말이여이. [웃음] 크게 쳤다고.

"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쓰것냐고. 나는 헛수고 하였으니까 가야겠다."

그렇꺼름 떠난 뒤로, 저기 저 여기 열 마지기 논 ㅂㅐㄱ이 방귀씨네 벌던 논이 있잖오? 그것 그 논을가지고 집안이 이 부락에 살아. 먼저 주고 온 이야기, 누구여. 참물동이서 배태네 게 논을 열마지기를 그 절에서,

"에 이것 허망한 세상이라."

고, 절 논 열마지기를 즈그 집안 사람을 주었어. 이 부락에 사는. 그러고 배태선이는 저 아니 배락선씨는 죽어번지고. 그 논 열마지기 산 사람이 벌어먹었다 어쩌고 팔아번지고, 종착은 여기서 굶어 죽니라 허다시피 허다 죽었어. 그런게 되지 않는구냐.

◑ 마귀들을 추방한 진묵대사-김법은

선조 초년에 진묵대사가 운문암 들어와서 佛事를 하며 茶角(차를 끊여 받치는 임무)의 임무를 봉행할 때 하루는 神衆壇(신중단)에 차를 올렸는데 그날 저녁에 신장들이 스님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하기 우리들은 호법신으로 불예를 되돌려 드립니다. 마음속이 황공하니 다각을 다른 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스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아랫동네에서 나무꾼이 올라와 하는 말이 산 아래에서 나무를 채집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녀 2인이 기쁨마음에 웃고 떠들며 운문암으로 올라가더니 돌아오는 길에는 대성통곡하고 내려오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곳을 확실히 정할 요량으로 운문암으로 찾아 갔더니 一玉(일옥: 진묵대사의 법명)이라는 중이 맹렬한 불길로 우리를 태워서 화독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였다. 스님들은 꿈을 꾼 후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자 진묵대사는 살아 있는 부처가 분명하며, 火光三昧(화광삼매)로 마귀들을 추방한 것이라 여겨 진묵대사를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불사를 다시 함에 진묵대사가 스님들에게 말하길 "내가 다시 와서 불사를 하기 전에는 불상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여 아직까지 운문암의 불상은 개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 각진국사가 곡두재를 예언하다-구연자: 혜권 스님

각진국사하고 얽혀 있는 이야기는 곡두재라고 하는데, 거기를 짤르면 삼남에 재해가 온다 거그를 꼭 짤르지 말아라. 그 글시는 나도 보기는 보았어요. 거 글씨는 동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재는 현재 짤라져 있지요. 그때 천장스님이라고 여기 주지하실 때에 그때 농림부 장관이라고 하시든가 나중에 장관으로 전출되어 가신 분이 여기 오셨을 때에 그런 말을 하시드라구요. 그러니까 왜, 광주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해였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에 그런 말을 해주지 지금사 하느냐고 했어요.

◑ 곡두재 도적-구연자: 안재운

그 분도 이름은 잊어버렸지. 내가 그러면 알아서 아무개라고 허면 되니까. {조사자: 이름은 모르드라도 거기 도적하면 이런 얘기 좀….] 그러지라요.

요근방 사는 이가, 그 여기서 한 오십 리 떨어진데 사는 분이 한분이 백양 산 산에다 묘소를 썼어요. [조사자: 묘?] 할아버지 묘를. 그런디 성묘를 와서 본게 묘소를 파버렸어. 두상(頭上)을 가져가버렸어.[조사자: 묘, 그런게 시체.] 시체 두상을 가져 가버렸어. 그 손자는 할아버지 두상을 잃고 어쩌곳소? 그것 찾아야지. 그것보고 수박장사라 그랬다오. [조사자: 수박장사.]

그것을 수박장사. 두상이 수박같이 둥글동글 안해요? 그 파갈 적에 어째서 파갖는고니, 돈을 울려



(뜯어)먹을라고 파갔어요. 그런디 수 백년 된 배나무가 하나가 섰읍니다. 지금도 그 배나무가 있어. 돌배나무가, 지금 여기 배보다 훨씬, 지금 시장에 나는 배보담 아마 오분지 일쯤 될 것이요. 그배나무가 배 열매가. 배나무가 하나 섰어요. 아주 인거한(인적이 적은)곳이지. 그런디 이게 그 방문을 써 붙였어. 그 파간 사람이 그 두상을 파간 사람이,

"너는 돈을 얼마를 갖다가 이 배나무에 놓으라. 그리고 만약 그 근방에 가서 내가 있다고 보면 목숨이 보전 못혀. 그런게 넣어만 놓고 가거라. 그럼 아무날 쯤에 넣어라."

이랬단 말이여. 그런게 자기 문중허고 타협헌 결과 그 배부덩이라 돈을 맨들었어. 가짜돈으로 신문지로 요만큼 맨들었다면 여기다 천원짜리로 넣어서 똑 꼭같이 맨들어갖고 딱 찜맷어. [조사자: 가운데는 돈이 아니요?]

가운데는 신문지지. 그래갖고 요새를 말하면 몇 백만원을 인자 맹글었다 말이여. 요 여러 뭉치를, 지가 요구헌대로. 그리고는,

"내가 수가 많다. 인자 짚신을 두 죽을 갖다 놔라."

인자 전에 짚신신고 대닐 땐디. 그렇지 한 사람에 이십 컬래라면 이십명이 복병해 허고 있다는 말하자면 그런 표시지. 그래서 위협주는 바다.

위협주는 바다 그말여. 그러리라 허고 갖다넣었쇼.

넣는디 낮에 가서 잡복헌 부대가 있었어요. 전일에게 굴레 사람이라 말이지 그 일본놈 때입니다. 그때가 준오병이 아니고, 인자 형사 및이 가서 미리 잠복을 했다 그말이여. 먼디서 볼 곳 아니요? 가까운데서는 못 오고. 인자 갖다 느놓고는 기침을 허고 사방을 둘러본고 한참 섰다가 니려왔어. 그러니 백양사 사람이요. 동구라고 헙니다. 절밑에 마을 이름 보고는 동구라고 그래요. 에 말하자면 마을 동자, 입구자, 동구(洞口)라고 허는. [조사자: 마을 동자.]

입 구자, 동구라 그래요. 여기 온 중들한테서 품팔아 먹고 사는 마을이여. 그 동구라고 헌디는. 그런게 그 동구 사람이라고 허면 듣기 싫어합니다. 낮차게(낮게)말헌게. 그 동구 사람이라면 절 밑에 사는 사람들을 다 싫어합니다. [조사자: 욕하는 소리인게.]

욕허는 말갈이로 하대 혀 본다 그말이여. 중들 밑에서 심부름허는 사람이라 그렇게 그놈을 잡았어. 그때 잡어갖고 본게 그 동구 사람이여. 그래 갖고 징역 한 십여년인가 살았을 것여. 그런 일이 있어. 제일 큰 것이 그거여.

◑ 약사암 영천굴 쌀 나오는 바위-구연자: 김법은

그것은 처음에 거기서 사람이 살았던 모양이어. 도사가 상좌하고. 쌀이 돌구녁에서 나오드라요. 둘이 묵을 쌀이. 그래서 쌀을 받아먹고 사는디 한 번은 손님이 왔드라요. 둘이 묵는 쌀 밖에 안 나오는디 서니가 묵을 쌀로는 적을성 부르거든. 그래서 상좌가 쇠비땅 갖고 쑤셨어. 더 나오라고 허허. 그란게 쌀은 더 안나오고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피가 나오다가는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전설에 나오는 이야긴다.

그 물이 시방까장도 영금이 있어. 위장 나쁜 사람은 거가서 다 고쳐. 위장이 나빠서 밥을 못 먹 하는 사람도 거그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그 물을 먹으면 낫어버려. 근디 그 물이어디냐 하면(제보자는 백암산 백학봉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위에 산 꼭대기 밑에 이렇게 생긴 데 있제. 물이 흐르는 태죽이 있제. 그 물줄기여. 그 물줄기가 이 아래 와서 영천굴 앞에 와서 저장이 되었어. 시방도 그 물이 영금해요. 내가 시험을 해봤다 이거여. 속 쓰릴 때 먹어봤다 이거여. 술이나 먹고 속 쓸릴 때 먹으면 그 날로 좋아져. 위장이 썩어서 밥 못 먹은 사람도 일주일만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먹으면 낫는다 이말이여.그래 그 주지는 생전 아프단 말이 없어. 그런 예가 있어.

◑ 국기제(國祈祭)

국기제는 국가에 환란이나 재앙이 있을 때 조정에서 근신(近臣)을 보내어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국가적 제의 행사이다. 백암산에는 고려 충정왕 때에도 국기제를 올렸다는 구전이 있으며 「정토사 사적(淨土寺史蹟)」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기록에 조선 선조36년(1603)과 현종2년(1661)에 호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임금이 친히 제문을 짓고 홍문관 교리를 파견하여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국기제는 종파를 초월하여 국난을 극복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교식 제의에 의해 조정에서 파견된 헌관과 인근 7~8개 고을 원들이 집사가 되어 제를 봉행하였다.

행례 절차 중에는 강신례(降神禮)가 없고 헌관 1인이 연전 3작하고 4배를 올리며 축(祝)은 땅속에 묻었다. 제물은 4변 4두(豆)를 사용한다.

오랫동안 단절된 이 국기제는 1982년 장성군민의 날 민속 경연대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 당산제

가인마을에서는 정월달에 마을과 백양사가 공동으로 제의를 모시는데, 이를 '당산제'라고 부른다. 백양사에서 제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에서는 제에 올릴 술과 마을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과 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이렇게 제의 준비가 끝나게 되면 절에서 스님 두 분이 나와 마을사람들과 함께 제를 모신다.

제는 진설→헌작→삼배→독경→축원→소지 순으로 진행이 된다.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 밤에 모신다. 날짜에 여유가 많으면 해가 바뀐 후 마을에 초상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산제를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를 초사흗날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제를 모시는 장소는 2곳으로 '안당산'과 '바깥당산'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바깥당산은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일광정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안당산은 '할머니'라 부르고 역시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극락교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를 신체로 삼고 있다.

◑ 백양사의 유래-구연자: 해권스님

스님이 이 절에 오셔가지고 이 절에 대한 내력 같은 것 들은 적 있읍니까?

이 절이 옛날에는 백양사 이름, 고것이 대표적인 것여. 그러다가 제일 먼저 지은게 바위에가 희다고 해서 백암(白岩)이라고 했어요. 백암. 저 위에 바위 이름이 백암이라고 해서 백암사, 백암사가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처음에는 백제 말에 세웠어. 그런데 인제 중간에 정토사라 바뀌다가 고려때, 이조때 백양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에 관한 인자, 유래가 있죠. 그저 요 백학봉 밑에, 뒤에 훤히 다보이는 높은 바위가 백학봉이거든요. 백학봉 밑에서 저 약산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에서 어떤 스님이 낮에 경을 읽는데 일곱마리 양(羊)이 와서 꼭 무릎을 꿇고서 인제 그 법문, 경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인제 얼마 후에, 이 양들이 인제 그 스님 저녁 꿈에 현몽하기를,

"우리는 스님의 경읽는 소리를 듣고서 그만 마음이 욕심을 내가지고 축생의 몸을 벗어나서, 다음에는 인제 사람으로 다 태어나게 되었읍니다."

그랬다고 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주위를 찾아

보니까 정말 양 일곱 마리가 죽어 있더라 이말요.

용 일곱마리가요? 양 양 양이? 그래서 인제 그땐은부터 그 스님 이름을 부르라니까 양 양자, 환양 그 환양승이라 했고, 그러면 그때로 부터 이절 이름을 백양사라 했다요. 이 요것이 대표적인 전설이 될 것이여.

입 암 산

1) 유형문화자원

◑ 입암산성(사적 제384호)

입암산성은 전북 정읍시와 경계가 되는 입암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방이 높고 험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부가 낮아서 성내에 풍부한 수원과 활동공간을 가지고 있는 고로봉의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입암산성은 이러한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 능선과 남문지가 있는 계곡부를 포용하여 쌓은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은 내 외면 모두를 돌로 쌓은 협축법을 이용하였고 자연 할석재를 안쪽으로 약간씩 들여 쌓아서 단면은 사다리꼴을 이룬다. 성벽의 전체길이는



5.5km로 동쪽과 북쪽 구간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높이 2.5~3m 안쪽 높이 1m 내외 폭 5m 정도 이다.

이 중에서도 북쪽 구간의 경우는 여장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고 성벽 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랑의 유구도 확인되고 있다.

◑ 입암산성 보루성

입암산의 갈림길에서 입암산성을 지키기 위한 보루성으로 갈림길 능선부에 성곽과 일정한 공지가 있어 보루의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루 주변에 30m정도의 성곽이 남아있어 보루와 주변을 차단하는 성곽유적이다. 입암산성 보루성은 지표상에 옹기와 분청사기 편이 수습되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보루성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입암산성 익성

입암산의 본성에 연결되어 있는 날개성(익성)을로 동쪽에는 동암문에서 장성새재를 거쳐 정읍의 삼성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입암산 등산로를 따라 시루봉을 지나 갈재까지 연결되어 있다. 익성의 대부분은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토성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몇몇 곳에 보루의 모습도 보인다.

◑ 입암산성 옹로

입암산 산판길은 입암산성과 함께 고대의 방어유적으로 추정된다. 입암산성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한 유입로(옹로)로 일정구간 삭토하여 인위적인 길을 만들었다. 현재도 깊은 곳은 사람이 숨어 있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산판길이란 벌채하기 위하여 넓게 낸 산길을 말한다. 입암산 산판길은 탐방로 우측 사면에 이어져 있는 길로 탐방로 신설 전의 옛길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산판길로 이용되었던 길이다. 입암산은 해방 무렵까지 일본인 小林小三郎(소림소삼랑)이 산판일을 하였고, 해방 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무렵인 1970년대까지 산판을 하였다고 한다.

◑ 윤진순의비

윤진순의비는 영조18년(1742)년 장성부사 이현윤이 세운 것으로 전라도관찰사 권적이 글을 짓고 이현윤 자신이 글씨를 쓴 비석이다. 비석은 화려한 장식 없이 단순한 지붕돌을 얻어 만들었으며 지대석은 땅속에 묻혀있다. 앞면과 뒷면에 전서(篆書)체로 증좌승지윤공순의비(贈左承旨尹公殉義碑銘)는 비명이 맨 윗부분에 쓰여 있고 내용은 해서(楷書)체로 썼다. 조각수법이 화려하거나 뛰어나지 않지만 정유재란 때 순절한 윤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할 수 있다.

◑ 임시득별장비

이 비석은 1878~1879년 입암산성에서 별장직을 담당한 임시득의 공덕비이다. 1879년에 비를 세웠으나, 비신 가운데가 부러진 상태로 방치된 것을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서 수습하였다.

임시득은 종3품의 고급 무관으로 창덕궁 위장, 임자도 첨사 등을 역임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모별장은 종9품의 벼슬아치가 맡으나, 입암산성은 그 중요도에 맞게 정3품의 고위직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암산성 특별전에 전시중이고, 2014년 비석을 보수하여 원래의 자리에 복원할 예정이다.

◑ 입암산성 불망비

입암산성 성내 민가터에 있는 깨어진 비석으로 비문의 일부분에 "…여득영세(如得永世)…불망비(不忘碑)"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송덕을 기리는 불망비로 생각된다.

◑ 전일귀비

입암산 자락 끝 1번국도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전일귀비는 원덕마을의 유명한 효자인 전일귀의 효행을 기록한 효자비이다. 현재는 훼손이 심한편인데, 일설에는 전봉준이 장성에 들러 전일귀의 비석에 제사를 지내주었는데, 관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석을 잘랐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전일귀비 옆에 새롭게 복제한 비석을 만들어 두었다.

◑ 입암산성 표석

입암산성 표석은 북문지와 북장대지 사이에서 발견된 경계표석으로 "함평상(咸平上) 장성하(長城下)"라고 각자되어 있다. 이 표석은 축성구간을 경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 길이 108cm, 폭 35cm, 두께17cm로 뒷면이나 옆면에는 글자 등의 모양이 없고 성돌과 같은 재질의 돌을 다듬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 하곡 정선생 유촉지지 각자

몽계폭포 상단 탐방로 상, 암벽에 새겨진 각자로 "하곡정선생유촉지지(霞谷鄭先生遺觸之地)"라는 9자의 각자가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이곳은 장성 지역의 대표적인 선비였던 하곡 정운룡 선생이 은거하면서 하곡동골로 불리게 되었는데,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후학들이 새긴 것으로 보인다.

◑ 하곡석문각자

몽계폭포 아랫쪽 계곡 바위에 새겨진 각자로 霞谷石門(하곡석문)이라는 글자가 2줄 2행으로 새겨져 있다. 하곡은 이곳에 은거하였던 하곡 정운룡 선생의 호로 선생은 이곳을 하곡동이라 이름짓고 하곡석실이라는 암자와 몽계폭포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하곡석문각자는 오른쪽 하단부에 선생의 3세손이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어 대략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각자 좌측면에 10명의 이름을 나란히 새겼는데 그 연원은 마모되어 적확히 알 수 없다. 향후 탁본 등을 통해 글자의 재해석이 필요한 유적이다.

◑ 몽계폭포각자

몽계폭포 앞 바위에 새겨진 각자로 몽계폭포(蒙磎瀑布)의 4글자가 좌로부터 2자씩 2줄로 새겨져 있다. 이 각자는 하곡 정운룡 선생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새겨둔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 송정행삼랑명각자

송정행삼랑명각자는 새재 화장실 근처 개울가 바위에 새겨진 각자로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살며 우편국장을 한 송정행삼랑(松井幸三郎)과 소림소삼랑(小林小三郎)이 1929년 바위에 새긴 불망비이다. 국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에 이와 같은 각자가 많은 명산에 새겨졌는데 새긴 사람이나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의 산하가 멍들어갔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변경윤 묘

자하동 마을 진입로 옆 향로봉 능선에는 변경윤의 묘가 있다.

조선시대 자하동에 은거하였던 자하 변경윤(1574~1623) 선생의 무덤인데, 조선시대 사대부 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망주석과 상석이 남아 있고 자연석으로 둘레석을 꾸몄다.

비석은 1968년 다시 세운 것으로 원래의 비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변경윤은 장성에서 망암 변이중과 오씨 사이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호는 자하이며 본관은 황주로 천성이 아버지를 닮아 인품이 정중하며,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성흔, 김장생 등 당대 유명한 학자들에게 글을 배우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광해군(1575~1641)대에 구언령(求言令)을 내리자, 선생은 교서관의 저작이란 말직으로서 당시 국정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고하면서, 특히 집권 대신들이 인목대비를 폐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려 미움을 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귀향한 이후에는 지금의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자하동에 은거하여 평생을 성리학설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조정에서 관직에 다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거절하였고 한다.



◑ 새재 주막터

장성새재에 있었던 주막터로 입암산성의 주둔하였던 군사들과 가족들이 새재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새재를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막이 번성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집터와 확독만 남아있다.

◑ 입암산 산판길

산판길이란 벌채하기 위하여 넓게 낸 산길을 말한다. 입암산 산판길은 탐방로 우측 사면에 이어져 있는 길로 탐방로 신설전의 옛길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산판길로 이용되었던 길이다. 입암산은 해방 무렵까지 일본인 小林小三郎(소림소삼랑)이 산판일을 하였고, 해방 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무렵인 1970년대까지 산판을 하였다고 한다.

2) 무형문화자원

◑ 자하동 마을 유래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입구에서 2.5km 올라와 서북쪽으로 난 길로 2km가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자하동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처음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 1574~1623)이 모함을 피해 이곳에 은거하였다고 하여 자하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곳을 잣골, 자장동(子長洞)이라고도 부르나, 그 내력은 알 수 없다.

자하동은 변경윤이 은거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해 김씨 집안에서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 1970년대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15호, 해방후 12호가 남은 후, 한국전쟁 때 전소하여 4호가 남았고 현재는 2호만 남아 있다.

◑ 송정당산제

송정마을에서는 매년 마을 공동으로 제를 모시는데 이를 당산제라고 한다. 제일(祭日)은 음력 정월 열나흗날로 제는 자시경에 시작하여 새벽 3시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당산제 모시기 전 마을에 액운이 낀 경우에는 날짜를 다시 잡고 제주도 다시 정한다. 제를 모시는 곳은 2곳으로 당산할아버지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소나무이고 당산할머니는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이다. 소나무와 은행나무에는 각각 돌로 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 갈애바위 전설

원덕에서 동편으로 400m 정도 떨러진 도로변에 병풍산(노령산)에서 흘러나온 조그마한 바위 봉우리가 있는데 흡사 여인의 얼굴과 같으며 이 바위를 갈애바위 또는 미인암, 처용암 이라고 부른다. 갈애는 목란마을에서 태어난 실종인물로서 미모가 천하일색으로 당재의 名妓가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金學者와 장님노파의 딸인 福女사이에 태어난 갈애(蘆娥)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느 퇴기집의 수양딸로 팔려가 妓生이 되었는데 그의 미모가 어찌나 빼어나던지 全羅道에 부임해 오는 부사, 감사들이 모두 갈애에게 정신을 팔려 민정을 돌보지 않으니 조정에서(成宗大王이라는 설도 있음) 노계명(盧啓命)을 암행어사로 보내어 처벌하게 하였다. 이 소식을 안 노아는 미리 갈재 계곡에서 소복을 입고 盧어사를 유인하여 그와 백년가약의 언약을 맺고 팔에 언약의 맹세로 盧어사의 이름을 쓰게 했다. 며칠후 어사 출두를 하여 죄를 문책 받게 된 노아는

盧兒臂上刻誰名(노아비상각수명)

點入雪盧字字明(점입설노자자명)

寧使川原江水盡(영사천원강수진)

此心終不負初盟(차심종불부초맹)

(노아의 이팔에 뉘이름 새겨있뇨

고운살에 먹이 베어 글자도 선명쿠나

차라리 천원강이 말라버릴지언정

굳게 맺은 그 맹세 변할 줄이 있으랴)

라는 글을 써 올리니 어사는 그제야 속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 문죄치 못하고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님에게 사실을 고하고 어명을

받아 노아를 소실로 맞이하였다고 한다. 갈애가 죽은 후 마을에 예쁜 여자들이 태어나지만 풍기가 문란하였는데 지나가던 중이 말하기를 갈애바위의 정기때문 이라 하여 바위의 한쪽 눈을 정으로 파버렸다고 한다. 그 후 태어난 여인들은 얼굴은 곱되 눈이 먼 애꾸가 많이 태어난다는 말이 전해온다.

◑ 싸움도 못한 입암산성-구연자 : 최준영

쌍웅리는 여기가 곰재라는 곳이여. [조사자: 곰재.] 곰 곰잰디, 곰이 두 마리여. 쌍 웅(雙熊). 그래서 이 곰재에 작은 곰재, 큰 곰재 그런게 곰 두 마리가 있어서

쌍웅리여.

[조사자: 곰 두 마리가 있다고 해서 쌍웅리.] 그런게 그 산에 가서 있다. 그못쓰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입암산성에서 싸움을 못했어. [조사자: 입암산성에서 싸움을 못했다.]

그것이 임진왜란 때인가 언제가, 백양사에 사는 무슨 중이 있었는데, 이 중이 술도(術道)를 해 응. 술도를 잘 허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는고 허니, 별장허고 지금 그 누구여. 중허고 둘이서 거기서. 그런디 입암산성을 보면 정읍땅인디, 그 새암밭이 있어어. 새암밭, 새암밭을 강으로 맨들었던 몬양이여. [조사자: 강으로?] 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일, 일본 사람이 전장에 오는디, 아 거기를 당도하니까 강을 막어. 입암산성에 못오겠어. 그런게 그때에 무슨 장군이던고 이 사람이, 강이 있다고 헌게,

"지도상으로 봐서 여기가 강이 없는디, 뭔 강이냐?"

그런디 그것 실제로 그랬어.

"그런디 여기 강 없는디다. 응, 조수가 아니냐?"

그래갖고 입암산성을 점령했어. 그런게 안 죽거든 물로 들어가봤던들.

그런게 입암산성 오니까 둘이 앉어서 술상 놓고 앉어드래요.

[조사자: 입암산성에서 둘이 술상을 놓고 앉었다고요?]

"내가 조화를 부렸은게 여기를 못 쳐들어온다."

[조사자: 그러니까 그 중, 중이 술법을 부려가지고 강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 적군이 못오게 만들어 놓은것이였군요.]

그런게 그 중이 생각을 허고는 잉, 군인들이 필요없다. 여기는 침입을 못헌다.

[조사자: 성에는 침입을 못헌다.] 그런게 별장허고 중허고 둘이면 앉어놀아.

[조사자: 거기 앉어 가지고 병사들도 없이.] 그런게 싸움 한번도 못해봤지.

[조사자: 싸움도 안하고 적군을 못쳐들어 오게 헌다?] 그런디 강에 나왔는디,

배가 없은 게 못올 것 아니여? 그러니까, 그렇다 허니까 그 대장이 그쪽 대장이 지도를 꺼내봤어. [조사자: 지도를.] 지도를 꺼내보니까 강이 없는디, 가서 이것이 필연이 무슨 곡절이 있다. 무슨 술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병 해라."

해서 기어올린다 혀. [조사자: 그런 전설이 있구만요.] 그러니까 싸움도 못 해보고. 와보니까 그저 중이 심만 믿고 둘이 놀면서, 술 먹고 술상 가져와서. 그러니께여 장성서는 싸움 한번도 못했다는 걸로.

[조사자: 임진왜란 때의 일이지요.] 응.

◑ 전일귀의 효도- 구연자:김병학

저 그전에 들은 바가 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들은 대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 지금 교통이 좋고 우리 일상 생활에 편리하게 되었지만은, 지금부터 수백년 전 그때 말하며 아주 그 옛날이라 생각헐 수 있고, 또 따라서 교통도 불편할 때이고, 인간도 그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지도 않을 때이고 우리 면내에 원동리 구역에 필샘이란 마을이 있읍니다. (여기까지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임.) 필…. 필샘이 필샘이. 필도, 필도자 섬도자, 피직자 직도인디, 거기를 인자 부르는 이름으로써 필샘이라고 그럽니다. 필직자 섬도자인게 필샘이지 필섬.

그래 필섬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산



중입니다. 그 밑에 목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디, 목란서 그 산간으로 이렇게 산중으로 들어가는 마을인디. 아마 거기서도 3km 아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조 산간부락인데 거기 아마 그때 호수가 한 대여섯 호 한 오육호 살았어요. 그런데 오육호가 살아도 여기 저기 산전호수(山巾戶數)재 전부가 이전일귀라고 하는 분이 사는디는 외따로 있습니다, 외따로. 그리고 산간부락 일망정 산중에 외따로 산다고 다 보겠지요. 그 밑에 와서 인자 한 오육호 있었제. 그런디 그 이 그 분 어르신네가 만득(晩得)으로써 기다리고 기다리고 허다가 인제 어른[어린이의 잘못] 낳읍니다.

말하자면 인자 쉬운뎅이니 허는 말이 있는디, 아마 오십이 넘어서서 아이 낳았나 싶게 됐어요. 그 전지기는 전일귀라 사람을 그 전씨에서 오로지 전(全)자 전씨입니다. 밭 전자가 아니라 그리고 날 일(日)자 또 귀할 귀(貴)자 전일귀입니다. 그 따라서 지그 어머니도 노인이겠지요. 그게 참

이웃집도 없고, 단 한집 사는 집에서, 에, 담배 경작을 허고 또 과거에 자유롭게 술을 해먹었기 때문에 누룩같은 것을 맨들어서 팔아가지고 그져 누룩 비져서는 팔고, 또는, 에, 담배 경작해서 팔고, 또는 산중이기 때문에 나무를 해서 팔고 해서 인자 생활을 인자 해 왔는데, 에, 만득으로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허다가 에 아들 하나 나니까 오즉 귀엽습니까? 네 그렇겠지요. 아 그런게, 금지옥엽 같이 금이냐 옥이냐 이렇게 허지. 금옥같이 그애를 기릅니다. 나중에 서서 겨우 돌이 지내서 인자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만 허니까 저녁이면, 인제 낮에는 일을 허고, 저녁엔 인자 앉아서 즈거 아버지는 아랫목에 앉었고, 즈거 어머니는 웃목에 앉았지요. 심심허니 고놈 가지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지냅니다. 그저 지내는 동안에 저녁이까 말 벗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애를 시켜서,

"야! 너 느거 어머니를 잘 못 말함. 뺨을 한대 탁 때리고 오너라."

그러고 인제 뺨 한대 딱 때리면 또 서로 인자 부모가 웃고, 또 따라서 그 애가 웃고, 인자 이렇게 재미를 붙여서 삽니다. 또 때로는 즈거 어머니가, "야! 느그 아버지, 저기 아랫목에 느거 아버지, 아랫목에 앉아 있으니까 느거 아버지 그것 수염 좀 뽑아 와라."

이렇게 허고, 이래가지고 어려서 부터 길렀읍니다. 그런게 그냥 순전이 문견이라는 건디, 문견이라고 했자 이웃집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므로써 듣고 또 보기도 허고 허는 것인디, 이웃집이 통 없고 한집이기 때문에 문견이라는 게 없읍니다. 단 문견이라고 헌다고 허면은 즈거 부모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허는 것이, ㅈㅣ 부모 허는 것이 문견여. 그러기 때문에 그 애가 커날 때 문견이라고 헌다고 허면은, 자우간 단순이 그저 지그 어미 그저 뺨이나 때리고, 즈 아버지 수염이나 잡아 댕이고, 즈 아버지 상투나 잡아 댕이고 허는 것이 으례히,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할 것이다 허는 정도로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애가 크드락까지, 아 그래 으래 마냥 힘이 장사요, 키도 크고

힘도 장사고 그런데, 아 으례히 이냥 부모를 그냥 때리고 또 부모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애여. 이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그 뿐이라. 그래 내중에는 부모가 그냥 골치거립니다, 그냥. 만덕(晩得)으로써 기다렸던 아들 귀여운 아들이었지만 어떠거든 불효든지 아조 '무자식 상팔자'라 오히려 없는 것만 같이 못하다는 이러한 비관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눈물로서 세월을 니겼읍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인자 혼령(婚齡)에 달하니까, 인제 여위였읍니다. 여위어 가지고 며느리 얻어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소용이 없어. 그냥 부모들 으례히 그냥 일 안한다고 때리고 그냥 들에서 그냥 아무데나 아버지 어머니가 잠이라도 늦게 늦게 일어나고 그라면은,

"해가 이렇게 떴는데 왜 이렇게 늦잠자냐?"

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경우 막 때리기를 보통 우리네가. 이런 뭐 그냥, 짐승 때리댁기 으례이 지 부모를 때립니다. 그러닌께 늙어 가면서도 일을 안하면은 조금 아들한테 뚜드리 맞고, 일 안하면은 즈 아들한테 볶겨요. 한게 힘은 부치는데도 억지로 즈그 아들 무서워서 일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애도 인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게 손자가 귀엽고 하지만은 아들이 원체 불효허기 때문에 손자 귀여운 정(情)도 모르고, 이렇게 에 비관적인 처지에서 생활을 해오는디. 하루는 비가 오는데,

들에서 일을 허다가 옷을 젖은게 곤란안합니까? 그런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으로 들어오면은 아직은 비가 소낙비 쌈비가 오지 않는데 벌써 들어왔다고 때릴 것이고, 또 밖에 있자니 비 맞아서 옷을 젖께 생기고, 그런게 그 외양간으로 모르게 쑥 들어갔읍니다. 잉 모르게 자기 아들 눈을 피해서, 에, 외양간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아 그것을 또 아들이 봤다. 보고서는,

"벌써 아직은 옷 젖을 정도로 비가 오지 않은디, 아 벌써 이렇게 들어왔다."

고 막 때립니다, 즈그 아버지를. 그러자 실컨 때려 놓고 인자 자기 아들을 인자 보듬고는 마당이서, 하이 이뻐허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라, 그것이

지. 하이고 말이여, 자기 아들 보고서 이뻐허고 이러거든요. 그런게 자기 어머니가 있다가,

"야야! 너는 니 새끼만 온통 이쁘냐?"

"하이 이쁘고 말고요라요."

이런게 인자,

"나는 너를 낳아서 키울 때에 니가 지금 니 아들 이뻐하는 정도가 아니다. 나는 만덕으로써, 참 늙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다. 이렇게 해서 너를 낳기 때문에, 니가 지금 아들 낳아서 지금 니 새끼 이뻐하는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런디 니가 부모한테 잘 해서 부모 마음을 편히 허고, 또 고기 반찬 부모, 인자 반찬해서 부모 봉양헐지는 모르고, 오히려 일 안한다고 늙은 몸 늙은 처지에 있는 부모를 그냥 일안한다고 때리고, 아이 이렇게 불효를 허니 기가 맥힌 일이다."

그런게 그 말에 견문일침(頂門一針)을 주니까 얼핏 느낌이 있었던 것 같더라. 아 그래서 한참 암말도 안하고 무엇인가 생각허는 표정이 있었는데, 아 그냥 아기를 방에다 딱 놓고는 엎드려서 에 참,

"어머니!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일 허시지 말라."

고. 그래가지고 그때부더는 그냥 일을 못헌다. 일을 허들 못허게, 즈 부모를. 으뜩허든 효행을 다 하던지간에, 햐 그저 참, 힘은 센 사람이라 일도 잘 허고. 하 그냥 부모한테. 또 여기서 인제 한옴장입니다.

장성, 지금 장성 구한국 시대부터 있는 장입니다. 이 부근에서도 여기 저 장성, 장, 한옴장 또는 정읍장이라는 것이 역사가 깊읍니다, 시장으로써. 한옴장이라고 허는 것은 여기서 사십리가 넘습니다. 킬로 수로 말한다면 한 오십리 될 것입니다. 오십리가량 될 것입니다. 킬로 수로는 이런 먼 곳까지 여 담배 경작해 그놈 팔고, 또 누룩 갖다 팔고, 때로는 또 나무도 갖다 팔고 해서, 장을 봐가지고는 반드시 희귀한 쌀을 말하자면은 팔고, 또는 고기를 해서 자기 부모를 편히 모셨다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새것으로 오늘장에는 달래 말하자면, 육지에서 생산된 고기를 사 왔다면은 다음장날에는 해물을 사오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전날에는 그 불효헌 때는 매일 부모가 그 밑에 마을에 와서 호소를 헙니다.

"내가 자식 사랑한 것이 원수니,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것 새 길을 주면 감사허겄다."

고 말을 헙니다.

"허 그러겄다."

동리 사람이 몽댕이를 들고와서 그냥 그놈을,

"그 전일귀 이놈 어찌 부모한테 불효를 허니냐?"

그냥 막 그것도 헐라도. 이놈이 원히 장사라 힘이. 해 볼 수가 없어. 그런 남의 일에 자기가 몸 다쳐가며 그냥 도와 줄라고 허는 사람은 없고, 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왔던 것인디, 이것이 말하자면 백 프로 어떠콤 전환되어가지고 인자 효자가 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그 부근에서 아주 '과거에는 아주 세상에 없는 불효자, 오늘날에 와서는 아주 만고에 없는 효자.'

이렇게 변신하였는데, 하루는 전라도 관찰사입니다. 요새 도지사. 그러지만 그때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남북도가 없이 그냥 전라도가 아니였어요? 그러면 전라도 관찰사, 에, 그 가는 소재지가 전주입니다. 전주 전라북도 전주. 그래 전주로 인자 관찰사가 인자 부임해가지고 초도순시를 헙니다. 인자 그러며는 지방 그 관례를 순시를 안합니까? 그 광주 나주를 인자 그 순시차 내려오는 판인데, 그가 전주서 이 광주로 내왕허는 나중에 내왕하는 길 좋았을 테지만은, 서울서 요리 내려오는 큰 길



입니다, 그게 그전부터 그것이. 그래 인자 길옆이 거든.

그래 인자, 그리 오니깐 초도 순시차 여기를 내려 오는데, 아 그냥 호랑이 큰 범이 그냥 딱 교대로 이대로 허고, 가만 가만 걸어가면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헌다 그런다 말이여. 그러니 갈 수가 없어. 호랭이가 오죽 무서운 겁니까? 호랑이라는게. 그런게 벌써 이 관찰사도 보통 인사가 아니고 이것 저것 분별력을 가진 분이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입감이,

"아, 여기 효자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방 사람을 불러서,

"이 부근에 와서 효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 있읍니다. 전일귀란 사람이 있는디, 전에는 아주 불효를 했고 허지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아주 효자가 되었다." 고.

"그러냐!"

그때는 인제 군 지 집이입니다. 군기생이지락 그러니까 그러겄다고, 그러면,

"내가, 내가 그 오래지 않아 전라도 요쪽 부근으로 전부 순시를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비를, 비 하나라도 세워야겠다고. 세워줘야겠다."

고. 이러니까 선전을 허니까 호랭이가 피합니다. 그래서 내중에 인제 여러 날 이렇게 순행을 인자 순시를 허고 돌아가는 길인디 잊어버렸어. 그것을 잊어버렸어. 그런게 호랭이가 딱 나와서 딱 가로막더니, 그런게 그때사,

"아, 내가 잊었군."

그래가지고 지방사람들을 동원해서 비를 세웠는데, 그게 돌, 요만헌 놈, 그저 '효자 정지비'라 해가지고 효자비, 요렇게 세워썼는디, 그 도로변에다. 요즘에 와서 그 향교에서 유림들이 몇년 안됐읍니다. 한 삼년 됐었는가. 이 효자를, 그냥 그렇게 집에 외딴지 아주, 그나마 애들 놀면서 이렇게 돌맹이, 어떻게 해서 아래쪽에가 떨어져서 견디다 않고 이것을 미우면 미웃 돌 허는 정도로 아주 못 쓰게 생겼어, 비가. 그래서 그렇게 순탄허니 세워놀 분이 아니다. 좀 이 비를 만고에 언제든지 길이 빛나도록 해야 헐 것이며, 또 요즘은 구품이 같은 이 말하니까 말인데. 부모헌티 불효를 허는 경향이 많으니, 이것을 모두 젊은 사람들, 모두 부모헌테 잘못허는 사람들, 모두 깨우치는 반면, 또 누구나 부모한테 잘 해야, 잘 허도록 허는 의미에서 이 효자비를 잘 시워야겠다고 해서, 사거리에 세워서 저 그 모퉁이 돌아가는데다 비를 세웠읍니다. 그래 이것이 어른들한테 들은 바의 그 전일귀 내력입니다.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5 PM 페이지202 Mac1 CTP-2400-CMYK

고 문 서(古文書)

♠ 사서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사강목(東史綱目)』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 문집류

『삼봉집(三峰集)-정도전』

『백사집(이항복)』

『난중잡록(亂中雜錄)-조경남』

『만기요람(서영보 심상규)』

『서애선생문집(유성룡)』

『송자대전(송시열)』

『계곡집(谿谷集)(장유)』

『수은집(강항)』

♠ 구전자료

싸움도 해보지 못한 입암산성(설화:구술자 최준영)

입암산성과 쌍웅리에 관한 유래(설화:구술자 최봉수)

묵중에게 시험당한 백양사 주지(설화:구술자 최준성)

백양사의 유래(설화 구술자 해권스님)

♠ 기타

『장성읍지(長城邑誌)』

『국조보감(國朝寶鑑)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윤진순의비』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기년편고』

『국조인물지』

「백암산 정토사 사적(법시 1341년)」

「백암산 정토사 교루기」

「장성현 백암사 쌍계루기」

「쌍계루설)」

쌍계루 관련 한시(정몽주, 이정귀, 김원기, 권상로, 만암, 등)

신문자료(동아일보 1934~1960)

♠ 고지도

광여도, 해동지도, 1872년 지방지도, 여지도, 지승, 비변사방안지도, 동여도, 청구도, 청구요람,

관동지도, 입암산성도, 대동여지도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5 PM 페이지203 Mac1 CTP-2400-CMYK



♠ 논문

- 강현구.「백양사의 민속자료」.『불교문화연구』6. 1996.
- 고영규.「전남지역 성곽연구의 現況와 과제」.『호남고고학지』10. 1999.
- 김광중.「선비 孫弘祿과 安義에 대하여, -朝鮮王朝實錄의 守護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우석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 김동수.「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역사학연구』30. 2007.
- 노영구.「조선후기 성제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진단학보』88. 1999.
- 박래경.「白巖山 國祈祭의 民俗信仰 硏究」.『향토문화』8. 1983.
- 박춘규.「백양사의 부도」.『불교문화연구』6. 1996.
- 변시연.「입암산성답사보고서」.『상서』vol. 2. 1979.
- 성춘경.「조선시대 소요대사 부도에 대한 고찰」.『문화사학』20. 2003.
- 안진호.「백양사와 백양년」.『불교사불교』62. 1929.
- 이계표.「백양사의 역사」.『불교문화연구』6. 1996.
- 이병희.「고려말 조선초의 백양사 경제문제」.『한국사연구』99. 1997.
- 이영숙.「백양사의 유물」.『불교문화연구』6. 1996.
- 이정미.「조선후기 산성 僧營寺刹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06.
- 이준곤.「백양사의 설화자료」.『불교문화연구』6. 1996.
- 정의행.「백양사의 승전」.『불교문화연구』6. 1996.
- 조원래.「정유재란과 호남의병」.『전남사학』8. 1994.
- 천득염.「백양사의 건축」.『불교문화연구』6. 1996.
- 최성렬.「백양사의 석비」.『불교문화연구』6. 1996.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5 PM 페이지204 Mac1 CTP-2400-CMYK

참고문헌

♠ 서적

- 국립공원연구원. 『2013 내장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연구원. 2013.
- 나경수. 『장성군 마을굿』. 민속원. 2007.
-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자원 모니터링 8차년도』. 내장산국립공원. 2012.
- 내장사국립공원백암사무소.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 · 문화자원관리방안 연구』.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 내장사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재미있는 백암산 이야기』.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9.
- 내장사국립공원백암사무소. 『백암산 숨겨진이야기』.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11.
- 내장사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입암산성 · 습지 복합자원 보전방안』.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13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 청. 2002.
- 이동백, 『길따라 마음따라 알콩달콩 정읍이야기』, 정읍시, (사)둘레. 2011
- 이민석, 『정읍시립박물관 개관기념 기획특별전, 1592년 6월 22일 조선왕조실록, 삼천리 여정을 시작하다』, 정읍시, 하나칼라인쇄. 2012
- 임남곤, 『정읍문화재지』, 정읍문화원, 합동인쇄소, 2002
- 전라남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장성군』. 전라남도문화재연구원. 2005.
- 전라남도장성군.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장성군. 1989.
- 전라남도장성군.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장성군. 1990.
- 전라남도장성군 · 명지대학교부설한국건축문화연구소. 『장성입암산성 지 표조사보고서』. 장성군. 2003.
- 전라남도장성군 · 명지대학교부설한국건축문화연구소. 『장성입암산성 종 합정비 기본계획』. 장성군. 2004.
- 조선대학교박물관. 『장성군의 문화유적』.장성군. 1999.
- 만암대종사문집간행회. 『만암문집』. 백양사 고불총림. 1987.
- 최미경. 『내장산국립공원 40년사 기념 1971 ~2012』,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2012
- 최현식. 『정읍의 역사와 문화』, 정읍문화원, 신아출판사, 1996
- 최현식. 『신판정읍인물지』, 정읍문화원, 신아출판사, 2007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5 PM 페이지205 Mac1 CTP-2400-CMYK



♠ 참고홈페이지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

http://www.cha.go.kr(문화재청)

http://www.minchu.or.kr(한국고전번역원)

http://www.conservation.or.kr(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http://www.nricp.go.kr(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hnas.or.kr(호남고고학회)

http://e-kyujanggak.snu.ac.kr(규장각한국학연구소)

http://tour.jangseong.go.kr(장성군 문화관광)

http://www.history.go.kr(국사편찬위원회)

http://yoksa.aks.ac.kr(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유림문화-내장산국립공원 내지+2 2015.1.21 6:35 PM 페이지206 Mac1 CTP-2400-CMYK